

韓國服飾

第39號

단국대학교 卍廟善紀念博物館



目次



韓國服飾 제39호 | 2018.05

■ 논문

- 대한제국 황실 어린이 의례복식에 관한 일고찰 5
- 장서각 소장 영친왕 자료를 중심으로 -
이민주
-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 유물에 관한 고찰 37
-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
이명은
- 근대 한국 아동복식의 변천 : 1884~1945 63
김정아

■ 한국복식 간행규정

■ 윤리규정



대한제국 황실 어린이 의례복식에 관한 일고찰

- 장서각 소장 영친왕 자료를 중심으로 -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 논문요약

조선시대 어린이를 규정하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관례(冠禮)를 치렀는가 치르지 않았는가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어린이 의례 및 복식에 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문헌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다행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어린이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4건의 『호산청일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식발기’가 24건 남아있다. 그중 영친왕관련 자료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친왕 출생 당시의 기록인 『정유년 호산청소일기』와 함께 ‘왕실발기’를 중심으로 황실어린이의례와 복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각 의례 및 복식이 갖는 의미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에서는 국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기시’라고 부른다. 영친왕은 대한제국기에 태어났으므로 ‘황자 아기시’라고 칭했으며, 봉작을 받은 이후에는 ‘영친왕’으로 불렸다.

둘째, 영친왕이 치른 왕실어린이의례는 목욕례, 권초례, 안태례 및 초도례를 비롯해 책봉례와 입학례가 있었으며, 각 의례별 복식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왕실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칠일까지는 저고리, 바디, 두령이가 있었으며 돌에는 복건을 비롯해 사규삼, 껌자, 주의를 제작하였다. 저고리는 ‘동의복’으로 지칭하였다.

셋째, 영친왕은 돌, 입학례, 책봉례 등을 정식으로 치르지는 않았지만 때에 맞춰 복식을 장만하였다. 이는 귀한 자식일수록 해코지가 있을까 두려워한 풍속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례는 생략할지라도 친왕으로 봉작할 때에는 곤룡포를 제작하고 칠장복을 하사하였으며, 입학시에도 곤룡포를 입고 강학을 하였다.

넷째, 영친왕 단독발기에서는 동의복을 ‘동의대’로 바디를 ‘봉디’로 기록하였으나 고종, 순종과 함께 복식을 장만하는 경우에는 명칭뿐 아니라 직물과 색상 등에서 차이를 두었다. 고종과 순종의 복식에만 생운문갑사와 생운문궁사를 사용하였으며, 고종은 황색, 순종은 홍색, 영친왕은 자적색으로 용포를 제작하였다.

주제어 : 황실, 어린이의례, 호산청일기, 영친왕, 왕실발기, 장서각

* Corresponding author : LEE MINJOO, E-mail : mjlee815@aks.ac.kr

| 투고일 | 2018.04.12 | 심사개시일 | 2018.04.20 | 심사완료일 | 2018.04.30 | 게재확정일 | 2018.05.10

I. 머리말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어린이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어린이의 연령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전공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심리학에서는 13세까지를 아동기로 보고 있으며,¹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실에서는 몇 살까지를 어린이로 보았을까? 조선왕실에서는 나이보다 오히려 관례를 치렀는가? 치르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더욱이 왕실이라는 특수성은 책례 및 입학례를 관례 전에 거행함으로써 복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455년(세조 1)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梁誠之)는 “종실로부터 사대부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13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여 립(笠)·두건(頭巾)·사모(紗帽)로 삼가(三加)를 하거나 사모·복두(幞頭)·양관(梁冠)으로 삼가를 하되 관례를 하지 않은 자는 입학(入學)은 물론 혼례(婚禮)·종사(從仕)를 허락하지 말자.”²고 함으로써 관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관례를 치러야 반드시 입학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8세가 되면 모두 소학에 입학시키고 15세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학술을 통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³ 특히 천자의 원자(元子)와 적자(適者)가 8세에 입학하는 것은 곧 삼대(三代)의 고례라고 하였으며,⁴ 실제 현종이후 입학례는 모두 관례 전에 거행하였다.

더욱이 왕세자 책봉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조선왕실에서는 일찍 세자를 책봉하여 나라의 근본을 정하고 위호(位號)를 정하여 인심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에 장헌세자와 순종은 2살, 경종과 문효세자는 3살, 효명세자는 4살 등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자가 왕세자로 책봉을 받았다.

이처럼 왕실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책례와 입학례를 거행했지만 결코 관례를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이는 성인이 되는 의식일 뿐 아니라 국분을 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삼가례의 복식이 익선관(翼善冠)에서 원유관(遠遊冠), 원유관에서 다시 면류관(冕旒冠)으로 가관되는 과정에서 국왕으로서의 책무가 지워진다. 따라서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공정책(空頂幘)을 쓰도록 규정⁵해 놓은 것도 그만큼 관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⁶ 이에 순조(1790~1834)는 1800년 2월 2일 책례와 관례를 거행함에 있어 관례는 묘시(卯時)인 5시~7시 사이에 치렀으며, 책례는 오시(午時)인 11시~13시 사이에 치렀으므로 면류관을 쓰고 책봉례를 거행하였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기준을 관례로 정하고, 왕실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례 전에 거행한 책례와 입학례까지를 어린이 의례로 규정하고 영친왕을 중심으로 황실어린이 의례 및 복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왕실어린이 복식에 대한 연구는 박성실의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의 나이를 10세까지로 정의하고 전통 아기옷에 대한 문헌과 유물을 비교분석하였으며,⁸ 진덕순·이은주는 「1932년 왕손 이구의 『의대목록』 복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대목록에 보이는 돌 복식의 명칭을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⁹ 또 왕실 의례복식과 관련해서는 입학례, 책례, 관례 등 각각의 의례복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⁰ 그러나 어린이 의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에서부터 관례 전까지 거행된 의례 및 그에

1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어린이, 어린이의 연령범위.

2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정유).

3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1월 6일(계미).

4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11월 4일(기사).

5 『국조속오례의보사례』, 관례전책복제도.

6 최연우(2017), 조선후기 공정책(空頂幘)의 제정 및 사용, 한복문화 20(3), 110쪽.

7 관례전 책봉시에는 공정책(空頂幘)을 착용하지만 관례를 치른 후에는 면류관을 쓸 수 있으므로 왕세자의 위용이 더 잘 갖추어졌다.

8 박성실(2000),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복식 18, 43-98쪽.

9 진덕순·이은주(2016), 1932년 왕손 이구의 「의대목록」 복식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49호, 157-183쪽.

10 이명은(2003), 『궁중복고』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혜윤·이은주(2013), 1817년 효명세자 입학례의 왕세자 복식 고증, 문화재 46, 188-207쪽; 이민주(2008), 조선시대 왕세자 책례복식의 추이, 조선왕실의 가례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9-254쪽; 이민주(2010), 효명세자의 일생을 통해 본 가례복식, 조선왕실의 가례 2, 한국학중앙연구원, 331-391쪽; 이주미·홍나영(2018), 연잉군 관례절차와 복식 연구, 복식 68(1), 40-50쪽.

다른 복식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다행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왕실 아기의 출산과 관련된 『호산청일기』 4건을 비롯해 탄일, 삼칠일, 백일, 돌 및 관례 전에 거행한 책례, 입학례를 비롯해 정조, 4월 초팔일, 단오 등의 명절과 고종·순종 탄일에 장만한 복식발기 24건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영친왕과 관련된 자료가 20건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영친왕의 의복발기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를 좇되 기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제국 황실 어린이 복식의 일면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황실어린이 의례

황실어린이 의례는 출생 후에 치러지는 목욕례를 시작으로 관례 전에 행해진 책례 및 입학례까지가 해당된다. 이를 다시 크게 분류하면 ‘아기시의례’¹¹와 ‘친왕자가의례’¹²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왕실에서 임금이 낳은 자녀는 남녀간을 불문하고 갓 나오면 모두 ‘아기시’가 된다. 원자도 아기시, 대군도 아기시, 공주도 아기시, 왕자도 아기시, 옹주도 아기시라고 하지만 봉작한 후에는 각각의 서열에 따라 동궁마마, 대군대감, 공주가 자마마, 군대감, 옹주자가로 불린다.¹³ ‘아기시의례’와 관련해서는 장서각에 4건의 『호산청일기』를 통해 각각의 의식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2> 또한 영친왕의 ‘친왕자가’의례와 관련해서는 복식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최숙원방 호산청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그림 2.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 아기시의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출산관련 기록은 영조를 낳은 숙빈최씨의 호산청일기 3건¹⁴과 영친왕을 낳은 황귀비 엄씨의 『정유년호산청소일기(丁酉年 護産廳小日記)』이다. 황귀비 엄씨는 영친왕 이은을 낳을 당시 궁인(宮人)이었으며, 출산 당일에 호산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출산에서부터 권초례에 이르기까지의 의례절차가 『정유년호산청소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궁인의 신분이었던 엄씨는<그림 3> 삼일째 되는 날 귀인으로 봉작을 받았다.¹⁵

조선왕실에서는 왕비나 왕세자빈이 출산할 때가 되면 쉼 안에 산실청이 설치된다.¹⁶ 그러나 후궁의 경우에

11 현대국어에서는 ‘아기씨’가 표준어이지만 발기자료에는 모두 ‘아기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아기씨(阿只氏)’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발기자료에 기초해 ‘아기시’로 기록하고자 한다.

12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이 영친왕 복식발기자료이므로 여기에서는 ‘친왕의례’가 더 적합하다.

13 『궁중에법풍속과 전하는 말삼』, 단국대학교도서관 소장.

14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최숙의방 호산청일기』·『최귀인방 호산청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619.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618. 1693년 『최숙원방호산청일기』가 속종의 3남을 낳을 때 기록이며, 1694년 영조를 낳을 때의 기록은 『최숙의방 호산청일기』이다. 또 5남을 낳을 때의 기록은 「최귀인방 호산청일기」에 남아 있다.

15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光武元年丁酉九月二十七日癸丑晴吹西風, 【…】 同日酉時 詔曰宮人嚴氏貴人封爵. 조은숙(2017). 『호산청일기』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6. 205-236쪽.



그림 3. 귀인 엄씨(1854-1911), 국립고궁박물관소장.



그림 4. 영친왕 이은(1897-1970), 국립고궁박물관소장

는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1580년(선조 13) 숙의(淑儀) 정씨가 아이를 낳다가 산병이 나서 졸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치료를 잘못하여 그런 것으로 의심하고 대궐 안에서 해산을 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다.¹⁷ 다만 산실청은 출산하기 3개월 전에 설치했으며, 산실청을 설치하라는 명이 내려지면 출산을 담당할 권초관(捲草官)을 비롯해 산실의관과 내의(內醫), 의약동참(議藥同參) 등을 정하고, 삼 제조는 4일 간격으로, 의관 및 의녀는 3일 간격으로 문안을 드리되, 청이 설치되면 매일 문안을 드렸다. 그러나 호산청은 출산 1개월 전에 설치되었으나 영친왕의 경우에는 출산 당일에 호산청이 설치되었으며 호산관은 본청의 의관을 장망(長望)하여 낙점을 받았다. 그 외 여러 가지 거행하는 것들은 산실청과 같다.¹⁸ 다만 의료진의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엄격한 신분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실청과 호산청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또한 문안례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었다. 최숙원방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격일로 안부를 물어보았으나 최숙의방에는 처음에는 이틀 간격으로 문안을 하다 출산 열흘 전부터는 매일 안부를 물었다. 물론 출산 후에는 매일 안부를 묻고,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출산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왕실에서는 출산 후 삼일째 되는 날 목욕례를 거행했으며, 칠일 째 되는 날

표 1. 산실청과 호산청의 구분 및 실제

구분	설치시기	책임자	의료진	권초관
산실청	前期三朔	3제조	산실의관 내의 의약동참	권초관
호산청	前期一朔		호산관	
영친왕	期日	호산청차지: 김규복 종사관: 최석두	호산관전의: 박준승, 최석우 탕약고원: 김용환, 유호영 대령의녀: 죽엽, 진향	호산관(박준승) 겸

표 2. 호산청 설치기간 및 아기사 탄생일시

구분	호산청설치기간	문안	아기사 탄생
최숙원방	1693년 9월 3일 ~ 10월 16일	격일 문안	1693년(숙종 19) 10월 6일
최숙의방	1694년 8월 1일 ~ 9월 19일	9월 3일부터 매일	1694년(숙종 20) 9월 13일
최귀인방	1698년 7월 1일 ~ 7월 13일	격일 문안	1698년(숙종 24) 7월 7일
정유년	1897년 9월 25일 ~ 10월 1일	매일문안	1897년(광무원년) 9월 25일

16 신명호(2002),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고문서연구 21, 158~159쪽.

17 『선조수정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1일(정묘), 祖宗靈法太嚴 後宮懷孕 則送還外宅解媵 至是金氏鄭氏 連以産病不救 上疑治療不謹 仍著令 後宮有孕 得於關內待産 自此始

18 『육전조례』 권6, 예전, 산실청.

권초례를 거행했다. 그리고 출산 후 5개월이 되면 안태례를 거행했다. 목욕례¹⁹는 크게 산모와 아기를 씻는 의례와 태를 씻는 의례로 세분할 수 있다. 산자리를 걷는 권초례와 태를 묻는 안태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례의 형태 및 태를 묻는 장소에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서는 『정유년 호산청소일기』를 중심으로 영친왕(그림 4) 아기의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목욕례(沐浴禮)

목욕례는 크게 산모와 아이의 목욕인 세욕(洗浴)과 태(胎)를 씻는 세태(洗胎)로 구분할 수 있다. 목욕은 일관에게 길일을 가려 뽑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동시에 세욕과 세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① 귀인 엄씨 세욕(洗浴)

귀인 엄씨의 목욕은 삼일째 되는 날인 9월 27일 사시(巳時)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진시(辰時)에 “궁인 엄씨가 밤새 기후가 평안하였고 밥을 만 미역국인 화반곽탕(和飯藿湯)을 두 번 드셨습니다.”라고 대령의녀가 호산청에 이야기하면, 호산청에서는 글로 써서 임금께 산모와 아기의 안부를 전한 후 목욕을 한다. 귀인 엄씨가 목욕할 때 필요한 물품은 진애탕수(陳艾湯水)를 담은 유동해(鑰銅海) 하나, 수건으로 쓸 백정포(白正布)와 백저포(白苧布) 각 3척(尺), 목은 속 2편(編)을 종사관이 받들어 들었다.²⁰ 한편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탄일관련 자료인 『大君公主御誕生ノ制』를 보면, 흰말의 꼬리로 만든 체[篩] 하나가 더 들어갔다. 이는 애탕을 여과(濾過)하기 위한 것으로 의녀가 가지고 들어간다.²¹ 목욕 후에는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는다고 하였으나 복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따라서 산모의 목욕물은 속을 꿰민 물이었으며, 목욕을 하고난 후에는 흰 수건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기사 세욕

아기사의 목욕은 생후 삼일째 되는 날로 영친왕은 9월 27일 산모의 목욕이 끝난 후 신시(申時)에 거행되었다. 목욕 전에 아기사 건강상태를 살피고, “아기씨(阿只氏)는 젖을 잘 빨고 대소변도 순조롭고 잠도 잘 주무십니다.”라고 왕께 보고한 다음 목욕을 시킨다.

아기사의 목욕 용품으로 준비한 것은 배꼽이 떨어지면 붙일 운모고(雲母膏) 1종지기와 남면주(藍綿紬) 1척과 아기사 목욕물이다. 목욕물은 오얏·복숭아·매실 뿌리를 다린 물과 호랑이 머리뼈²² 달인 물에 돼지 쓸개즙을 탄 것으로 이를 늦대야에 담아 들인다.²³

목욕을 시킬 때 주의할 점은 아직 피부가 여리고 날씨에도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전신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에 물을 조금씩 적셔가며 닦고 짧게 마무리한다. 몸을 씻길 때에는 매번 담즙을 조금씩 넣어 가면서 씻기되 하루는 상체에서 하체로 내려가면서 씻기고, 다음날은 하체에서 상체를 향해 차례대로 씻는다.²⁴ 이는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위한 목욕법으로 목욕 후에는 면포로 만든 강보에 싸들.

阿只氏洗浴後에는 朝臣中耆壽人의 綿布衣를 取하여 襁褓를 作하나니 此는 阿只의 長壽를 祝할 뿐 아니라 綿布의 澣濯을 經한者 | 니 過煖의 害가 無하고 兼하여 儉約且 護養의 道에 合한故 | 라²⁵

19 목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기사례 중 물을 씻는 의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기사와 산모의 세욕 및 태를 씻는 세태가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욕례에 세욕과 세태를 포함하고자 한다.

20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618.

21 『大君公主御誕生ノ制』,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25.

22 호두골(虎頭骨) : 호랑이의 머리뼈로 통증을 진정시키고 근골(筋骨)을 강하게 하며, 잘 놀라는 증세인 경계(驚悸)를 다스리고 풍한사(風寒邪)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이다.

23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광무원년정유구월이십칠일계축.

24 『임산예지법』, 목욕하는 법.

25 『大君公主御誕生ノ制』

특히 장수한 조신의 면포의로 강보를 만드는 것은 여러 번 세탁을 거친 면포의는 옷감이 얇아져 지나치게 덥지 않을 뿐 아니라 장수한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써 아기도 장수할 것이라는 기원과 기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③ 세태(洗胎)

세태는 아기도 탄생 후 삼일 또는 칠일째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속중 탄생 때로부터 삼일째 되는 날에 태를 씻었다고 한다.²⁶ 그러나 영친왕의 경우에는 일칠일째 되는 날에 세태를 거행했다. 세태에 필요한 물품은 뚜껑을 갖춘 도두모(陶豆毛) 2좌, 백자로 만든 태내항(胎內缸) 1좌, 백자로 만든 태외항(胎外缸) 1좌, 도소라(陶所羅) 1좌, 배옹(排瓮) 1좌, 표자(瓢子) 1개, 향온주(香醞酒) 1병, 남주(藍紬) 1척, 유지(油紙) 1장, 감당(甘糖) 1근이며 의녀가 들인다. 『大君公主御誕生ノ制』에 수록된 세태의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 탄생 후 태는 즉시 백자 항아리에 넣어 산실 내에 미리 정해 놓은 곳에 두었다가 세태할 때가 되면 도제조 이하가 흑단령을 입고 산실 뒤뜰에 차례로 선다. 의녀가 태항아리를 받들어 나오면 도소라에 옮겨 담고 미리 받아 놓은 월덕(月德)방향의 물에 백면을 씻은 다음 향온주(香醞酒)로 다시 씻는다. 먼저 옛날 동전 한 개를 글자 면이 흰 항아리 바닥 중앙에 들어가게 하고, 씻은 태를 넣은 후에 기름종이와 납색의 명주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홍영자로 묶어서 봉한다. 자내에서 봉표하여 내보내면 삼제조와 의관이 같이 앉아서 먼저 항아리 바닥에 백면(白綿)을 깔 후에 태항아리를 넣고 다시 백면으로 항아리 사이의 간격을 단단하게 하고 항아리 입구와 가지런하게 초주지로 백면 위를 덮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감당(甘糖)으로 둥근 조각을 만드는데 항아리 입구보다 한 손가락 쯤 여유있게 만든다. 불에 쪄서 부드럽게 되면 항아리 입구에 덮고 뚜껑을 그 위에 덮어 잘 붙인다. 다음 홍영자로 항아리의 네 귀와 개정(蓋丁)의 네 구멍을 관통하여 묶어서 봉하고 삼제조와 의관이 서명하고 다시 홍패를 매달아 패의 앞면에 '모년모월모시중궁전탄생아기씨태'라고 쓰고, 뒷면에는 삼제조 및 의관의 성명을 쓴 후 도두모(陶豆毛) 안에 넣는다. 상모전(上毛塵)을 깔고 덮개를 덮은 다음 의녀가 받들어 다시 들인다. 예정된 길 방향에 두었다가 태봉을 택하여 매장한다.²⁷

영친왕의 경우에는 호산관인 주사가 흑단령을 입고 원역을 거느리고 들어와 속용재 뒤뜰에 나아가서 세태를 하는데 물을 길어오는 방향은 '월덕의 병(丙) 방향'이라고 하였다. 또 홍목패의 앞면에는 "광무원년구월이십오일 궁인엄씨순생남아기씨태"라고 쓰고 뒷면에는 차지내관과 호산의관의 성명을 열서하였다.²⁸

(2) 권초례(捲草禮)

권초례는 산실에 매달았던 새끼줄 혹은 산자리를 걷는 의례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기복을 기원하며 권초제를 지낸다. 조선전기에는 출산 당일에 삭으로 끈 새끼줄을 산실의 문 위에 걸어 놓고 사흘 간 소격서(昭格署)에서 초제를 드렸다. 소격서에는 여자모습을 한 칠성(七星)과 남자모습을 한 옥황상제(玉皇上帝), 태상노군(太上老君), 보화천존(普化天尊), 재동제군(梓潼帝君) 등이 있었고 그 외에 도교신을 모신 수많은 제단에서 출생아의 만복을 빌었다. 이때 남자아이는 복두(幘頭), 포(袍), 오화(烏靴), 금대(金帶)를, 여자아이는 채(釵), 잠(簪), 배자(背子), 혜리(鞋履) 등의 물건을 노군 앞에 올리고 헌관이 고삭(藁索)을 말아 칠함에 담고 홍보(紅袱)로 짰 다음 내자시정이 창고 안에 받들어 들인다.²⁹ 권초제를 지낸 후에는 산실 문 위에 걸어 두었던 새끼줄을 걷어서 포대에 넣고 이를 다시 칠함에 넣어 남자 아기는 내자시에 여자아기는 내섭시에 보관한다.³⁰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소격서가 혁파되자 권초례의 형식이 바뀌었다. 먼저 산실 문 앞에 걸어두던 새끼줄이 없어지고 대신 산자리를 거두어 매달 곳에 3촌짜리 못 3개를 박고 붉은색 끈을 매달아 놓았다가

26 「춘추일기」, 세태.

27 「大君公主御誕生ノ制」, 洗胎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25.

28 「丁酉年護産廳小日記」, 光武元年丁酉九月二十七日癸丑晴吹四風辰時.

29 「林下筆記」, 捲草.

30 신명호(2002),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고문서연구 21, 156-176쪽.

해산 당일에 걷은 산자리를 내다가 붉은 실로 묶어서 문 위에 달아 놓는다. 산자리는 칠일째 거두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소격서 앞에서 지내던 초제는 없어지고 대신 장수를 상징하는 명백미(命白米), 명정은(命正銀), 명황사(命黃絲), 명주(命紬) 등을 놓고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하는 것으로 권초제를 대신했다.³¹ 이에 『大君公主御誕生ノ制』에서는 산자리를 거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현초(懸草)'로 기록하였다. 현초는 산실 내에 깔았던 고석(藁席)을 문미(門楣)에 매달아 순산하였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가의 금줄과 같은 의미였다. 다만 사가의 금줄은 왼쪽으로 끈 고석에 고(藁)와 목탄(木炭)과 고초(苦椒-여자를 생산했을 때에는 고초는 제거함), 소나무 가지(松枝)를 끼워 외문미에 가로로 걸고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줄이라고 칭한 반면 왕가에서는 궁금(宮禁)이 엄격하여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문미에 고석만 매달아 순산하였음을 표시하였다.³²

영친왕을 낳을 때 기록인 『정유년 호산청소일기』를 중심으로 권초 제물을 비롯해 권초에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捲草諸物〉

- 命正銀 八十兩 : 명정은 80냥
- 命絹 十匹 : 명견 10필
- 命紬黃絲 十斤 : 명주황사 10근
- 命白米 一百斗 分十倍 : 명백미 100두를 10 푸대에 나눔.

〈排設所用〉

- 塗朱馬木 二坐 : 주칠한 마목 2
- 塗朱大板子 五立 : 주칠한 대판자 5
- 香案 一坐 : 향안 1
- 高足床 畫邊油紙 六張 : 고족상에 깔 가장자리에 그림이 있는 기름종이 6장
- 四兩黃燭 一雙 : 4냥짜리 황촉 1쌍
- 鍮大燭臺 一雙 : 놋쇠로 만든 큰 촛대 1쌍
- 鍮香爐 一坐 : 놋쇠로 만든 향로 1
- 鍮香盒 一坐 : 놋쇠로 만든 향함 1
- 鍮火爐 一坐 : 놋쇠로 만든 화로 1
- 鍮大也 一坐 : 놋쇠로 만든 대야 1
- 火箸 一部 : 부젓가락 1
- 沈香捲草入盛全漆函 一座 : 침향권초를 담을 전칠함 1
- 白紋九張 付地衣 一浮 : 백문 아홉장을 붙인 지의 1
- 拜席二立 : 절하는 곳에 까는 자리 2

〈捲草封裹所用〉: 권초를 봉하고 싸는데 필요한 물건

- 捲草初裹次白苧帛 : 권초를 처음 싸기 위한 백저포
- 再裹次紅紬長三尺二幅袱 : 두 번째 싸기 위한 홍주, 길이는 3척이며 2폭으로 된 보자기
- 函外裹次紅紬六幅袱 : 함 바깥을 싸기 위한 홍보, 6폭으로 된 보자기

31 『숙빈최씨 호산청일기』, 갑술구월십구일, 捲草祭時 先鋪地衣 次置馬木於左右而加排大板子四葉 其上排命米十斗式布帛十包列置 而右置命絲十斤 左置命紬十疋 中置命銀八十兩 設香爐香盒左右燭臺 安肉燭 鋪拜席於階下.

김지영(2012). 조선시대 왕실 '권초례'의 변화. 민속학연구 30. 141-161쪽.

김지영(2010).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문화에 관한 몇가지 실마리들. 장서각 23. 3-34쪽.

32 『大君公主御誕生ノ制』, 懸草.

33 『정유년호산청소일기』, 光武元年丁酉十月初一日丁巳晴 即日七日也辰時

- 封裹次紅鄉絲三甲所 : 봉하고 싸기 위한 홍향사 3겹바
- 負函次紅綿絲三甲所 : 함을 짊어지기 위한 홍향사 3겹바
- 封裹後覆函次紅紬五幅袱 : 봉하고 싼 다음에 함을 덮기 위한 홍주 5폭으로 된 보자기
- 紅木牌 : 홍칠을 한 목패
- 葉紙硯筆墨 : 엽지와 벼루, 붓, 먹

『정유년 호산청소일기』에는 제물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최귀인방 호산청일기』를 통해 권초제물을 어떻게 배열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의를 깔고 다음으로 마목을 좌우에 둔다. 대판자를 배설하고 그 위에 명미 십두씩을 포대에 담아 열 포를 늘어놓고 오른쪽에는 명사 열 근, 왼쪽에는 명주 열 필, 가운데에는 명은 팔십 냥을 둔다. 향로와 향합을 설치하고 좌우의 축대에는 쇠기름으로 만든 육촉(肉燭)을 놓는다. 절하는 자리를 계단 아래에 깔고 호산의관이 자리로 나아가 재배한다. 그대로 현초(懸草) 앞에 이르러 하인 한 명이 함을 받들고 따른다. 의관이 친히 스스로 권초를 하여 함 안에 두면 하인이 짊어진 함을 상위에 둔다. 의관이 향안 앞에 이르러 분향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자리로 나아가 재배례를 행한다. 다음에 차지내관과 의관이 같이 앉아 권초를 저포대(苧布袋)에 담고 작은 홍보(紅袱)로 싸고 봉한 바깥에 '의관 모'라고 서명하고 함안에 넣는다. 함 바깥은 홍색으로 물들인 줄바로 묶어 봉한다. 봉한 바깥에 차지내관이 또 서명한다. 홍목패를 단다.³⁴

권초제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목숨 명자가 붙은 옷감, 실, 쌀 등을 차려놓고 분향재배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권초제가 끝나면 정각에 권초관이 자리에 나아가 재배하고 현초 앞으로 가서 초를 말아 함안에 두고, 향안 앞에 나아가 분향례를 행하고 계단 아래 자리로 가서 재배한다. 다음에 도제조와 같이 앉아 권초를 저포대에 담고 작은 홍색 보자기로 싸서 봉하고 서명한다. 이것을 차비관이 받들고 나가 여에 신고 가서 권초각에 봉안한다. 햇불이 앞서 나가고 다음으로 세장이 좌우에 있으며 채여 뒤에 고취가 따르고 그 뒤를 권초관과 차비관이 따르는 것으로 권초례를 마친다.

(3) 안태례

안태례는 왕자가 출생하면 태(胎)를 보관할 장소를 선정하고 태실을 만들어 안장하는 의례이다.³⁵ 조선왕실에서는 아이의 현우(賢愚)와 성쇠(盛衰)가 태와 관련이 있다³⁶고 생각하고 이를 신중하고 정결하게 다루고자



그림 5. 『元子阿只氏安胎贈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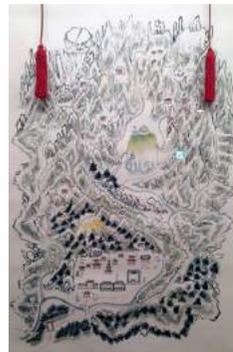


그림 6. 손조 태봉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34 『최숙의방 호산청일기』, 同日辰時捲草祭侍 [...]

35 김상환(2007). 조선왕실의 안태등록과 출기 : 국역 안태등록.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15쪽.

36 『문중실록』 3권. 문중 즉위년 9월 8일(기유).

했다. 이에 <그림 5>와 같이 안태등록을 통해 명산(名山)과 길지(吉地)를 골라 땅에 묻는 안태가 조선왕조의 오랜 관행이자 전통이었다. <그림 6>은 순조의 안태를 속리산에 묻고 그린 태봉도이다.

그러나 안태과정에서 과도하게 동원되는 인력과 물력 등 절차상의 문제나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지적되면서 영·정 조대에 이르러 안태례는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원자와 원손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안태는 궁궐 안에 조성하도록 했다.³⁷

영친왕의 안태 역시 창덕궁 후원에 안치했다. 안태 당일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능허정의 모습, 영친왕의 태가 묻혀 있는 창덕궁 후원의 정자.

진발할 때 안태중사(安胎中使) 김규복과 종사관(從事官) 최석두, 청도 경무관원(警務官員) 두 명, 주시관(奏時官) 한 명, 상토관(相土官) 한 명, 별감 한 명, 간역서원 한 명, 태를 모시고 가는 서원 한 명, 무감 여섯 명이 태 항아리를 함에 안치하여 누자(樓子)에 담는다. 담지군 네 명, 망거(望炬) 여섯 자루, 햇불을 받들 군인 여섯 명, 누자를 받들 군인 네 명, 부축군 두 명, 내취 여섯 명이 예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이번에는 진열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 출발하여 가는 길은 석류문에서 선양문 새로 만든 목책문, 은행문 앞길, 정동, 명례궁 앞길, 사동, 홍도현, 혜정교, 파자전, 석교, 돈화문앞길, 금호문, 진선문, 숙장문, 건양문, 동룡문, 경화문, 집례문, 송지문, 명광문, 청양문, 금마문, 인경당 앞길, 능허정에 이르러 능허정 남쪽 산기슭 자좌(子坐)에 태를 보관한다.³⁸

조선의 안태는 출생 후 다섯 달 만에 태를 묻는 장태법이었으나 영친왕은 칠일째 되는 날 오시에 출발해서 능허정 남쪽 산기슭에 묻고, 당일날 호산관을 비롯하여 호산정에 소속된 고원, 의녀, 사령, 군사 등에게 국과 밥을 분배하고, 삼칠일이 되는 10월 15일에는 국과 밥, 쌀과 미역을 의관청 이하 호산관원, 소아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외에도 장태 후 별단을 들여 상격을 내림으로써 안태례를 마무리했다.<그림 7>

(4) 초도례

정국소생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으면 '원자'라 하고 다음 아들은 '대군'이라고 하며 딸을 낳으면 '공주'라 한다. 원자나 대군이 탄생하면 대궐 안에서 풍류를 하며, 공주가 탄생하면 풍류는 없다.³⁹ 또 왕실에서는 남자 아기가 탄생하면 출산 당일에는 출산반포를 하고, 삼일째 되는 날에 고사묘(告社廟)를 지내고, 진하(陳賀)·반교(頒敎)·사면(赦免)·경과(慶科) 등을 시행함으로써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

물론 원자가 백일을 맞이해도 승지, 각신, 약원의 세 제조를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축하했으며,⁴⁰ 돌날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성숙초를 베풀었다.⁴¹ 성숙초는 여러 대신들을 불러 원자를 보도록 하고 서리, 하례, 군중, 거리의 백성들에게까지 떡을 내리고 특별히 조관과 사서인으로서 유배 이하에 해당하는 죄인들의 죄명을 씻어주는 것이다.⁴² 이처럼 원자의 탄생은 그자체로서 경축할 일이었으며 온 나라의 경사였다. 정조는 1783년 문효세자의 돌을 맞이하여 온 백성과 함께 기쁨을 기념하며 함께 즐거워하고자 했다. 돌을 맞이한 세자를 보고 즐거워하는 정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날은 곧 원자의 초도(初度) 양신(良辰)이다. 오직 하늘과 조종들께서 말없이 돌보고 은연(隱然)중 살펴주어 원자가

37 윤진영(2013). 조선후기 안태의례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 학보 67. 418-422쪽.

38 『정유년호산청소일기』, 藏胎次進發時 同日午時.

39 『궁중예법풍속과 전하는 말삼』, 단국대학교도서관 소장.

40 『조선왕조실록』 정조 6년 12월 18일(경진).

41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1월 4일(을유).

42 『국조보감』, 제73권, 정조조 5, 15년 6월.

채색의 옷을 입고 장난감을 만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 자전과 자궁의 기쁨이니 어찌 유독 나 한 사람만의 경사이겠는가? 우리 동방 억만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하며 기뻐해야 할 일이다. 호시(弧矢)를 설치하는 것은 옛적부터 하던 것으로써 남자는 온 사방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의의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⁴³

또 1791년(정조 15) 6월 18일은 자전의 탄신일이자 원자(훗날 순조)의 돌로 이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왕세자는 사유화양건을 쓰고 자주색 비단 겹저고리를 입고 앉은 모습이 의젓했으며, 돌잡이의 모습도 확인된다. 먼저 채색 실을 잡고 다음으로는 화살과 악기를 집었다⁴⁴고 하였으며, 이후 종실, 대신, 제신과 대궐에서 수직하는 낭관, 장수, 호위군관 및 서리, 하인, 군졸과 백성들에게까지 떡을 내렸다. 세자의 돌은 온 백성과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왕실의 초도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이는 아무리 왕실이라 할지라도 귀한 집안의 자식일수로 해코지를 두려워했던 조선의 풍속⁴⁵이 왕실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2. 친왕자가의례

아기시례 이후에 거행되는 어린이 의례에 해당하는 것은 관례 전에 거행된 책례와 입학례이다. 소현세자

표 3. 책례, 입학례, 관례와의 선후관계

해당자	탄생	책례	입학례	관례
昭顯世子 (1612~1645)	1612년 1월 4일	14세 (1625년 1월 27일)	14세 (1625년 10월 12일)	14세 (1625년 1월 21일)
孝宗 (1619~1659)	1619년 5월 22일	27세 (1645년 9월 27일)	27세 (1645년 10월)	
顯宗 (1641~1674)	1641년 2월 4일	11세 (1651년 8월 28일)	12세 (1652년 4월 12일)	11세 (1651년 8월 9일)
肅宗 (1661~1720)	1661년 8월 15일	7세 (1667년 1월 22일)	9세 (1669년 8월 25일)	10세 (1670년 3월 9일)
景宗 (1688~1724)	1688년 10월 28일	3세 (1690년 6월 16일)	8세 (1695년 3월 12일)	8세 (1695년 4월 18일)
孝享世子 (1719~1728)	1719년 2월 15일	7세 (1725년 3월 20일)	9세 (1727년 3월 19일)	9세 (1727년 9월 9일)
莊獻世子 (1735~1762)	1735년 1월 21일	2세 (1736년 3월 15일)	8세 (1742년 3월 26일)	9세 (1743년 3월 17일)
文孝世子 (1782~1786)	1782년 9월 7일	3세 (1784년 8월 2일)		
純祖 (1790~1834)	1790년 6월 18일	11세 (1800년 2월 2일-오시)		11세 (1800년 2월 2일-묘시)
孝明世子 (1809~1830)	1809년 8월 9일	4세 (7월 6일)	9세 (3월 11일)	11세 (3월 20일)
純宗 (1874~1926)	1874년 2월 8일	2세 (1875년 2월 18일)	9세 (1882년 1월 10일)	9세 (1882년 1월 20일)
영친왕 (1897~1970)	1897년 9월 25일 양력 : 1897년 10월 20일 ⁴⁶	4세 (1900년 7월 23일) 양력 : 1900년 8월 17일	11세 (1906년 10월 22일) 양력 : 1906년 12월 7일	12세 (1907년 1월 27일) 양력 : 1907년 3월 11일

43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9월 7일(을미).

44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6월 18일(신유).

45 고부자(2007), 우리나라 유아의례와 복식의 민속연구, 비교민속학 34집, 264쪽.

46 대한제국기에는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탄생일을 양력으로 기록하고 있다.

와 현종은 입학례를 관례 이후에 거행했으며, 책례와 관례, 혹은 입학례와 관례를 같은 날 하는 경우에는 관례를 먼저하고 책례나 입학례를 거행했다. 조선 후기 왕세자 의례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⁴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숙종이후에는 모두 관례 전에 책례와 입학례를 거행하였으며, 황자인 영친왕 역시 관례 전에 책봉을 받고 입학을 했으므로 책례와 입학례는 모두 어린이의례에 해당한다.

(1) 책례

『은대조례』에는 책례를 정명(定名)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왕세자와 왕세손의 책봉을 뜻한다. 책례를 거행하는 임금의 명에 따라 책례를 행하는데, 이에 앞서 미리 길일을 잡아 이름을 정한다. 예조의 계목(啓目)에 따라 참석해야 하는 관원을 꺾 안으로 불러들여 의논하게 한 후 정명단자는 대신이 직접 써서 승전색을 통해 대내로 들여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 책례를 행하는 날에는 대내에서 내준 교명(敎命), 죽책(竹冊), 옥인(玉印)을 받은 뒤 사례하는 전문(箋文)을 올리고 조알례(朝謁禮)를 행한다. 이때 왕세자의 나이가 어리면 임금에게 여쭙어 임시로 정지하기도 한다. 책례를 행한 다음 날 왕세자는 대청에 앉아서 하례를 받고 과거의 시행여부는 임금에게 묻는다.⁴⁸ 영친왕 이은은 1900년(고종 37) 7월 23일⁴⁹ 중화전에서 영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당시 영친왕이 책봉을 받는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이 황태자와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친림하여 영친왕(英親王)을 책배(冊拜)하였다. 이때 입시한 비서원 경 윤덕영(尹德榮), 승 윤찬(尹)·권익상(權益相)·이종완(李種完)·이경하(李敬夏)·이의로(李義魯), 낭 안필호(安弼鎬)·이의국(李義國)·정규년(丁奎年)·이상설(李相高), 규장각 직각 서만순(徐晩淳), 대제 민병성(閔丙星), 홍문관 시독 심주택(沈周澤), 시강원 부첨사 조중목(趙重穆), 시종관 이용구(李龍九)가 차례로 시립하였다.

때가 되자, 좌장례(左掌禮)가 무릎 꿇고 외판을 주청하니, 상이 통천관(通天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여를 타고 중화전 강여소(降輿所)에 이르렀다. 윤덕영이 무릎 꿇고 규를 올리니, 상이 규를 잡고 어좌에 올랐다. 영친왕의 책배례를 행하기를 모두 의식대로 하였다. 영왕(英王)이 이에 못 관원들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상이 황태자와 대내로 돌아갔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⁵⁰

이때 강(岡)은 의왕으로 봉하고 은(垠)은 영왕으로 봉하면서 금책, 금인과 함께 칠장복을 내려주었다.⁵¹ 또 책봉할 때 종묘와 영녕전, 경효전에 선고사유제를 설행하되 제문은 친히 지어 내렸으며 책봉한 다음날에 황태자가 치사를 올리고 백관이 표문을 올려 진하하는 예식도 마련하였다.⁵² 이후 1907년(순종 즉위년) 8월 7일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한다는 조서가 내려졌고,⁵³ 1907년 9월 7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⁵⁴

(2) 입학례

입학례는 세자나 세손이 성균관에 입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대조례』에 수록된 입학의 절차를 보면 먼저 의례를 거행하기 앞서 길일을 잡아 묘알례를 행하는데, 대전이 종묘에 배알하고 동궁이 따라간다. 스승과의 상견례는 입학하기 전에 하교하기를 기다려 시강원에서 날짜를 잡아 거행한다. 입학례 당일 왕세자가 먼저 문묘에 작헌례를 행한다. 왕세자가 입학례를 거행하기 위해 궁을 나갈 때에는 광화문의 동쪽 협문을 이용하고 창덕궁에서 나갈 때에는 돈화문의 동쪽 협문이나 흥화문의 동쪽 협문을 이용한다. 복장은 공정책과 곤룡포로 마련하며 머리 모양은 쌍동계로 한다. 작헌례를 행할 때와 입학례를 행할 때에는 유복(儒服)으로 마련한다.

47 왕세자의 탄생, 책례, 입학례, 관례 등의 거행기록은 『선원계보기략』의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 날짜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48 『銀臺條例』, 禮考, 冊禮, 定名.

49 양력으로 1900년 8월 7일이다.

50 『승정원일기』 고종 37년 7월 23일.

51 『승정원일기』 고종 37년 7월 23일.

52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8월 7일(양력)

53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8월 7일

54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9월 7일.

입학례를 행한 다음 날 왕세자는 대청에 앉아 하례를 받고 임금에게 여주어 과거를 시행하는데 이는 책례 때와 같다⁵⁵고 하였다.

영친왕의 경우에도 1901년(고종 38) 신하들이 말하기를, “황자 영친왕은 올해 나이가 5세이지만 모든 점에 서 숙성하여 이미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었으므로 지금이 규례를 갖추어 입학할 때는 아니지만 문자를 익히고 필묵을 적서 글씨를 쓰게 하고 간간이 또 가언과 선행을 가르쳐서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기르도록 한다면 훗날 반드시 황실을 보호하고 큰 계책을 보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⁵⁶ 실제 영왕의 입학례는 1905년 2월 2일까지도 거행되지 않았다. 이에 조병세가 영왕이 입학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근래 나라에 일이 많아 겨를이 없었다고 하며 또 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영친왕을 위한 입학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06년(병오년) 10월 22일 영친왕의 입학시 의복받기가 남아 있어 입학례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Ⅲ. 황실어린이 발기자료의 실태

『大君公主御誕生ノ制』를 보면 조선이전에는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조선에 들어와서도 현종(顯宗) 이후 예(例)가 있지만 상세하지 못하다고 했다. 다만 근대 고종의 예가 상세하므로 이를 근거로 『육전조례』, 『춘추일기』, 『계제사일기』, 『실록』, 『임하필기』, 『산실일기』 등을 참고하여 탄일의 제를 기술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왕실 탄일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아를 받는 것과 탯줄을 끊는 것이 의녀나 혹은 미리 정해진 아기의 유모가 거행하며 실내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⁵⁷

다행히 장서각에는 어린이 의복받기 자료와 호산청일기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왕실어린이 의례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⁵⁸ 장서각에는 총 24건의 왕실어린이 복식받기가 남아 있다. 특히 영친왕과 관련된 자료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중 현종 발기자료 1건 및 덕혜옹주 관련 발기자료 2건(왕자 구도 같이 있음), 의친왕궁 아기 의복 받기자료 1건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 복식받기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왕실어린이 의복받기

번호	시기	대상	의례	제 목	문서번호
1	1827년	현종	삼일~	명희칠월 원손아기시 삼일부터 삼칠일까지 험험야보내오시니	【1135】
2	1897년	영친왕	삼칠일	명유십월십오일 황자아기시 삼칠일 의복하온볼기	【1021】
3	1898년	영친왕	백일	무술스월 아기시 백일 의복볼기	【1043】
4	1898년	영친왕	돌	무술구월 아기시 돌싱신 의복볼기	【1044】
5	1899년	영친왕	정조	기희정도 아기시 의복볼기	【1031】
6	1899년	영친왕	생신	기희구월이십오일 아기시 싱신 의복볼기	【1032】
7	1900년	영친왕	봉작시	경즈칠월 친왕즈가순빈즈가 봉작시 의복볼기	【1079】
8	1904년	영친왕	정조	갑진정조 두분마마 의덕 아기시 의복볼기	【1077】
9	1904년	영친왕	탄일	갑진칠월 역만세탄일 두분마마 의덕 영친왕 의복볼기	【1023】

55 『은대조례』, 예고, 입학례

56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8월 28일(양력 10월 10일).

57 『大君公主御誕生ノ制』, 대군공주탄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625.

58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에 해당하는 의례를 관례 전으로 정의하고, 삼일에서부터 일칠일, 삼칠일, 백일, 이백일, 돌을 비롯한 생신과 정조, 사월초파일, 단오, 동지 등의 명절, 봉작과 입학 등 관례 전에 마련한 황실어린이 복식받기로 한정하였다.

번호	시기	대상	의례	제 목	문서번호
10	1904년	영친왕	생신	갑진구월이십오일 영친왕 생신 의복불기	【1030】
11	1905년	영친왕	정조	을스정조 두분마마 의덕 영친왕 의복불기	【1025】
12	1905년	영친왕	사월초팔일	을스스월초팔일 두분마마의덕 영친왕 의복불기	【1076】
13	1905년	영친왕	단오	을스단오 두분마마 의덕 아가시 의복불기	【1022】
14	1905년	영친왕	탄일	을스칠월 역만세탄일 두분마마영친왕 의덕불기	【969】
15	1905년	영친왕	생신	을스구월이십오일 영친왕 생신 의복불기	【1069】
16	1906년	영친왕	탄일	병오구월이십오일 천백세영친왕탄일 의덕불기	【1009】
17	1906년	영친왕	입학시	병오십일이십이일 영친왕 입학시 의복불기	【1068】
18	1906년	영친왕	동지	병오동지 영친왕 의복불기	【1075】
19	1907년	영친왕	사월초팔일	병미사월초팔일 의덕불기	【981】
20	1907년	영친왕	사월초팔일	병미스월초팔일 두분마마영친왕 의덕불기	【982】
21	1907년	영친왕	단오	병미단오 두분마마영친왕 의덕불기	【980】
22	1908년	의친왕궁 아기	단오	무신오월 의친왕궁 아기 의복불기	【1063】
23	1916년	덕혜옹주 왕자	탄일	병진스월 아가시 의복 (옹주아가시생신, 왕자아가시사월팔일)	【1024】
24	1916년	덕혜옹주	생신	병진스월 옹주아가시	【1154】

1. 아가시 복식발기

‘아가시’는 책봉을 받기 전까지의 호칭이다. 현전하는 아가시와 관련된 발기자료는 삼일, 일칠일, 삼칠일, 백일, 돌 등의 자료가 남아 있다.

(1) 삼일에서 삼칠일까지의 복식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아가시 발기 자료 중 삼칠일까지의 복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종과 영친왕의 발기자료이다. 1827년(정해)에 작성한 <명히칠월 원손아가시 삼일부터 삼칠일까지 혈하야보내오시니>의 원손아가시는 현종(1827~1849)이다. <그림 8>

현종은 1827년 7월 18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태어났으며, 삼일까지는 강보에 싸여 있었다. 7월 20일 삼일째 되는 날 목욕을 하고 면포겹저고리와 면포누비두롱이, 사(紗)로 만든 굴레를 썼다. 이후 이레째가 되는 7월 24일에는 권초례를 하고 산실청을 철거하였으며, 면포가 아닌 화방주를 다듬이질하여 만든 저고리를 입고, 면포로 만든 바지를 입었다. 천의와 요, 베개를 비롯해 누비버선인 오목이 버선을 신었다. 삼칠일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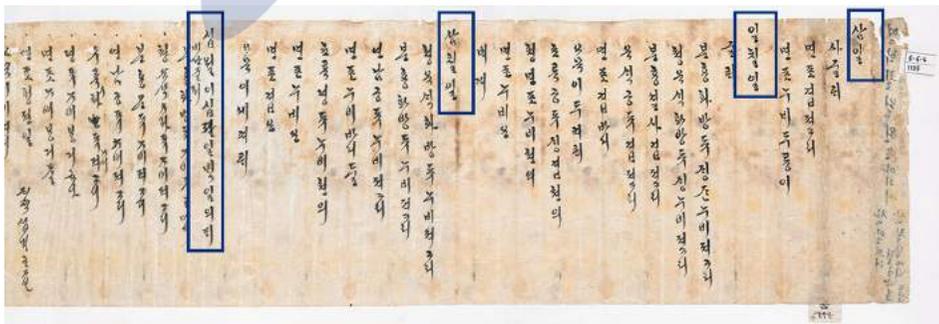


그림 8. <명히칠월 원손아가시 삼일부터 삼칠일까지 혈하야보내오시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표 5. 명히칠월원손아기시 삼일부터 삼칠일까지 헐야보내오시니-[1135]

시기	복식	색	직물	구성	품명	비고
삼일	사굴릭		사		굴레	
	면포겹저고리		면포	겹	저고리	
	면포누비두롱이		면포	누비	두롱이	
일칠일	굴릭				굴레	
	분홍화방듀징준누비저고리	분홍	화방주	누비	저고리	
	청옥식화방듀징누비저고리	청옥색	화방주	쟁누비	저고리	
	분홍설사겹저고리	분홍	설사	겹	저고리	
	면포겹바디		면포	겹	바지	
	오목이두켜릭				버선	2켢레
	초록궁듀징겹천의	초록	궁주	쟁겹	천의	
	청면포누비천의	청	면포	누비	천의	
	면포누비요		면포	누비	요	
	벼개				벼개	
	청옥식화방듀누비저고리	청옥색	화방주	누비	저고리	
삼칠일	분홍화방듀누비저고리	분홍	화방주	누비	저고리	
	연남궁듀누비저고리	연남	궁주	누비	저고리	
	면포누비바디 둘		면포	누비	바지	
	면포누비요		면포	누비	요	
	면포겹요		면포	누비	요	
	오목이 세켜릭			겹	버선	3켢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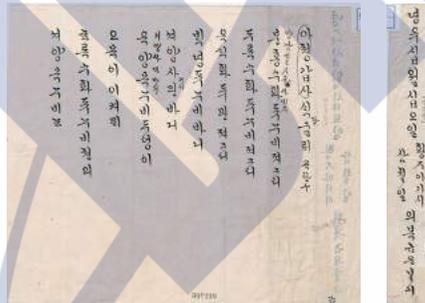


그림 9. <정유십월십오일황자이기시삼칠일의복후은본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여전히 누비저고리와 누비바지를 입었으며 이불은 없고 대신 요가 둘이다. 여기서 ‘헐야보내오시니’는 일 따위가 힘이 들지 않고 수월하며, 대수롭지 않고 만만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겸사의 의미이지 결코 손쉽게 만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쟁을 치고 누비를 하는 일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옷은 그리 오래 입은 옷은 아니다. 아이가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삼일, 일칠일, 삼칠일 등의 시간이 지나면 입지 못한다. 한편 ‘헐야보내오시니’는 어디에서 보냈다는 것인지 수발(受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현종의 외가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이다. <표 5>

또 다른 발기 자료 중 영친왕의 삼칠일복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림 9> 영친왕은 1897년 9월 25일 고종과 귀인 엄씨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번째 아들로 경운궁 숙옹재에서 태어났다. 본 발기에서 황자이기시의 삼칠일복의 날짜가 10월 15일로 적힌 것 역시 영친왕의 음력생일로부터 삼칠일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발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친왕의 호칭은 1900년 봉작시 ‘친왕자기’로 불렸으며 그 이전에는 아기시로 불렸다. 이후

표 6. 명유십월십오일황조아기시삼칠일의복후온복과-【1021】

복식명	색	직물	구성	품목	비고
아침갑사식단굴릭 옥판구	아침	갑사		색단굴레	옥판구
양남별문속사빅즈	양남	별문속사		배자	
분홍수화두누비저고리	분홍	수화주	누비	저고리	
두록수화두누비저고리	두록	수화주	누비	저고리	
빅명두누비바디	백	정주	누비	바지	
서양사땀바디		서양사	민	바지	
옥양목누비두령이		옥양목	누비	두령이	
오목이 이켜릭	초록			오목이	2 켄레
초록수화두누비천의		수화주	누비	천의	
서양목누비뇨		서양목	누비	요	

표 7. 현종과 영친왕의 삼칠일복 비교

현종	복 식 명		비고
	영친왕		
	아침갑사식단굴릭 옥판구		현종은 일칠일에 굴레 장만
	양남별문속사빅즈		현종은 삼칠일까지 배자 없음
청옥식화방두누비저고리	분홍수화두누비저고리		
분홍화방두누비저고리	두록수화두누비저고리		
연남궁두누비저고리	빅명두누비바디		
면포누비바디 둘	서양사땀바디		
면포누비뇨	옥양목누비두령이		옥양목, 서양사 등의 새로운 직물이 보임
면포겹요	오목이 이켜릭		
오목이 세켜릭	초록수화두누비천의		
	서양목누비뇨		현종은 이불과 요에는 면포만 있음

기록에서는 영친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년에 태어난 영친왕의 삼칠일복 복식발기에는 ‘황자아기 시’⁵⁹로 호칭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한편 현종 발기에서는 삼일, 일칠일, 삼칠일로 시기에 따라 세분해 놓고 있는 반면 영친왕의 발기에서는 삼칠일에 두령이를 비롯해 굴레 및 배자까지 모두 삼칠일복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 복식발기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현종과 영친왕의 삼칠일 복식을 비교해보면⁶⁰ 70년의 시차를 통해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현종은 이불과 요에만 면포를 사용한 반면 영친왕은 바지와 두령이는 물론 요에도 서양사와 옥양목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 서양직물이 황실복식에 깊숙이 자리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영친왕은 황자로서 그 위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지 옥판을 갖춘 굴레와 배자가 추가되었다.

(2) 백일복식

1827년 정해년 10월 28일은 현종이 탄생한지 백일이 되는 날이다. 백일에 앞서 10월 9일 미리 9종 25건

59 ‘황자아기시’로 호칭하고 있는 것은 1897년 10월 9일(안력) 태극전에 나아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서계를 받았으므로 황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영친왕은 1897년 10월 20일에 태어났으므로 황자아기시라 칭한 것이다.

60 현종의 삼칠일 복식은 사가(士家)인 외가에서 보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가의 복식과 왕실의 복식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례복이 아닌 아가시 복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가와 왕실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의 복식을 제작하였다. <그림 8> 원자의 백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 백성과 함께 경축하고자 했다. 현종의 아버지인 효문제자의 백일에도 순조는 시임대신, 원임대신과 각신을 대조전에서 소견하였다. 이때 영부사 이시수는 아기가 벌써 밝은 쪽을 바라보면서 물건이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른 것 같지만 이제부터는 검박한 것을 숭상하게 하여 덕성을 함양시킴으로써 올바르게 길러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궁에서 바야흐로 백일 안에 계신데도 뛰어나게 영특하고 자표(姿表)가 숙성하니 이는 진실로 우리 동방의 역만년토록 이어갈 끝없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기뻐서 춤추고 싶은 정성을 실로 형용하여 양달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이미 밝은 쪽을 향하여 물건을 보면서 눈동자를 움직이니 삼가 생각건대 지사(知思)가 이미 점점 성취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질(睿質)이 이미 이러하니 뒷날의 예덕(睿德)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이지지(生而知之)하는 성인(聖人)이라 할지라도 보도(輔導)하고 훈양(薰養)하는 공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거처, 동작과 의복, 음식에 있어 사치한 것은 멀리하여 제거하고 검박한 것을 가까이 하여 숭상하게 한다면 덕성(德性)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복록(福祿)을 누리는 방도도 됩니다. 신의 말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만 올바르게 배양하는 일은 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의(聖意)에 깊이 유념하소서⁶¹

백일부터 이미 검박함을 통해 덕성을 함양시키고 복록을 누리하고자 했던 것이 조선왕실의 교육방침이었다. 그렇다면 복식에서는 검약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현종과 영친왕⁶²의 백일복을 비교해보면 현종의 복식에는 굴레, 두루마기 1, 저고리 4, 바지 3, 행전 1, 버선 3과 이불, 요, 갓이 들어있다. 현종발기에서 보면 삼일, 일칠일에 있었던 굴레는 백일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백일을 기해 새롭게 등장한 옷이 ‘두루마기’이다. 영친왕의 백일복에는 ‘주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패자와 세트를 이루는 옷인데 비해 현종의 발기에는 가장 상의로 두루마기만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황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복식을 더 많이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일 옷의 특징은 여전히 누비로 된 옷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세탁에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약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바느질 방법이다. 1845년(현종 11) 중희당에서 소대할 때 절용하기를 바라면 검약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옥당 임금수(林肯洙)는 위에서 절약하시니 이보다 더 빠르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전하께서 빈번히 검약을 숭상하는 방도를 염려하시며 근일에는 경연(經筵)에 나오실 때면 무명옷을 입으시므로 항간에서 이 말을 들은 자는 모두 기뻐하고 기리며 서로 경계하여 다시는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가까이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뜨는 것이 영향(影響)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⁶³

또한 현종은 순 무명으로 만든 갓끈을 사용하였는데,⁶⁴ 이 역시 검약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아직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기의 경우 바지와 요를 누비로 만들으로써 세탁에 잘 견디도록 하는 것이 검약의 첫 번째 실천이었다고 판단된다. <표 8>

현종은 백일복식으로 꼭 필요한 옷만을 장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일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두루마기’이다. <발기자료>에서 두루마기의 명칭은 이때 처음 등장하며 이후로는 ‘주의’ 일색이다.

관찬자료에서 ‘주의’가 보이는 것은 영조 승하시 재궁에 채워 넣은 의대 치부 기록에 남선단협수주의(藍扇緞狹袖周衣)를 비롯해 연남궁초협수주의(軟藍宮綯狹袖周衣)가 보이며,⁶⁵ 정조 승하시 재궁에도 역시 보라

61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10월 29일(병진).

62 영친왕의 백일복이라고 기록한 발기자료는 ‘무술수월 아기사 복일 의복불괴’이며, 이는 장서각 왕실자료 【1043】이다. 무술년 사월은 영친왕이 태어날지 이백일이 되는 시점으로 발기자료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63 『현종실록』 12권, 현종 11년 11월 23일(경진).

64 『현종실록』 12권, 현종 11년 11월 23일(경진).

65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 3월 9일(경진).

표 8. 현종과 영친왕의 백일 복식

현종	백일	
	영친왕 백일	비고
비단굴럭	아청년접문사복건 옥판석우황구	굴레와 복건의 차이
	양남별문속사패즈	주의와 패자 세트
	두록갑사동다리준누비주의	
분홍화방두누비두로마기	양남순닌문사패즈	
	분홍광사단주의	두로마기와 주의
청옥식수화두누비저고리	양남갑사준누비비즈	
	초록닌화문사비즈	
분홍문두누비저고리	분홍장원두누비저고리	
연남공두누비저고리	두록장원두동다리누비저고리	
두록수화두누비저고리	두록수화두겹저고리	
명두누비봉디 하나	옥식광사겹저고리	
	옥식장원두땀저고리	
면포누비봉디 둘	빅수화두누비바디	
	빅명두정겹바디	
면포힝전 일 지작십월초구일	옥양목누비바디	
	서양사린바디	
오목이 세켜릭	세더포힝전	
초록명두누비천의 보라니공	오목이 이켜릭	
면포누비요 하나 두자열두치 길	두록수화두누비천의	
누비깃 열 겹듀오 면포오	누비뇨	
9종 25건	10종 21건	

화한단주의를 갈아 입을 하였다.⁶⁶ 그런데 1830년 사대부들 사이에 소매가 넓은 주의를 착용하고 초교를 타는 자가 있다고 하며 요사스러운 의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의가 일반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그러나 이미 현종은 백일복으로 바지저고리 위에 ‘두로마기’를 입었으며, 이때 행전도 처음 보인다. 또 이불에 누비 깃을 달아 세탁을 용이하게 했음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친왕의 주의는 어떻게 생겼을까? 1884년(고종 21) 갑신의제개혁을 하고자 할 때 유생들의 상소를 통해 주의의 형태를 살펴보자. 성균관 유생인 진사 심노정(沈魯正)은 지금 세속에서 말하는 장포나 주의는 옛 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소매가 좁은 옷을 입은 것은 임진왜란 이후 신하들이 관대를 갖추지 못하여 소매가 좁은 용복을 입었으나 일상적인 옷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주의는 승려들의 옷으로 요망하기 때문에 혁파하라는 명이 있었음을 환기시켰다.

지금 세속에서 말하는 장포(長袍)나 주의는 더욱이 옛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조 30년 익종께서 대리하시던 경인년(1830)에 영을 내리시기를, ‘요즘 들으니 사대부들이 흔히 소매가 넓은 주의를 입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인가? 주의는 바로 승려들의 옷으로 요망한 옷이다. 세속에서 비록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숭상한다지만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제도를 고쳐서 이처럼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문장을 표시하고 외관을 존엄하게 하는 도리에

66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6월 29일(경진).

67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4월 17일(을해).

있어 거듭 금지시키어 통렬히 혁파하라.’하셨습니다. 이로써 상고하여 보면 소매가 넓은 주의도 오히려 법복이 아닌데 하물며 소매가 좁은 주의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⁶⁸

여전히 협수주의에 대한 유생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자⁶⁹ 고종은 좁은 소매의 주의를 입도록 한 것은 옛 제도를 참작하여 현재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며 번거로운 것을 없애 간편하게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므로 번거롭게 상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4년(고종 21) 방외 유생 서상숙은 소매 좁은 주의에 대해서 난삼(襴衫)이나 학창의(鶴擎衣)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대로 약간 변통하여 유생과 하례를 구분해줄 것을 청했으나 이 역시 윤택하지 않았다.⁷⁰ 이후 1895년(고종 32) 관리와 백성들의 주의를 모두 검은색으로 하라는 조령에 따라 고시(告示)가 내려졌다.⁷¹

칙임관 및 50결이상 납세인이 무늬있는 비단주의와 담호, 명주 상하 속옷, 금과 은, 옥류식 패물, 은그릇 및 수저를 쓰는 것, 주임관 및 30결 이상 납세인이 무늬있는 비단 담호, 무명주의 및 속옷 상의, 은식 패물, 은수저를 쓰는 것, 판임관 및 10결이상 납세인은 무명 담호와 주의를 쓰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⁷²

이처럼 사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재가하여 반포함으로써 소매가 좁은 주의는 일상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영친왕의 두루마기도 소매가 좁은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친왕의 주의를 동다리주의로 기록되어 있다. 동다리는 동 즉 소매의 색을 달리한 것일 뿐 색동소매는 아니다. 발기자료에는 ‘식동주의’, ‘식동저고리’등과 같이 색동인 경우에는 식동으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다리는 소매의 색이 다른 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 돌과 생신복식 발기

영친왕의 돌은 음력으로 1898년(무술년) 9월 25일이며,⁷³ 1899년 기해년, 1904년 갑자년, 1905년 을사년, 1906년 병오년에 이르기까지 총 5건의 생신발기가 남아 있다. 영친왕의 돌복으로 제작된 것은 사규삼과 복건이다. 이외에도 주의와 쾌자, 배자, 동의복, 바지, 천의, 행전, 버선 등이 마련되었다.(그림 10)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 각각의 복식을 확인해보면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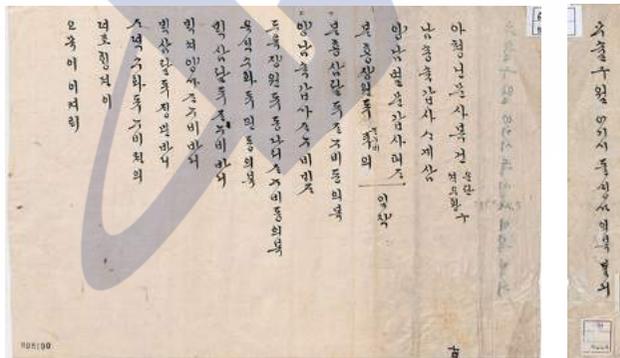


그림 10. <무술구월 아기사 돌상신 의복발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68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6월 4일(병자).
 69 『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10월 28일(병오).
 70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6월 17일(기축).
 71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9일(경자).
 72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1월 16일(양력).
 73 영친왕은 정유년 즉 1897년 9월 25일에 태어났다. 발기자료에는 모두 음력생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실록 등의 자료에서는 양력인 10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례	복식 종류		
돌			
삼칠일, 백일, 돌			
백일 및 돌			
돌			
봉작시, 입학시			

그림 11. 의례별 영친왕 복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이는 돌복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며 다른 생신 때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영친왕 돌 및 생신의복발기 비교

무술년(1898년)	기해년(1899년)	갑진년(1904년)	을사년(1905년)	병오년(1906년)
아침닌문사복건 옥판 석우항구	양남별문사패즈 —작전티구	즈덕속운문갑사농포 일작 농홍비구	즈덕운문속사농포 일작	즈덕속운문갑사농포
남송속갑사사계삼	분홍장원듀즌누비주의	다홍속운문갑사니작	다홍운문속사니작	다홍속운문갑사니작
양남별문갑사패즈	양남속첩문사패즈 —작전티구	양남별문속사패즈 일작	분홍속갑사주의	양남속별문사패즈
분홍장원듀즌누비주의	남송속갑사민주의	분홍속갑사민주의	보라삼팔듀즌누비동의복	분홍속별문사주의
분홍삼팔듀즌누비동의복	남송속갑사즌누비빅즈	남송별문속사민주의	분홍속갑사누비동의복	남송별문속사계주의
양남속갑사즌누비빅즈	분홍장원듀즌누비동의복	분홍삼팔듀즌누비동의티	청옥식별문속사민동의복	분홍삼팔듀즌누비동의티
두록장원듀둥다리즌누비 동의복	송화식둥다리즌누비동 의복	남송속갑사누비동의티	남송속갑사민동의복	남송별문속사계주의티
옥식수화듀민동의복	옥식별문갑사둥다리민동 의복	청옥식속초민동의복	분홍삼팔듀민동의복	분홍속갑사민동의티
빅삼팔듀즌누비바디	즌누비토슈 이	보라장원듀민동의복	토슈 삼 누비 이 윈 일	궁양사한삼
빅셔양사즌누비바디	빅삼팔듀즌누비붕디	남송별문속사민동의복	빅삼팔듀즌누비붕디	토슈 삼

무술년(1898년)	기해년(1899년)	갑진년(1904년)	을사년(1905년)	병오년(1906년)
빅삼팔두징민바디	빅삼팔두징민붕디	토슈 누비이 뽀 일	빅삼갑사누비붕디	빅삼팔두누비붕디
더포힝전 이	옥양목곁붕디	빅삼팔두즌누비붕디	빅삼팔두뽀붕디	빅삼갑사곁붕디
오목이 이켜리	빅더포힝전 이	빅삼팔두누비붕디		궁양사뽀붕디
즈덕수화두누비전외	죽건이켜리	빅삼갑사뽀붕디		옥양목고의
		궁양사뽀붕디 이		더포힝전 삼
		빅더포힝전 삼		
10종 16건	9종 19건	8종 21건	6종 14건	10종 15건

영친왕의 생신은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이다. 옷을 장만하는데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계절이므로 영친왕 생신복은 저고리와 바지 모두 누빈 것이 많다. 누비의 간격은 잘게 누빈 잔누비가 대부분이며, 겹으로 만든 것도 있고 누비지 않은 바지도 하나씩 들어있다. 또 1904년부터는 생신복에 자적용포와 다홍내작 한세트가 들어 있으며, 용홍배를 갖추고 있다. 또 무술년과 기해년에는 동의복이라고 되어 있으나 1904년 갑진년부터는 동의대로 기록하고 있다. 바지도 무술년에는 바디로 되어 있으나 기해년부터는 붕디로 되어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1906년 병오년은 10세가 되는 해이다. 이때에는 특별히 한삼과 고의가 들어가 있어 속옷을 제대로 갖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2. 친왕 의례 복식발기

친왕 의례와 관련된 발기자료는 봉작시발기와 입학시발기 두 건이 있다. 먼저 1900년(경자년) 7월에 있었던 친왕자가의 의복발기를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경주(1900)칠월친왕즈가순빈즈가 봉작시의복발기-【1079】

복식명	색	직물	구성	품목	비고
아청광수사부금복건 옥판 석우황	아청	광수사	부금	복건	옥판, 석우황 구
즈덕싱운문사농포	자적	운문사		용포	일작
다홍싱운문사니작	다홍	생운문사		내작	
진분홍세초티 일건	진분홍	세초		대	1건
남송광사사계삼	남송	광사		사구삼	일작
분홍은조사니작	분홍	은조사		내작	
양남싱수갑사괘즈	양남	생수갑사		괘자	
분홍싱수갑사주의	분홍	생수갑사		주의	
분홍세더포싱플주의	분홍	세저포	생플	주의	
남송싱수갑사빅즈	남송	생수갑사		배자	
분홍삼팔두즌누비동의복	분홍	삼팔주	잔누비	동의복	
분홍은조사동의복	분홍	은조사		동의복	
청옥색은조사동의복	청옥색	은조사		동의복	
다홍세더포한삼	다홍	세저포		한삼	
빅삼팔두즌누비바디	백	삼팔주	잔누비	바지	
빅싱두곁바디	백	생주	곁	바지	

복식명	색	직물	구성	품목	비고
빅더포고의	백	저포		고의	
도포고의		조포		고의	
세녀포HING전 이		세저포		행전	2

(1) 봉작시 복식

봉작 당시 영친왕의 나이는 불과 만 3세가 채 안된 시점이다. 당시 친왕의 복식은 아청광수사에 부금을 한 복건, 자적색용포와 다홍색 내작이 제작되었으며, 사구삼과 내작, 쾌자와 주의가 세트로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주의, 배자, 동의복, 한삼, 바디, 고의, 행전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그림 12>의 발기자료를 보면 ‘순빈자가’와 ‘친왕자가’의 봉작임에도 불구하고 칠장복(七章服)을 제작하지 않고 여전히 용포만을 제작하였으며, 머리에 편복 모에 해당하는 복건만을 만들었으므로 다른 발기자료가 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⁷⁴ 이는 『승정원일기』 음력 7월 23일에 책봉의 길일을 잡고, 양력 8월 17일 중화전에서 책봉례를 거행하였으며, 당시 금책(金冊), 금인(金印), 칠장복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⁷⁵

친왕으로서 봉작을 받을 때의 복식은 대군의 경우와는 다르다. 완화군(1868~1880)은 고종의 서장자로 1876년 4월 10일에 작위를 받았으며, 1877년 12월 4일 관례를 거행하였다. 또한 의화군(1877~1955)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1891년 12월 29일 작위를 받았으며, 1892년 7월 20일 관례를 치렀다. 이들도 모두 관례 전에 봉작을 받았으며, 이때 복식은 완화군은 복건, 복두, 순금백택흉배(純金白澤胸背)를 단 초록단령, 서야대(犀也帶), 흑화자를 신었으며,⁷⁶ 의화군 역시 완화군과 같되 다만 서대를 띠었다.⁷⁷ 이것으로 보아 대한 제국기 황자아이기의 책봉은 조선시대 왕세자와 같은 신분으로서 칠장복을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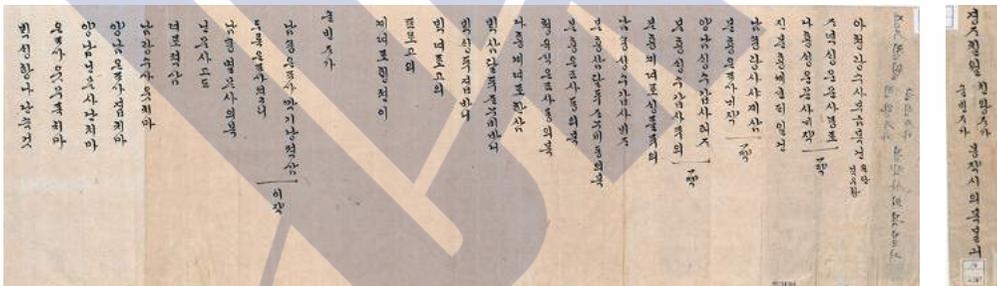


그림 12. <경조칠월 친왕자가 순빈자가 봉작시 의복불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 입학시 복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친왕의 입학례는 별도로 없었다. 그러나 1901년 영친왕이 비록 입학은 하지 않았지만 총명하다는 대신들의 말이 있었으며 1905년 왜 아직도 입학을 하지 않았느냐는 대신의 질문에 “나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실제 입학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친왕의 입학 시 발기자료를 통해 입학을 위한 복식을 장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그림 13> 더욱이 발기에 기록된 병오년인 1906년 10월 22일은 양력으로 1906년 12월 7일에 해당하며, 『고종실록』에서 이날 강학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⁷⁸

74 순빈자가 역시 평상복만을 마련하고 있어 봉작시 착용할 예복이 별도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5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8월 17일(양력).
 76 『완화군관례등록』,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77 『의화군관례등록』,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78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12월 7일(양력 1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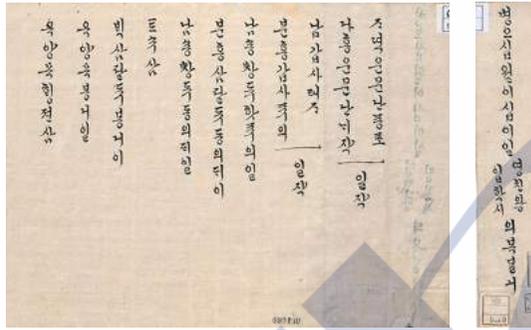


그림 13. <병오십월이십이일 영친왕 입학시 의복불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표 11. 병오십월이십이일 영친왕 입학시 의복불과-[1068]

복식명	색	직물	구성	품목	비고
즈덕운문단농포	자적	운문단		용포	일작
다홍운문단니작	다홍	운문단		내작	
남갑사쾌즈	남	갑사		쾌자	일작
분홍갑사주의	분홍	갑사		주의	
남송쌍듀헛주의 일	남송	쌍주	숨	주의	1
분홍삼팔듀동의티 이	분홍	삼팔주		동의대	2
남송쌍듀동의티 일	남송	쌍주		동의대	1
토슈 삼				토시	3
백삼팔듀붕디 이	백	삼팔주		바지	2
옥양목붕디 일		옥양목		바지	1
옥양목헝전 삼		옥양목		헝전	3

영친왕의 입학시 장만한 복식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의 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입학례를 위해 용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미 친왕으로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용포를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이 입학례를 위해 만든 의복발기라면 용포는 물론 강학시 입어야 하는 유복(儒服)을 장만했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세자라할지라도 입학일 당일에 거행하는 강학에서는 유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복은 만들지 않고 용포만 만들었다는 점도 입학례 없이 바로 강학이 시작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IV. 영친왕 복식발기의 특징

영친왕의 복식발기는 모두 20건이 남아있다. 황실의 어린이 의례는 크게 아기시의례와 친왕의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식제작에 있어서는 영친왕만을 위한 단독 발기와 고종과 순종 탄일 및 명절을 맞이하여 고종·순종과 함께 제작한 발기가 있다. 특히 영친왕 단독발기가 아닌 합동발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황실 어린이의례 및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친왕 단독복식발기

총 20건의 영친왕 발기자료 중 영친왕 단독발기는 12건이 있으며<표 12>, 합동발기는 모두 8건이 있다. 영친왕은 1897년(정유년) 탄생하여 삼일복을 만들 때에는 ‘황자아기시’로 불렸으며⁷⁹ 이후에는 ‘아기시’로 불리다가 1900년 ‘친왕자가’로 봉작을 받은 이후 1907년(정미년)까지는 모두 영친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현전하는 발기자료를 볼 때 1904년 정조까지는 여전히 아기시로 불리다가 1904년(갑진년) 9월 25일 탄일 이후 비로소 영친왕으로 호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5년(을사년) 단오에는 여전히 아기시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분마마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종의 탄일에는 역만세, 순종에게는 천만세, 영친왕에게는 천백세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신분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친왕 단독발기 중 명절복식을 통해 복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1899년(기해년)에는 동의복으로 그 이후에는 모두 동의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바지는 기해년에는 바디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모두 봉디로 기록하고 있다. 1899년(기해년) 정조에만 복건을 만들었으며 그 이외에는 모자류는 보이지 않는다. 영친왕에게 올린 정조, 사월초팔일, 단오, 동지 등 명절 복식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직물이다. 정조와 사월 초팔일, 동지에는 사(紗)와 주(紬)가 사용되었다. 정조에는 누비로 옷을 지었으며, 사월 초팔일에는 겹으로 장만했다. 또 단오에는 홉으로 만들었으며, 생품을 먹여 시원함을 추가하였다. 또 계절의 특징을 살려 누비, 민, 쟁, 겹으로 구성하였다.

표 12. 영친왕을 위한 의복발기

년도	대상	의례	복식발기	비고
1897년	영친왕	삼칠일	명유십월십오일 황자아기시 삼칠일 의복혹온블기	삼칠일
1898년	영친왕	백일	무술스월 아기시 백일 의복블기	백일
1898년	영친왕	돌	무술구월 아기시 돌싱신 의복블기	돌
1899년	영친왕	정조	기희정도 아기시 의복블기	정조
1899년	영친왕	생신	기희구월이십오일 아기시 싱신 의복블기	2돌
1900년	영친왕	봉작시	경즈칠월 친왕즈기순번즈가 봉작시 의복블기	봉작
1904년	영친왕	생신	갑진구월이십오일 영친왕 싱신 의복블기	8세
1905년	영친왕	생신	을스구월이십오일 영친왕 싱신 의복블기	9세
1906년	영친왕	탄일	병오구월이십오일 천백세영친왕탄일 의덕블기	10세
1906년	영친왕	입학시	병오십월이십이일 영친왕 입학시 의복블기	입학
1906년	영친왕	동지	병오동지 영친왕 의복블기	동지
1907년	영친왕	사월초팔일	명미사월초팔일 의덕블기	사월팔일

표 13. 계절별 영친왕 단독 복식

기해년(1899년) 정조	병오년(1906년)동지	정미년 사월초팔일	정미년(1907년)단오
아청갑사복건 옥판석우항			
양남갑사괘즈	양남숙갑사괘즈	양남닌문사괘즈	양남별문싱사괘즈
남송숙갑사जू의	분홍쌍듀जू의	분홍별문싱사जू의	남송광사단जू의
양남숙갑사빅즈	즈덕온듀जू의	남송닌점문사जू의	분홍은조사단जू의

79 고종은 1897년 9월 17일 황제로 등극한다.

기해년(1899년) 정조	병오년(1906년)동지	정미년 사월초팔일	정미년(1907년)단오
분홍삼팔두누비동의복	분홍쌍두동의복	분홍삼팔준누비동의복	분홍세머칭폴단주의
남송동다리누비동의복	남송갑사동의복	남송별문속사겹동의복	남송은조사동의복
옥식장원두동다리동의복	즈덕온주동의복	토슈 이	분홍은조사동의복
보라장원두땀동의복	토슈 삼	빅삼팔정겹봉디	분홍더포한삼 이
토슈 이	빅삼팔봉디 이	더포형전 이	신평형전 이
옥양목누비바디	형전삼		빅삼팔정겹봉디 이
서양사땀바디			
형전 이			

한편 영친왕의 옷에 주로 사용하는 복색은 계절에 관계없이 남송, 양남, 분홍, 자적 등이 쾌자와 주의, 동의대에 사용되는 반면, 바지는 모두 백색을 사용했다. 복식의 종류를 보면, 쾌자와 주의가 한 세트를 이루며 기해년 정조에만 배자가 들어 있고, 그 이외에는 모두 주의를 제작 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수록 배자보다는 주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2. 두분마마 합동 복식발기

20건의 영친왕 발기자료 중 두분마마와 합동으로 제작한 발기자료는 8건이다. 그 중에서도 고종의 탄신일에 장만한 것은 갑진년과 을사년의 2건이 있으며, 명절과 관계된 것은 정조, 사월초팔일, 단오 등에 장만한 8건이 남아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이를 토대로 을사년에 올린 각 신분별 명절복식을 보면 정조에는 고종과 순종은 용포가 3세트가 들어간 반면 영친왕은 용포 1세트와 도포가 2세트 들어갔으며, 사월초팔일에는 영친왕에게 용포를 올리지 않았다. 특히 사월초팔일에는 겹주의를 올리고 단오에는 단주의를 올림으로써 계절에 맞는 복식을 장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4. 고종, 순종 두분마마와 합동발기

년도	주대상	의례	복식발기	비고
1904년	두분마마	정조	갑진정조 두분마마 의복 아기사 의복복기	아기사
1904년	두분마마	탄일	갑진칠월 억만세탄일 두분마마 의복 영친왕 의복복기	영친왕
1905년	두분마마	정조	을스정조 두분마마 의복 영친왕 의복복기	영친왕
1905년	두분마마	사월초팔일	을스사월초팔일 두분마마의복 영친왕 의복복기	영친왕
1905년	두분마마	단오	을스단오 두분마마 의복 아기사 의복복기	아기사
1905년	두분마마	탄일	을스칠월 억만세탄일 두분마마영친왕 의복복기	영친왕
1907년	두분마마	사월초팔일	명미스월초팔일 두분마마영친왕 의복복기	영친왕
1907년	두분마마	단오	명미단오 두분마마영친왕 의복복기	영친왕

표 15. 을사년 신분별 명절복식

정조			사월초팔일			단오		
고종	순종	영친왕	고종	순종	영친왕	고종	순종	영친왕
용포	용포	용포	용포	용포		용포	용포	용포
내작	내작	내작	내작	내작		내작	내작	내작
용포	용포	도포						
내작	내작	내작						

정조			사월초파일			단오		
고종	순종	영친왕	고종	순종	영친왕	고종	순종	영친왕
소용포	소용포	도포						
내작	내작	내작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쾌자	주의	주의	접주의	접주의	접주의	단주의	단주의	단주의
쾌자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접주의	접주의		단주의	단주의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동의대	동의대	동의복						
토슈	토슈	토슈	토슈	토슈	토슈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붕디						
행진	행진	행진	행진	행진	행진	행진	행진	행진

이들 명절 복식을 비교해본 결과 복식의 종류 및 직물, 색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신분별 직물과 색상 분석

신분 복식	고종		순종		영친왕	
	색상	직물	색상	직물	색상	직물
굴데					아청	갑사
복건					아청	인접문사, 인문사, 갑사, 광수사
용포	옥색, 황	세저포, 운문궁사, 생운문갑사,	옥색, 다홍	세저포, 생운문궁사, 생운문갑사, 운문궁사	자적	생운문사, 숙운문갑사, 운문한단, 궁사, 운문궁사, 운문속사, 운문단
소용포	황	숙운문갑사, 운문궁사	다홍	순운문궁사		
내작	옥색, 다홍	정주, 생운문갑사, 운문궁사, 숙운문갑사	옥색, 남	정주, 생운문궁사, 생운문갑사, 운문궁사	다홍	생운문사, 숙운문갑사, 궁사, 운문궁사, 운문속사, 운문단
도포					남, 옥색	숙갑사, 세저포
내작					남	삼팔주
학창의					남	광사, 순인
동다리	아청	광수사	아청	광사	두록, 남송, 옥색, 송화색	갑사, 장원주, 광사, 별문갑사
쾌자	양남, 아청	인접문사, 은조사, 님문사, 광수사, 수접문사	양남, 백, 옥색, 아청	광사, 인접문사, 은조사, 생고사, 인문사	양남, 남, 아청	별문속사, 순인문사, 별문갑사, 숙접문사, 생수갑사, 은조사, 별문사, 갑사, 숙갑사, 생고사, 인문사, 별문생사
주의	옥색, 백, 회색	삼팔주, 광사, 순인문사, 은조사, 인문사, 생수갑사, 생고사, 인접문사, 삼팔, 광사, 양생주	옥색, 백	삼팔주, 순인문사, 생수갑사, 인문사, 광사, 생고사, 인접문사, 은조사	두록, 분홍, 남송, 자적, 옥색	갑사, 장원주, 삼팔주, 숙갑사, 생수갑사, 세저포, 접문영초, 광사, 은조사, 별문속사, 모본단, 별문사, 생주, 은주, 생고사, 여의사, 별문생사, 인접문사,

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종과 순종은 거의 같은 직물로 만들며, 복식 종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색상에서 고종은 황색, 순종은 홍색이며 영친왕은 자적색으로 각 신분을 상징한다. 또한 영친왕의 도포와 학창의에 사용한 색은 남색과 옥색이며, 동다리는 고종과 순종이 아청색인 것에 반해 영친왕은 두록, 남송, 옥색, 송화색 등 다양한 복색을 이용하였다. 또 쾌자와 주의 역시 고종과 순종은 양남, 아청, 옥색, 백색으로 만들었으며, 영친왕은 두록, 분홍, 남송, 자적, 옥색 등 보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복색인 만큼 밝고 화려한 색을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직물에 있어서도 영친왕의 복식은 고종과 순종에 비해 훨씬 다채로운 직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고종은 광사, 광수사, 삼팔주, 생고사, 생수갑사, 생운문갑사, 생운문공사, 세저포, 수접문사, 숙운문갑사, 순인문사, 양생주, 운문공사, 은조사, 인문사, 인접문사, 정주 등 16종류의 직물이 사용되었으며, 순종은 15

표 17. 각 신분별 직물의 종류

번호	고종	순종	영친왕
1	광사	광사	갑사
2	광수사	삼팔주	광사
3	삼팔주	생고사	광수사
4	생고사	생수갑사	공사
5	생수갑사	생운문갑사	모본단
6	생운문갑사	생운문공사	별문갑사
7	생운문공사	세저포	별문사
8	세저포	순운문공사	별문생사
9	수접문사	순인문사	별문숙사
10	숙운문갑사	운문공사	삼팔주
11	순인문사	은조사	생고사
12	양생주	인문사	생수갑사
13	운문공사	인접문사	생운문사
14	은조사	인접문사	세저포
15	인문사	정주	숙갑사
16	인접문사		숙운문갑사
17	정주		숙인문사
18			숙접문사
19			순인
20			쌍주
21			여의사
22			은주
23			운문공사
24			운문단
25			운문숙사
26			운문한단
27			은조사
28			인문사
29			인접문사
30			장월주
31			접문영초

중, 영친왕은 31종의 직물이 사용되었다. 영친왕의 복식으로 사용한 직물이 이렇게 다채로운 것은 영친왕의 탄일시 의례 및 친왕의례의 복식을 장만하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옷감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운문갑사와 생운문궁사는 고종과 순종에게만 보이는 직물로 당시 최고급의 직물인 동시에 황제와 황태자만을 위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대한제국 황실 어린이 의례복식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이의 기준을 나이가 아닌 관례 전으로 규정하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호산청일기』와 <왕실발기> 자료를 중심으로 황실 어린이복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조선왕실복식은 의례가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자료의 부족 및 접근성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장서각에 왕실어린이발기가 총 24권이 남아 있으며 그중 영친왕의 복식발기가 20권이 남아있다. 이에 영친왕의 출생 당시 기록인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및 『임산예지법』, 『궁중예법풍속과 전하는 말삼』 등 기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헌을 중심으로 각각의 의례를 살펴보고, 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목욕례, 권초례, 초도례까지를 '아기시의례'로 구분하고 관례 전에 치러진 책례 및 입학례까지를 어린이 의례로 규정함으로써 대한제국 황실 어린이 의례복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영친왕의 아기시의례 복식발기는 삼칠일복식을 시작으로 백일복식, 돌복식이 남아있으며, 친왕의례복식과 관련해서는 봉작시복식과 입학시복식이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영친왕 한 명을 위한 단독발기자료이다. 또한 어린이의 기준을 관례전까지로 보았을 때 관례전에 행해진 생신복식발기와 명절복식발기도 8권이 남아있다. 이들 명절복식과 생신복식은 고종과 순종, 영친왕의 복식이 합동으로 기록된 발기자료로 신분간 복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대한제국 황실어린이 복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친왕은 1897년 9월 25일 탄생했으므로 대한제국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황자아기시'로 명명되었으며, 1904년 '친왕자가책봉' 이후에는 영친왕으로 불렸다. 이후 1907년 순종이 즉위한 후에는 황태자로 책봉을 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영친왕으로 불렸다.

둘째, 아기시 의례는 크게 목욕례와 권초례, 안테례가 있으며, 그 중 목욕례는 산모와 아기시의 세욕을 비롯해 태를 씻는 세태가 있다. 이후 산자리를 걸어서 보관하는 권초례 및 안테례가 이어진다. 영친왕의 권초례는 장수를 기원하는 명주, 명진, 명사, 명정은 등을 놓고 분향재배 하는 권초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칠일째 거행된 권초례가 끝나면 호산청은 해체되었다. 또 깨끗이 씻은 태는 태실을 잡아 안치하였으나 정조이후에는 세자를 제외하고는 궁궐의 후원에 안치함으로써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덜고자 했다. 이에 영친왕의 태를 창덕궁 후원에 있는 능허정 남쪽 산기슭아래 봉안하였다. 이때까지 장만한 복식은 삼일, 일칠일 복식이 이에 해당한다. 영친왕의 경우에는 삼칠일 복식만 남아 있지만 여기에 삼일후에 착용하는 두령이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황실에서도 백일과 돌은 그 의미가 깊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의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는 귀한 자식일수록 자랑하거나 드러내 놓지 않으므로써 해코지를 막고자 했던 조선의 풍속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복식발기를 통해 백일, 이백일, 돌 등에 특별한 의례를 거행하지 않더라도 이 때를 기념하여 복식을 장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관례 전에 거행된 영친왕의 의례는 봉작과 입학이 있었다. 책봉은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영친왕은 '친왕자가'로 1900년 책봉을 받았다. 이때 친왕으로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장만하는 의례용 복식에는 자적용포와 다홍내작이 마련되었으며, 의례에 따라 돌에는 사규삼이 만들어졌고, 입학시에는 용포가 마련되었다. 특히 영친왕으로 봉작을 받은 이후에는 남송광사 사규삼과 함께 분홍 은조사내작이 갖추어졌으며, 패자, 주의, 배자, 동의복, 한삼, 바지, 고의, 행전까지 일체의 복식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영친왕의 입학례가 실제 거행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강학을 위한 용포가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영친왕의 복식발기자료는 영친왕 한분만을 위한 발기자료도 있지만 고종 및 순종과 함께 장만한 발기자료도 상당부분 남아있다. 이들 발기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두분마마와 합동의례를 위한 복식을 장만할 때에는 신분별 복식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따라서 영친왕의 저고리는 '동의복'이라하고, 두분마마의 것은 '동의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바지 역시 영친왕은 '바디'라고 기록한 반면 두분마마의 것은 '봉디'로 표현함으로써 신분에 따라 복식용어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친왕 단독의례의 경우에는 동의대나 봉디로 표현하고 있어 왕실복식 최고의 명칭으로 저고리는 동의대, 바지는 봉디라고 했다.

여섯째, 고종, 순종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영친왕의 발기자료는 탄일 및 각 명절에 올렸던 복식이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정조에 고종과 순종은 용포와 소용포를 올리는 반면 영친왕의 경우에는 용포와 도포를 올리고 있다. 또 사월초팔일에는 고종과 순종은 용포를 올렸으나 영친왕은 용포를 올리지 않았다. 더욱이 고종은 황색, 순종은 홍색, 영친왕은 자적색의 용포를 올림으로써 각 신분의 특징을 복색으로 구분하고자 했다. 그러나 색상과 직물에 있어서는 영친왕의 복식이 훨씬 다채로웠다. 이는 어린이 복식이므로 보다 밝고 활기찬 색상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종과 순종에게만 당시 최고급의 직물인 생운문갑사와 생운문궁사를 사용함으로써 직물은 신분을 구별하는 단서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
 『국조보감』
 『문종실록』
 『순조실록』
 『헌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은대조례』
 『최숙원방 호산청일기』
 『최숙의방 호산청일기』
 『최귀인방 호산청일기』
 『정유년 호산청소일기』
 『궁중예법풍속과 전하는 말삼』
 『大君公主御誕生ノ制』
 『완화군관례등록』,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의화군관례등록』,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고부자(2007). 우리나라 유아의례와 복식의 민속연구. 비교민속학 34집. 245-274.
 김상환(2007). 조선왕실의 안태등록과 홀기 : 국역 안태등록.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민속원.
 김지영(2010).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문화에 관한 몇가지 실마리들. 장서각 23. 3-34.
 _____.(2012). 조선시대 왕실 '권초례'의 변화. 민속학연구 30. 141-161.
 박성실(2000).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복식 18. 43-98.
 손운혜·이은주(2013). 1817년 효명세자 입학례의 왕세자 복식 고증. 문화재 46, 188-207.
 신명호(2002).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고문서연구 21. 156-176.
 윤진영(2013). 조선후기 안태의례의 개선과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67. 391-428.
 이명은(2003). 『궁중별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민주(2008). 조선시대 왕세자 책례복식의 추이 : 조선왕실의 가례 1.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_____.(2010). 효명세자의 일생을 통해 본 가례복식 : 조선왕실의 가례 2.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이주미·홍나영(2018). 연잉군 관례절차와 복식 연구. 복식 68(1). 40-50.
 조은숙(2017). 『호산청일기』 연구. 고전문화와 교육 36. 205-236쪽.
 진덕순·이은주(2016). 1932년 왕손 이구의 『의대목록』복식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제49호, 157-183.
 최연우(2017). 조선후기 공정책(空頂幘)의 제정 및 사용. 한복문화 20(3).

A Study on Korean Empire Children Ritual and Costume - Focusing on the King Young-chin's Documents of the Jangseogak Collections -

LEE MINJOO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Abstract

The royal family in Joseon Dynasty defined child and adult based on the fact whether the child performed a coming-of-age ceremony. Especially in wearing costumes, only those who performed the coming-of-age ceremony could wear a formal suit for ritual ceremonies for the events including school entrance, proclaiming crown prince(princess), etc., as well as for implementing obligations as an adult. However,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of royal family trying to gain public sentiments by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codes of the country and setting the ranks of government officials, the crown prince was proclaimed earlier, in spite of young age. Ceremony to celebrate royal school entrance was performed prior to the coming-of-age ceremony since the times of King Hyeonjong. Therefore, ceremonies to celebrate entering the royal school and proclaiming the crown prince were defined as ceremonies for royal children, which were performed prior to the coming-of-age ceremony. This study investigated child costumes for each ceremony, based on Wangsil Balgi kept in Jangseogak, which is a library for Korean Studies. Few studies have been made so far on ceremonies for royal children and their costumes. It is totally due to lack of literatures. Luckily, there are four records showing the ceremonies for royal children in Hosancheong Ilgi (Diary at Hosancheong) in Jangseoga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24 supportive materials in Boksik Balgi. Among them, most parts were related to King Youngchin, which were 20 records. This study investigated costumes and ceremonies for royal children based on Hosancheong Soilgi (Small Diary at Hosancheong) in the year of Jeongyoo, which recorded the birth of King Youngchin, along with Wangsil Balgi.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eremonies and costum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a child was born as a child of the King in royal family, he/she was called "Agisi" meaning Highness Baby". Since King Youngchin was born at the time of the Korean Empire, he was called "Hwangja Agisi" meaning Imperial Highness Baby. After he was enthroned, he was called King Youngchin.

Second, the royal child ceremonies that King Youngchin served were bath ceremony, prenatal ceremony, pregnancy ceremony, school entrance ceremony, and ceremony for proclaiming crown prince. Costumes used for each ceremony can be found in Wangsil Balgi kept in Jangseogak. The costumes for the baby until the 21st day from the baby was born were

Jeogory(top), pants and Doo-ryong-ye(wrapskirt). For the 1st anniversary of the baby, Bokgun(hat), SagyusamQueza(suit) and Jooeui(robe) were provided. Jeogory(top) was made for winter clothes.

Third, although the ceremonies for the 1st anniversary of the birth, school entrance, and proclaiming crown prince were not performed formally due to the superstitious customs to prevent any harm for a previous child and also due to economic hardships at that time, the costumes for the ceremonies were made in a timely manner.

Fourth, In a single Balgi (record) for King Youngchin, winter clothes was recorded as “Dongeuidae” and pants as “Bongdi”. However, when the costumes were made together for King Gojong and King Soonjong, Saengwunun Gapsa and Saengwunmun Guksa were used for only King Gojong and King Soonjon. The formal suit of the King Gojong was yellow, and King Soonjong was red. King Youngchin’s jacket was purple red. Based on the facts, it is assumed that they used colors to discern the status of the King.

Keywords : Empire child, ritual ceremonies for a child, Hosancheong Diary, King Youngchin, Wangsil Balgi, Jangseogak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 유물에 관한 고찰 -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

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논문요약

이 글은 현재까지 출토된 조선 시대 복식 중에서 어린이 출토 복식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의 특징과 복식사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은 총 40점이다. 시대적으로, 묘주의 생존 시기에 맞추어 1400년대 1점, 1500년대 13점, 1600년대 15점, 1700년대 2점, 1800년대 9점이 분포되어 있다. 복식 종류는 남자 어린이 복식으로 도포 2점, 액주름 4점, 중치막 6점, 저고리 4점, 바지 2점이 있으며, 여자 어린이 복식은 당의 5점, 장옷 2점, 저고리류 10점[저고리 9점, 적삼 1점], 치마 1점, 바지 1점이며, 이외에 배넛저고리 2점과 소모자 1점이 있다. 해평윤씨 소년의 묘에서 출토된 6점을 제외하면, 모두 수레로 넣어준 것들로서 묘주의 옷과 비교하여 뚜렷한 크기 차이를 보이므로 어린이 복식으로 분류하였다.

유물을 통해 살펴본 조선시대 어린이의 옷은 어른의 옷과 비교하여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는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상을 조합하여 만든 옷들이 있는데, 이러한 옷은 대부분 유아기에 해당하는 옷이었다. 이는 주변의 잡귀에서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색상을 화려하게 한 것으로 벽사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의 신체 특성에 맞게 기능을 고려하여 만들기도 하였는데, 유아기의 경우 바지 밑을 터주어 용변을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바지에 어깨끈을 달아 활동량이 많은 아이를 배려하였다. 저고리 옷고름을 길게 하여 가슴을 둘러매도록 하였는데, 이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를 배려한 것이며, 나아가 가슴을 조여 줌으로서 엄마 품과 같은 안정을 찾도록 하는 배려였다. 부드러운 목선을 보호하고자 배넛저고리의 깃을 없애고 옷고름을 길게 한 것도 이러한 배려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은 어른 옷과 달리 유물의 수량이 적어 어린이 의생활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발표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출토복식(出土服飾), 해평윤씨 소년 미라, 도포, 장옷, 중치막, 오방장두루마기

* Corresponding author : Lee Myung Eun, E-mail : joohee320@dankook.ac.kr

| 투고일 | 2018.04.16

| 심사개시일 | 2018.04.20

| 심사완료일 | 2018.05.04

| 게재확정일 | 2018.05.10

I. 서론

전통사회에서 5세 이하는 어린 새의 주둥이에 빗대어 황구(黃口)라고 하였으며 6세 이상 14세 이하는 아직 뼈가 굳지 않았다 하여 아약(兒弱)¹이라 하여 어른과 구별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공식화 하는 의례인 관례(冠禮)는 남자 나이 15세부터 행하도록² 하였으니 관례 의식에 참석하는 순간까지를 어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경우는 시집가기를 허락하면 계례(笄禮)를 행하였다.³ 이에서 볼 때 대략 혼례 전으로, 관례나 계례를 행하는 시기까지가 어린이의 범주라 할 수 있으며 그 나이는 남자의 경우 대략 15세까지이며 신체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전통 사회 어린이들은 어떠한 옷차림을 하였을까?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을 학술적으로 다룬 첫 사례는 2002년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개최된 “350년 전 소년 미라와 가족사랑-해평윤씨 기증 유물 특별전”⁴이다. 1600년대 전반기를 살았던 해평윤씨(海平尹氏) 소년의 무덤에서 11점의 복식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 복식 6점이 포함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간헐적으로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이 발표되고 있으며, 해평윤씨 소년 미라의 유물을 제외하면 모두 수례지의(綵禮之衣)로 출토된 것들이다.

이 글은 출토 복식 중에서 어린이 복식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의 특징과 사료적 가치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 범위는 현재까지 학계에 어린이 복식으로 발표된 출토 사례와 묘주의 옷과 비교하여 뚜렷한 크기 차이를 보이는 옷을 어린이 복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외에 미발표 사례⁵를 포함하였다.

II. 어린이 복식 출토 현황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수의를 제외한 소령, 대령, 보공 등에 배우자나 지인들이 죽은 자를 기리면서 보내온 물건을 관 속에 넣어 주는 수례(綵禮) 관습을 따르고 있다. 즉, 고래(古來)로부터 친자, 형제, 군(君)으로부터 제물로서 옷을 받는 수례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⁶ 18세기 문헌인 『사례편람(四禮便覽)』에도 친우(親友)의 ‘수(綵) 제도’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친지의 옷을 관속에 넣는 수례 풍습은 조선 후기까지에도 지켜졌던 관행으로 볼 수 있다⁷. 친지에게 보낸 수례의 한 예로, 인목대비 친모 광산부부인 노씨(1557~1637)의 맞머느리(1640. 1. 5일 亡)의 장례 일기 중에는 보공으로 넣어준 실관의복(實棺衣服) 중에 홍산택(鴻山宅)에서 ‘초록도주곶저고리’, 울봉택(栗峰宅)에서 ‘남화주유저고리(藍花紬襦赤古里)’를 보내었다⁸는 기록이 있다. 또 효종의 부인인 명성왕후(明聖王后)가 1689년 송시열의 장례에 초록유문사단령(草綠有紋紗團領)과 분홍유문사단령(粉紅無紋紗團領)을 보냈다⁹. 따라서 조상의 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속에 넣어준 옷에서 무덤의 주인과는 다른 성별이거나 치수가 다른 옷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성(異性)의 옷이나 크기의 차이가 뚜렷한 옷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수례지의로 짐작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은 이와 같이 수례지의로 넣어준 과정에서 발견된다.

1 大典會通(1865). 兵典, 成籍.

2 李宜朝(18세기). 家禮增解 卷三, 冠禮, 冠.

3 李宜朝(18세기). op.cit, 笄.

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5 현재도 각 대학교나 연구소 등에서 보존처리 작업 중인 어린이 출토 복식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미발표 복식은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다루었다.

6 禮記. 喪大記 第二十一. / 家禮, 卷四 禮六.

7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편(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p.35.

8 김종진 편저(2007). 광산부부인노씨장례일기. 서울:대비공원보존위원회 외. p.97.

9 宋書續拾遺(1927). 附錄, 卷二 楚山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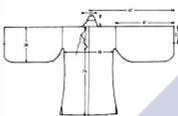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 현재까지 접할 수 있는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은 총 40점이다(Table 1. 참조).¹⁰ 이 중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미발표 유물 5점이 포함되어 있다. 묘주의 생존 시기에 맞추어 1400년대 1점, 1500년대 13점, 1600년대 15점, 1700년대 2점, 1800년대 9점이다. 복식 종류는 남자 어린이의 경우, 도포 2점, 액주름 4점, 중치막 6점, 저고리 4점, 바지 2점이 있으며, 여자 어린이의 경우, 당의 5점, 장옷 2점, 저고리 9점, 적삼 1점, 치마 1점, 바지 1점이며, 이외에 배넛저고리 2점과 소모자 1점이 있다. 해평윤씨

Table 1. 어린이 복식 출토 현황

순번	묘주/생몰년	성별	유물	출토지/출토시기	소장처	출처		
1	송효상 /1430~1490	男	액주름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 /2004.05.21	대전시립 박물관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편(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출토복식.	
2	마세준 /1491~1553	男	저고리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2009.07.05	광주광역시립민속 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편(2012.2). 문화유씨 장흥마씨 회곽묘 출토유물	
3	선성군 이흠 /1522~1562	男	저고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008.06.10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편(2014). 조선 왕실 선성군 母子의 특별한 외출	
4	무연고 남자 /16세기중반 추정	男	액주름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09.06.1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미발표 유물	
5	양천허씨 /1550년대 추정	女	저고리		충남 청양군 운곡리 미량리 미동 부락 /1982.10.2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편 (1888). 韓國服飾 第6號	
6	이응태 /1556~1586	男	적삼		경북 안동시 정상동 /1997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대학교 박물관편(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	
7	의령남씨 /16세기후반 추정	男	도포		충남 예산 삼교읍 목리·수촌리 /2011.02.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청문화재연구소 外(2014). 禮山 沐理·新里 遺蹟 5卷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32집	
8			장옷					
9	완산이씨 여자 /16세기후반 추정	女	액주름		전남 나주 /2009.04.18	고려대학교 박물관	미발표 유물	
10			치마					
11			바지					

¹⁰ 이외에 김여운(1596~1665)의 모친 전주이씨 목관에서 나온 7점 중에 여자아이의 치마가 있다[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편(2005). 17세기의 무란 옷 이야기. p.22.]는 발표 사례가 있으나, 안동대학교 박물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순번	묘주/생물년	성별	유물	출토지/출토시기	소장처	출처
12	무연고 남자 /16세기후반 추정	男	도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6-2지점 묘4 /2008.08.21	국립민속 박물관	(재)한백문화재연구원 편(2011).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13			저고리 			
14	안정 나씨 부인 용인이씨 /1500년대 추정	女	배넛저 고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2011.05.03	대전시립 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편(2016). 그리움을 입고 연정을 짓다./ 부산대학교·대전시립박물관 편(2016).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15	정휴복 /1529-1604	男	액주름 	경기 성남시 신흥1동 야산 /1986.08.0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편 (1989). 『韓國服飾』 第7號
16	함풍이씨 /1607卒	女	저고리 	전남 장성 /2008.04.2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미발표 유물
17	해평윤씨 소년 /17세기 전반 추정	男	증치막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산48-20 /2001.11.1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남야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18			증치막 			
19			증치막 			
20			바지 			
21			배넛 저고리 			
22			소모자 			
23	평양조씨 /17세기 전반 추정	女	증치막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2003.04.0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3). 『韓國服飾』 제31호
24	권함과 순천박씨 부부 /17세기 추정	남녀 혼합	장옷 	충북 괴산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청전문대학박물관 편(1997). 博物館誌 第6號 朝鮮 中期 權咸 夫婦墓 出土 棺槨과 服飾 p.124

순번	묘주/생몰년	성별	유물	출토지/출토시기	소장처	출처
25	온양정씨 배위 /17세기 중반 추정	女	저고리 	경남 하동 진정리 산72-23 /2009.06.01	안동대학교 박물관	하동할매들 안동나들이(2013).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26			바지 			
27	홍우협 /1655~1691	男	중치막 	경기 시흥군 군자면 선수리 산13-2 /1983	충북대학교 박물관	김명숙 외(1999). 朝鮮時代服飾研究. 學研文化社/충북대학교 박물관(편)(1993). 洪禹協墓出土17世紀服飾論攷
28	사천목씨 /1657~1699	女	저고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 4-1 /2008. 04~06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편(2010). 파주 심지원 묘 및 신도비 유적-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28책/경기도박물관 엮음(2017). 의문의 조선 : 무늬. 민속원.
29			저고리 			
30	청송심씨 /1683~1718	女	당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산22-30번지 /2003.04.10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편(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
31	탐릉군 /1663~1731	男	중치막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금량장리 산326 /1981.06.1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편 (1983). 韓國服飾 第一號
32	청연군주 /1754~1821	女	당의 	경기 광주군 세촌면 압동리 /196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편 (1983). 韓國服飾 第一號
33			당의 			
34			저고리 			
35			저고리 			
36			저고리 			
37	청연군주 /1754~1821	女	당의 	경기 광주군 세촌면 압동리 /1963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1990). 服飾類名品圖錄. p.81 고복남(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p.86
38			저고리 			
39	국가민속문화재 제56호	-	당의 	-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청 편(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2
40	국가민속문화재 제53호	-	저고리 	-	-	-

소년의 묘에서 출토된 6점을 제외하면, 모두 수레로 넣어준 것들로서 묘주의 옷과 비교하여 뚜렷한 크기 차이를 보이므로 어린이 복식으로 분류되었다. [Table 1.]의 유물을 설명함에 있어 편의상 순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1400년대의 유물은 후반기에 해당하는 1점이다. No.1은 송효상(宋效商 : 1430~1490)의 묘에서 출토된 솜 액주름으로, 어른의 액주름과 함께 출토되었다. 송효상 묘 출토 복식의 경우 그 조형성이 1500년대 중후반 유물과 흡사하여 복식학계에서 묘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유물이다.

1500년대의 유물 중 No.2는 장흥마씨 마세준(馬世駿 : 1491~1553)의 묘에서 출토된 누비저고리로 오른 쪽 일부가 반파된 상태로 남아있다. No.3은 1562년 사망한 선성군 이흠(李欽 : 1522~1562)의 묘에서 선성군의 옷과 함께 출토된 어린이 저고리로서, 칼깃 형태의 깃 모양으로 보아 남자 어린이 옷으로 추정된다. No.4는 동작구 사당동의 무연고 남자 묘에서 발견된 겹 액주름이다. 어른 액주름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크기가 매우 작으며, 깃, 섶, 무에 별색(別色)을 주어 어른의 복식과 비교된다. No.5와 No.6은 목판깃 형태의 여자 저고리이다. 시각적으로 어른의 옷과 크기 차이가 없으나 함께 출토된 어른의 옷과 비교했을 때 편차가 커 어린이 옷임을 알수 있다. No.5 저고리는 150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양천허씨(楊川許氏) 묘에서 어른 저고리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No.6 저고리는 1586년에 사망한 이응태(李應台)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부인의 옷과 어린 아들의 옷이 함께 출토되었다. No.7과 No.8은 의령남씨(宜寧南氏 : 16세기 후반) 묘에서 출토된 도포와 장옷이다. 1500년대의 어른 도포 유물도 매우 귀한 시점에서 어린이의 도포는 매우 귀중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함께 출토된 장옷[No.8]은 여자 어린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No.9~No.11은 완산이씨(完山李氏 : 16세기 후반 추정) 여자 분묘에서 발견된 액주름, 치마, 바지이다. 모두 어른의 옷과 비교하여 크기가 매우 작은 옷들이다. No.12 도포와 No.13 저고리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무연고 남자 묘에서 출토된 옷이다. 도포는 함께 출토된 어른의 옷과 비교하여 크기가 매우 작은 옷으로, 옆선에 달린 무의 상부를 맞추름 잡아서 뒷길에 부착하여 준 형태로 주름이 소멸하는 과도기적 도포 형태이다. No.13은 여자 어린이 저고리로, 함께 출토된 어른 여자 저고리와 비교했을 때 크기 편차가 있어 어린이 옷으로 분류하였다. No.14 배넛저고리는 안정나씨(安定羅氏) 부인 용인이씨(龍仁李氏)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1500년대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배넛저고리이다.

1600년대 유물 중, No.15 액주름은 1604년에 사망한 정후복의 묘에서 모양과 구성이 같은 어른의 액주름도 함께 출토되어 뚜렷한 크기 차이가 확인된다. No.16은 청안이씨 이경용의 부인 함풍이씨(咸豐李氏 : 1607卒)의 묘에서 출토된 남아용 홀 저고리이다. No.17번~No.22는 17세기 전반기 추정 해평윤씨 소년의 묘에서 출토된 중치막 3점과 바지, 배넛저고리, 소모자이다. 사망한 어린이 묘에서 출토된 국내 유일한 사례이다. No.23 중치막은 17세기 전반기로 추정되는 평양조씨(平壤趙氏)의 묘에서 남자 어른의 중치막과 함께 출토되어 어른 옷과 비교하여 뚜렷한 크기 차이를 보인다. No.24 장옷은 출토 과정에서 유물이 혼합된 권합과 순천박씨 부부 묘에서 출토되었다. 함께 출토된 장옷과 크기의 편차가 있어 어린이 옷으로 분류하였다. No.25와 No.26은 진양정씨 정희현(鄭希玄 : 1601~1650)의 부인 온양정씨(溫陽鄭氏)의 묘에서 출토된 남자 어린이의 저고리와 바지이다. 저고리는 크기가 작고 칼깃 형 깃 모양을 통해 남자 어린이 옷이 분명한 상태이며, 바지의 경우 착장 시연을 통해 남자 바지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No.27은 17세기 말의 홍우협(洪禹協 : 1655~1691) 묘에서 출토된 어린이용 중치막이다. 부인 옷으로 추정되는 장옷과 함께 어린이 옷이 출토되었다. No.28과 No.29는 심익창(沈益昌 : 1652~1725)의 후 배위 사천목씨(泗川睦氏 : 1657~1699) 묘에서 출토된 여자 어린이 옷이다. 함께 출토된 35점의 여자 저고리 중에 포함된 것으로 2점 모두 화장저고리 형태이다.

1700년의 유물 중 No.30 당의는 청송심씨(靑松沈氏) 묘에서 어른의 당의와 함께 출토되었다. No.31 중치막은 탐릉군(耽陵君)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함께 출토된 여러 점의 어른 중치막과 비교하여 크기 편차가 커서 어린이 옷으로 분류하였다.

1800년대 유물 중 No.32~No.36과 No.37~No.38은 청연군주(淸衍郡主 : 1754~1821)의 묘에서 출토된 당의와 저고리이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딸인 청연군주의 유물은 1963년에 남편인 김기성(金箕性 1752~1811)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분산되어있는 유물이다.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연군주 유물¹¹과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가 뚜렷하다. No.39~No.40은 국가민속문화재 제56호와 53호로 지정된 당의와 저고리이다. 묘주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옷의 형태와 옷감의 갈변 상태 등을 통해 청연군주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이상의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 출토 사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어린이 옷임이 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한 무덤에서 출토된 동종(同種) 복식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어린이의 옷으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Ⅲ. 출토 어린이 복식의 조형성 분석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은 어른의 옷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크기의 차이만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 출토된 어린이 복식의 조형성을 분석하여 어른의 옷과 비교되는 어린이 복식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남자 어린이 복식

남자 어린이의 경우 도포 2점, 액주름 4점, 중치막 6점, 저고리 4점, 바지 2점이 있다. 유물을 설명함에 있어 편의상 <Table 1>의 순번을 임시 유물 번호로 표현하고자 한다.

(1) 도포(道袍)

도포는 사대부의 대표적인 옷으로, 관복(官服) 다음 가는 상위에 해당한다. 16세기에 기록과 유물이 나타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에 더욱 보편적으로 입혀졌다. 형태는 앞자락의 옆 무가 뒷자락 안으로 들어가 고정된 형태여서 뒷자락이 2단을 이루고 있으며, 몸체에 붙은 안자락은 긴 트임이 있다.

의령남씨(宜寧南氏) 묘 출토 도포¹²[No.7]는 2011년 2월 15일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목리·수촌리에 소재한 의령남씨 묘에서 출토되었다.¹³ 무명으로 된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어 만든 솜 도포로, 특이하게 소매와 가슴 부분과 한쪽 수구 끝에 교직(交織)을 덧대어 누벼주었다. 깃 모양은 겹과 안 깃이 모두 칼깃 형태이며 명주 동정이 달려 있다. 옆선에는 직사각형무와 사다리꼴무로 구성되

Table 2. 어린이 도포

임시 번호	묘주/생물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7	의령남씨(宜寧南氏) /16세기후반 추정		73.5	63.61	5	25.5	25	20	한국전통 문화 대학교	충청문화재연구소 外(2014). 禮山 沐理·新里 遺蹟 5卷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32집 / 김종숙(2014). 충남 예산군 출토어린이 도포와 장의의 복원연구.
12	별내면 출토 무연고 남자 묘 /16세기 후반기 추정		76.5	58.5	46	25	27	18	국립민속 박물관	(재)한백문화재연구원 편 (2011).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11 박승원·이윤경·유혜선(2008). 淸衍郡主墓 出土服飾 중 織金·附金衣의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과학 제9집, 국립중앙박물관, pp.67-83.

12 김종숙(2014). 충남 예산군 출토 어린이 도포(道袍)와 장의(長衣)의 복원연구. 韓服文化 17(1), pp.5-20. 참조.

13 충청문화재연구소,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32집 禮山 沐理·新里 遺蹟 5卷, pp.323-375.



Fig. 1. 의령남씨(宜寧南氏) 묘 출토 도포 세부. From, 韓服文化 17(1)(2014),pp.5~20.



Fig. 2. 별내면 무연고 묘 출토 도포. Fro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진.

어 달려 있으며 무의 상부에 끈을 부착하여 무를 등판 안쪽의 길에 고정하였다. 무명으로 만든 솜 옷이어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뒷길에 무를 튼튼하게 부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옆선에 연결된 직사각형 무의 상부는 1.5cm 너비의 주름이 두 개가 잡혀있으며 첫 번째 주름에 0.7cm 너비의 보조 끈을 달아주었다. 고름은 근대의 돌피고름저고리 처럼 겹길 쪽에 긴 고름을 달아 가슴 부위를 돌려 주어 고름 매도록 하였다. 고름 크기는 긴 고름 71.5cm 짧은 고름 41.5cm 너비 2cm이다. 겹감은 고운 흡질, 안감은 성근 흡질을 하였으며 옷의 가장자리는 두 땀 상침으로 돌려주었다.

별내면 무연고 묘 출토 도포¹⁴[No.12]는 함께 출토된 유물을 통해 16세기 후반기로 추정되었다. 명주로 만든 겹옷으로 앞길 옆선에 달린 무의 윗부분을 맞주름 잡아 주어 뒷길 안쪽에 부착한 형태이다. 깃 모양이 겹깃은 칼깃, 안깃은 내어달린 목판깃 형태이며 동정과 겹고름은 탈락되어 없으며 안고름만 남아있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소매끝 쪽으로 완만하게 넓어지는 두리소매형태이며 소매 끝에서 굴러져 수구가 좁아진다. 진동점에 가로·세로 1.5cm 크기의 사각점은 삼각무가 달렸으며 그 아래로 앞길 옆선에는 사다리꼴무과 직사각형 무가 달려 있고 뒷길 옆선에는 사다리꼴무가 달려있다. 앞무의 윗부분을 2~2.2cm 크기로 맞주름 잡아 뒷길 겨드랑이 바로 안쪽에 부착하여 뒷자락이 2단이 되도록 하였다.

위 2점의 도포는 1500년대에 도포를 입었다는 실증이 되는 자료로서, 무에 주름을 잡아 뒷길에 부착하였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석명(李碩明 : 1513~1583) 묘 출토 도포¹⁵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석명 도포는 뒷길이보다 앞길이가 짧은 전단후장(前端後長)의 옷으로, 옆선에 직사각형 무를 달아 상부를 주름 잡아서 뒷길 안쪽에 부착한 형태이다. 의령남씨 묘 출토 어린이 도포와 구성이 비슷하며 어린이 도포에는 주름잡은 무 부분에 끈을 달아준 것이 다른 점이다. 별내면 출토 어린이 도포가 주름 크기가 작고 모양이 단순한 것으로 볼 때 16세기 중반기에서 17세기 초반기로 넘어가면서 도포의 주름이 소멸되는 과도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석명 묘 출토 도포와 어린이 도포 2점을 비교하였을 때 크기에서 차이를 보일 뿐 조형성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14 이명은(2011).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 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재)한백문화재연구원. pp.123-130, pp.160-161.
 15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2000).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실. 서울대학교 박물관. pp.33-37, pp.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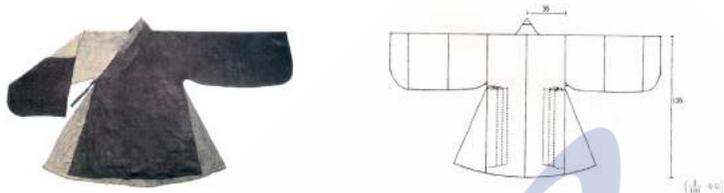


Fig. 3. 이석명 묘 출토 도포. From,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2000),pp.82~83.

(2) 액주름(腋主音)

저드라이에 주름이 잡혀있어 ‘액주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길이는 일반 포보다는 약간 짧기때문에 남자들이 집안에서 입는 평상복의 가능성도 있는 옷이다.

송효상(宋效商 : 1430~1490) 묘 출토 액주름[No.1]¹⁶은 보공으로 넣어준 옷으로, 겹감과 안감을 무명으로 만들고 사이에 솜을 두어 만든 솜 옷이다. 겹깃 모양은 갈깃, 안깃은 내어달린 목판 깃 형태이다. 동정은 소실되어 없으며 고름은 직접 부착형 1쌍이 달려있다. 겹선은 옷감 1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진동점에 2cm 크기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아래로 작은 사다리꼴무가 달려있으며 옆선에는 상부를 잔주름 잡아준 긴사다리꼴과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대형 무가 달려있다. 같은 무덤에서 뒷길이 104~108cm, 화장 100~111cm, 품 74~82cm 크기의 액주름 2점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아 어린이 옷으로 분류하였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무연고 묘 출토 액주름[No.4]은 여러 가지 색 조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겹감은 명주이며 안감은 모시와 명주로 만든 겹 옷이다. 깃, 겹섶, 안섶, 고름, 큰 무 일부[직사각형 부위]가 몸판과 달리 짙은 갈색으로 갈변된 것을 볼 때 원래의 색은 몸판과 다른 별색으로 색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뒷 중심 끝에는 너비 1.2cm 높이 4cm 크기의 금선단으로 된 삼각형을 쪽이음 하였으며 안감도 같은 위치에 쪽이음 하였다. 소매는 완만한 일자형으로 수구 쪽에서 조금 줄어드는 형태이며 진동점 아래에는 사각접은 삼각무를 생략하고 작은 사다리꼴무만 달려있다. 그 아래 옆선에는 긴사다리꼴-직사각형-긴사다리꼴 형태로 무가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 상부는 0.5cm 크기로 주름을 잡아주었다. 고름은 길이 26×2cm 크기 겹고름과 26.5×1cm 크기 속고름이 달려있다. 옷을 완성한 후 도련과 수구의 가장자리는 약 3cm 들어가서

Table 3. 어린이 액주름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1	송효상 /1430~1490		87	78.5	64	29	27	23	대전시립 박물관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편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4	별내면 출토 무연고 남자 /16세기 중반 추정		61	52.5	41	20.5	20	16.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서울동작구 사당동/미발표 유물
9	완산이씨 여분묘 (문화류씨 家) /1500년대 후반 추정		69	62	57	25	25	25	고려대학교 박물관	미발표 유물
15	동래정씨, 정휴복(鄭休復) /1529-1604		92	73	54	23	22	16.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편 (1989), 韓國服飾 第7號

16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편(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출토복식. p.238.



Fig. 4. 사당동 무연고 묘 출토 액주름.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5. 완산이씨 여 분묘 출토 액주름. Fro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진.

두 땀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완산이씨(完山李氏 : 16세기 후반 추정) 여 분묘 출토 액주름[No.9]은 모시로 만든 홑 옷이다. 겹깃과 안깃이 칼깃 형태로 동일하며 겨드랑이 아래에는 삼각무를 생략하고 작은 사다리꼴무만 부착되어 있다. 무 상부는 0.2mm 크기로 주름 잡혀있다. 고름은 길이 22~23×2cm 크기 겹고름과 25×2cm 크기 속고름이 달렸다. 바느질은 무, 섶, 배래는 옛쌈솔로 옷을 짓고, 도련은 재물단으로 선단 처리하여 감침질로 마무리하였다.

동래정씨 정휴복(鄭休復) 묘 출토 액주름[No.15]¹⁷은 명주로 된 겹감과 면포로 된 안감 사이에 솜을 두어 2.5~3cm 간격으로 누비 만든 솜누비 옷이다. 겨드랑이 아래에는 2cm 크기의 사각접은 삼각무와 작은 사다리꼴무가 달리고, 그 아래 옆선에는 5.7~1cm 크기로 상부를 주름 잡아준 큰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대형 무가 달렸다. 옆선 하부에는 활동에 편리하도록 30cm 크기로 트임을 주었으며 트임 가장자리는 1cm 너비 별단으로 마무리하였다. 함께 출토된 옷들 중 옷감과 모양이 동일한 누비 액주름 1점의 크기가 길이 118cm, 화장 91cm 품 72cm로 크기 편차를 보여 No.14 액주름을 어린이 옷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액주름 4점은 홑, 겹, 솜, 솜누비로 구성으로 되어 어린이 액주름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자료이며, 그 형태가 크기만 다를 뿐 어른의 액주름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옷길이가 각각 겹액주름 [No.4] 61cm, 홑액주름[No.9] 69cm, 솜액주름[No.1] 87cm, 누비액주름[No.15] 92cm의 크기로, 솜액주름과 누비액주름의 경우 좀 더 성장한 어린이의 옷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동작구 사당동 무연고 묘 출토



Fig. 6. 정휴복 묘 출토 액주름.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1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1989), 한국복식 제7호, pp.123-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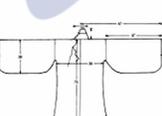
겹액주름[No.4]은 깃, 걸섶, 안섶, 고름, 무의 앞뒤 직사각형 부분을 몸판과 달리 별색을 조합하여 만든 옷으로, 근대의 오방장 두루마기와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

(3) 중치막(中致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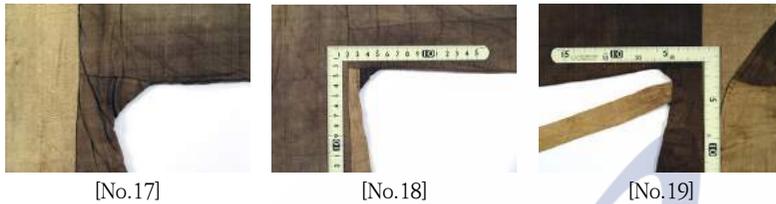
중치막은 임진왜란 이후 1800년대까지 남자들이 즐겨 입었던 선비의 간편한 외출복이다. 겨드랑이 아래로 옆자락이 트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복을 입을 때 받침옷으로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외출할 때는 허리에는 띠를 두르기도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해평윤씨 소년 미라 묘 출토 중치막 3점[No.17~19]¹⁸은 1600년대 중반의 유물로 추정하는 자료이다. 모두 누비옷으로, 현재 솜은 없으나 당시에는 솜을 두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깃 모양은 칼깃 형태이다. 진동점에는 작은 사각점은 삼각무와 아래 옆선에 긴 사다리꼴무가 부착되어 있으며 옆선에는 트임을 주었다. 소매 배래선이 수구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해평윤씨 소년 미라는 신장이 105cm로, 크기 차이가 나는 2벌의 중치막을 입고 있었다. [No.17]의 경우 소년 미라가 가장 속에 입고 있었던 중치막이다. 걸감과 안감을 명주로 만들고 2cm 간격으로 줄줄이 누벼주었다. 깃, 소매, 무, 섶의 색상이 몸판과 달리 짙은 갈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다양하게 색상을 조합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No.18]의 경우 소년미라가 수의로 가장 겹에 입고 있었던 옷으로, 허리에는 길이 110×2.5cm의 좁고 긴 허리띠를 둘러준 상태였다. 걸감과 안감을 명주로 하고 2~2.2cm 간격으로 줄줄이 누벼주었으며 소매와 몸판이 같은 색이고 깃과 옆선에 달린 무를 별색으로 만들었다. [No.19] 중치막은 관속에 염의로 넣어준 옷이다.

Table 4. 어린이 중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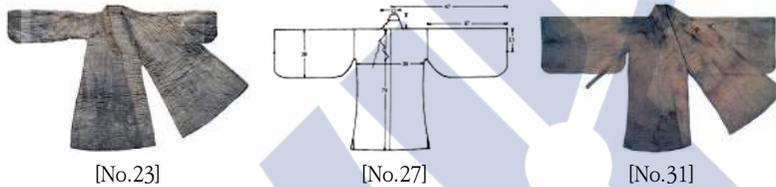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17	해평윤씨 소년미라 /17세기 전반		64.5	48	36	16	16.3	1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18	해평윤씨 소년미라 /17세기 전반		81	64.5	35	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19	해평윤씨 소년미라 /17세기 전반		80.5	60	41	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23	평양조씨(平壤趙氏) /17세기 전반		86.5	67	31	19	20	14.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3), 『韓國服飾』 제31호
27	홍우협(洪禹協) /1655~1691		70	67	39	17	28	13	충북대학교 박물관	김명숙 外(1999), 朝鮮時代服飾研究, 學研文化社/충북대학교 박물관(편)(1993), 洪禹協墓出土17世紀服飾論放
31	탐릉군(耽陵君) /1663~1731		102	91.5	46.5	25.7	44	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1983) 韓國服飾 第一號

18 박성실(2002). 京畿道 楊洲 海平尹氏 문중 선산 출토 남아 미라 복식유물에 관한 고찰,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서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261~308, p.265.



[No.17] [No.18] [No.19]

Fig. 7. 해평윤씨 소년 묘 출토 중치막의 사각 접은 삼각무의 색 배합 모습.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No.23] [No.27] [No.31]

Fig. 8. 17세기와 18세기 중치막 비교.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몸판, 깃-소매-무, 겹선탄-안선탄을 각각 별색으로 만들어 주었다. 수의로 입은 중치막은 복원품을 만들어 신장 105cm 정도의 어린이가 입었을 때 옷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정도이며, 수의 속에 입었던 중치막의 경우 무릎 조금 아래 위치에 닿는 길이이다. 겹쳐 입은 같은 종류의 옷 2벌의 크기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박성실은 작은 중치막은 소년의 옷이며, 치수가 큰 옷은 수레지의로 넣어준 형제의 옷의 가능성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더한다면, 1600년대에는 중치막을 저고리 용도로 입기도 하였으며, 성장기 어린이 옷의 경우 치수를 크게 만들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평윤씨 소년의 옷도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평양조씨(平壤趙氏 : 17세기 전반 추정) 무덤에서 출토된 어린이 중치막[No.23]은¹⁹ 겹감과 안감을 무명으로 마련하여 사이에 솜을 두텁게 두어 만든 솜 옷이다. 겹깃은 칼깃형이며, 안깃은 목판깃으로 1.5cm 정도 길쪽으로 들어 달려있다. 해평윤씨 소년미라의 경우와 같이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모양이다. 진동점에는 사각접은 삼각무가, 옆선에는 대형 사다리꼴무가 달려 있으며 옆선은 사각접은 삼각무에서 약 18cm 내려와서 옆선을 약 51cm 정도 트임을 주었다. 옷 품이 31cm 정도로 작은 편이어서 매우 마른 체형의 어린이가 입을 수 있을 정도이며, 신장 120cm 정도의 어린이가 입었을 때 아이의 복숭아뼈 약간 위쪽 선에 닿는 정도의 길이이다. 보공으로 넣어 만든 것으로, 함께 출토된 성인 남자 중치막은 길이 130cm, 화장 98cm, 품 48cm의 크기로 No.23 중치막과 뚜렷한 크기 편차를 보인다.

홍우협 묘 출토 중치막 [No.27]과 탐릉군 묘 출토 중치막[No.31]은 같은 구성을 보이는 유물이다. 깃은 칼깃 형태이며 옆선에 무가 없고 겨드랑 아래에서 조금 내려와 옆트임을 주었다. 소매는 17세기 전반기의 두리소매 형태에서 넓은 소매로 변화되는 과정의 광수(廣袖)로서 시대가 조금 이른 홍우협 묘 출토 중치막의 소매가 조금 좁은 편이다. 홍우협 묘 출토 중치막²⁰은 명주로 만든 누비 옷으로 1.2cm 간격으로 누벼주었다. 겨드랑이 아래로 14.5cm 내려와서 도련 밑 까지 트임을 주었다. 고름은 몸판 색상 보다 짙은 진갈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옷은 현대의 어린이 두루마기 치수와 비교하여 7~8세 정도와 옷길기와 품이 비슷하다고 한다. 탐릉군의 중치막은 길이 102cm, 화장 91.5cm, 품 46.5cm, 소매통 44cm의 크기로 치수만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 옷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함께 출토된 8점의 다른 중치막의 크기가 길이 118~127cm, 화장 100~112.3cm, 품 52~60cm, 소매통 50~57cm의 범위로 옷의 크기를 비교 하였을 때 성장한 아이의 옷으로 추정 가능하다.

19 이명은(2013), 청주한씨 조민 일가 묘 출토 유물 고찰, 韓國服飾 31호. 경기도: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p.46.

20 김명자, 김명숙, 장인우, 이수봉(1999), 朝鮮時代服飾研究. 서울:學研文化社. pp.88-90.

이 상 6점의 증치막은 어린이 증치막의 조형적 변천을 알 수 있도록 시대가 분포되어 있다. 17세기 전반기의 옆선에 무가 달린 상태로 옆트임이 있고 두리소매 형태의 증치막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무가 없이 옆이 트여있고 소매는 광수 형태를 띠고 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광수는 더욱 크기가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형성의 변화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어른의 옷과 동일한 형태이다. 그리고 해평윤씨 소년의 증치막 3점과 같이 남자의 옷임에도 여러 색의 별색을 조합하여 만들기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저고리

저고리는 남녀 모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상의류이나 남자의 저고리는 여성과 달리 내의의 개념이 강하여 특별한 장식이 없으며 깃 모양이 칼깃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마세준(馬世駿 : 1491~1553) 묘 출토 저고리[No.2]²¹는 ‘소색무명솜누비저고리’로 명명된 옷이다. 겉감은 고운 무명, 안감은 거친 무명을 사용하고 사이에 솜을 두어 8cm 간격으로 누벼준 솜누비 옷이다. 형태는 겉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내어달린 목판 깃 형태이며, 진동 아래 작은 삼각형이 달리고 옆선에는 사다리꼴무가 달려 있다. 품보다 도련이 넓게 구성되어 있다. 겉깃에는 긴 고름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깃의 모양과 옷길이가 긴 것을 보았을 때 남자 아이의 옷으로 추정가능하다. 어린아이 저고리처럼 함께 출토된 다른 저고리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작다고 하였다.

선성군(宣城君) 이흠(李欽 : 1522~1562)의 묘에서 출토된 남자아이의 저고리[No.3]²²이다. 겉과 안을 명주로 만들었으며 깃 모양은 어른의 것과 같은 칼깃이며, 겨드랑이 아래 사각 접음무와 긴 삼각무가 연결되어 있고 고름은 유실된 상태이다. 소매가 상대적으로 짧아 반소매 형식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Table 5. 남자 어린이 저고리

순번	묘주/생몰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2	장흥마씨, 마세준(馬世駿) /1491~1553		47.5	57	40	17.5	-	13.5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편 (2012.2), 문화류씨 장흥마씨 회곽묘 출토유물
3	선성군(宣城君) 이흠(李欽) /1522~1562		37	26.5	28	12	16.5	14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편(2014), 조선 왕실 선성군 母子의 특별한 외출
16	함풍이씨(청안이씨 경용 배위) /1607卒		51	57	44	16.5	14	13.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미발표 유물
25	온양정씨 /1600년대 중반		48.5	63	40	15.5		14.3	안동대학교 박물관	하동할매들 안동나들이 (2013),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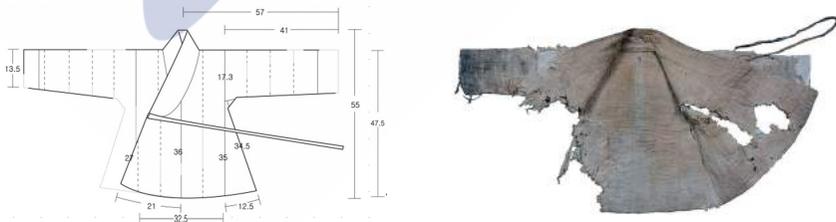


Fig. 9. 마세준 묘 출토 저고리. From.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소장 및 자료 제공.

21 광주민속박물관 편(2012). 문화류씨 장흥마씨 회곽묘 출토유물. pp.69-71.

22 송미경(2014). 선성군 母子 묘 출토복식 고찰, 조선 왕실 선성군 母子의 특별한 외출. 경기도:경기도 박물관. pp.90-91, pp.197-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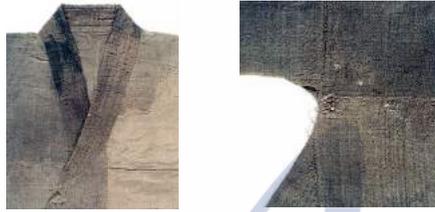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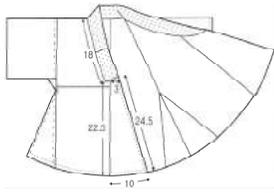


Fig. 10. 선성군 묘 출토 남아 저고리. From, 조선 왕실 선성군 母子의 특별한 외출(2014),pp.90-91



Fig. 11. 함풍이씨 묘 출토 홀 저고리.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12. 온양정씨 묘 출토 솜 저고리. From,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

청안이씨 경용의 부인 함풍이씨(1607년 卒) 묘 출토 저고리[No.16]는 무명으로 만든 홀 옷으로, 보공으로 넣어주었다. 깃 모양은 겹깃이 칼깃 형태이며 안깃을 들여달린 목판깃 형태이다. 소매는 일자형이며, 옷품과 도련의 너비가 동일하여 옆선은 진동점에서 아래로 일자형으로 뺀어있다. 옆선 아래로 16.5cm 트임을 주어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바느질이 매우 성글게 되어있으며, 옆트임과 도련의 가장자리는 시점을 0.5cm 접어 성글게 감침질하여 마무리하였다.

경남 하동의 진양정씨(晉陽鄭氏) 희현(希玄 : 1601~1650)의 부인 온양정씨 묘 출토 솜 저고리[No.25]²³는 면포로 된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어 만든 솜 옷으로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다. 깃너비는 5cm로 겹깃이 칼깃 형태이고 안깃은 1/3 정도 들여 달려 끝을 둥글린 목판깃이다. 겨드랑이에 2×2cm 크기의 사각점은 삼각무가 달려있으며 아래로 옆선에 무가 달려 옷 품 보다 도련이 넓게 구성되어 있다. 도련의 가장자리에서는 4cm 들어간 지점에서 7~8cm 간격으로 2뿔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이상의 남아 어린이 저고리는 선성군 남아 저고리를 제외하고는 옷 품에 비하여 길이가 길고 깃 모양이 칼깃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등 동시대 남아 저고리와 형태는 동일하고 크기의 차이만 보인다.

(5) 바지

16세기 남성과 여성의 바지는 부리가 넓어서 형태가 서로 유사함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17세기 이후 남성의 바지는 부리가 좁은 사쪽바지로 변화하고 여성은 여전히 넓은 부리가 대세이다.

해평윤씨 소년 묘 출토 바지[No.20]는 명주로 만든 밀이 터인 겹 바지이다. 겹감은 곱고 안감은 성근 명주로 되어있으며 허리 부분은 안감과 같은 명주이다. 좌우 가랑이 사이의 밀이 트여있고 트임 사이에 바대가 달려있지 않으며, 옆티를 한 뒤 허리 말기를 달아서 입고 벗기 쉽게 만들었다. 바지 좌우 가랑이를 허리선에서 중심 부위 5cm 정도만 겹치고 나머지는 주름을 잡아 허리 치수에 맞추어 허리를 달아 주었다.

온양정씨 묘 출토 바지[No.26]²⁴는 넓은 허리말기와 어깨끈이 달린 개당고형 홀바지이다. 좌우 가랑이 밀이 트여있고 밀 트인 가랑이 좌우로 삼각 바대가 달려있다. 좌우측 가랑이를 허리선 중심에서 10cm 정도 겹쳐 주고 19.5cm 너비의 넓은 허리말기와 총길이 41cm, 접으면 20.5cm의 어깨끈을 달아주었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아이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어깨끈은 성인 남녀의 바지에도 사용되지만 활동량이 많은

23 이은주(2013). 17세기 전기 정희현 배위 묘 출토유물 고찰. 하동할매들 안동나들이. 경북: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 p.148.
24 이은주(2013). op.cit. p.156.

Table 6. 남자 어린이 바지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총길이	허리둘레	바지통	부리	기타	소장처	출처
20	해평윤씨 소년미라 /1600년대 전반		75	66×.5	33.5	23	밑위 28 밑아래 3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26	온양정씨 /1600년대 중반		87	62.5× 19.5	23	18	밑아래 18.5	안동대학교 박물관	하동함매들 안동나들이 (2013),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아이들의 바지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바지 길이는 66.5cm로, 어깨끈 말기 포함하여 87cm이다. 어깨끈과 허리끈, 허리말기도 홀로 만들어졌다.

2. 여자 어린이 복식

여자 어린이의 경우 당의 5점, 장옷 2점, 저고리 9점, 적삼 1점, 치마 1점, 바지 1점이 있다.

(1) 당의

당의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여자의 예복이다. 왕실에서 의례 때나 명일에 입었으며, 재료와 장식에 차이를 두어 상궁이나 반가의 부인들도 입었다. 일상 예복으로서 당의에 대하여, ‘매일 새벽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나면 장부는 도포와 갓 그리고 띠를 갖추고, 부인들은 머리를 빗어 비녀를 꽂고 당의를 입는다’ 하여 당의는 남자의 도포에 준하는 일상의 의례복임을 시사하였으며, ‘당의로서 찾아뵈는 것을 준비하는 옷’이라 하였다.²⁵ 당의의 깃 모양은 저고리와 같은 형태로 시대 변화되며, 겨드랑이부터 아래로 옆선이 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송심씨(靑松沈氏 : 1683~1718) 묘 출토 당의[No.30]²⁶는 함께 출토된 5점의 당의에 비하여 크기가 작은 옷이다. 겹감 연화만초문사 홀당의와 안감 은조사 홀당의 2점이 겹쳐진 2벌 당의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징겨져 고정되어 있다. 깃모양은 겹깃은 목판 당코깃 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 형태이다. 깃 끝에는 40,39×2cm 크기의 좁고 긴 자주색 겹고름이 달렸으며 안고름도 달려있다. 소매 끝에는 4.5cm 거들지가 달려있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청연군주 묘 출토 당의 중 [No.32] 당의는 겹감을 연화만초문단으로 만든 겹 당의이다. 겹깃 모양은 깃 너비 5cm의 목판당코깃 형태이며, 착수형 직배래 형태의 소매 끝에는 6cm 너비 거들지가 달렸다. 고름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No.33] 당의는 겹당의 2점이 겹쳐진 2벌 당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겹당의는 무문단과 도류수복문단(桃榴壽福紋緞)이 하나로 직조된 형태이며 속당의는 운보문단(雲寶紋緞)으로 되어있으며 안감은 명주이다. 겹당의는 어깨와 소매, 길 아래 부분은 무문단이며 길 중간부분과 도련 아랫부분, 겹깃머리 일부분에만 도류수복문단으로 직조되어있으며 무문단 부분에는 어떠한 무늬를 금박 또는 직금하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깃은 너비 5.5cm의 목판 당코깃이 달렸으며 고름을 부착한 흔적이 남아있다. 소매는 착수형으로 매우 좁고 긴 형태로, 속 당의의 소매 끝에 부착된 거들지가 겹 당의

25 장인우(2011). 18세기 당의의 형태적 특징과 사회적 논의, 역사민속학 제37호, p.357. 재인용.
任聖周(1788), 鹿門先生文集, 卷之二十, 雜書, 居家儀節 丙辰 遂日雜儀.
洪直筆(1852), 梅山先生文集, 卷之十五, 書.

26 장인우(2011). op.cit. pp.352-373.
충북대학교박물관 편(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 p.24.

Table 7. 어린이 당의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수구	소장처	출처
30	청송심씨(靑松沈氏) /1683~1718		44.5	41	12.5	-	11.5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편(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모역 출토 복식/충북대학교 박물관 자료 제공
32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1821		53	49.5	16	13.2	10.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3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1821		58	52	30		11.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7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1821		55.5	46	31	13	10	고려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1990), 服飾類名品圖錄
39	국가민속문화재 제56호		41	36	26	12.5	9.5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청 편(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 268~269



겉당의 펼친 모습



속당의 펼친 모습

Fig. 13. 청연군주 묘 출토 2벌 당의[No.33].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쪽으로 넘어와 5.5cm 너비 거들지로 접은 상태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청연군주 묘 출토 당의[No.37]²⁷는 착수형 소매에 도련이 완만한 곡선을 보이는 형태이다. 봉황보문단(鳳凰寶紋緞) 겉감에 명주 안감으로 만든 겹 당의로, 옷 전체에 수복(壽福)를 금박하여 장식하였다. 깃너비 5cm로 겉깃은 목판 당코깃 형태이며 동정과 고름은 탈락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진동과 소매가 매우 좁은 착수형태이며 소매 끝에는 6.8cm 너비의 거들지가 달려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당의[No.39]²⁸는 국가민속문화재 제 56호로 지정된 '수복칠보석류문 황갈단 당의'이다. 청연군주(淸衍郡主)의 출토 복식 류와 매우 흡사한 보존 상태와 조형적 특징을 보이는 유물이다. 겉감은 도료보문화문능(桃榴寶紋花紋綾)에 수복문이 전체적으로 직금(織金)되어 있고 안감은 고운 명주(細紬)로 된 겹당의이다. 겉깃 모양은 목판 당코깃 형태이며, 동정선에 성근 흠질로 당겨준 부분이 확인된다. 소매 끝에는 5.5cm 너비 세주로된 거들지가 달려있다. 소매 형태는 착수형이며 도련선은 등슬 중심 끝에서 2.5cm 내려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 당의에는 겉깃을 포함하여 앞길과 뒷길선, 어깨선, 소매통, 배래, 도련 부분 등에 이음선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인하여 생전에 착용하였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있다.²⁹

27 고려대학교박물관(1990). 服飾類名品圖錄, p.72, p.235.

28 문화재청 편(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 pp.268~269.

이상의 당의 5점은 청송심씨 묘 출토 당의 1점을 제외하면, 모두 청연군주와 관련된 유물들이다. 청송심씨 묘 출토 당의와는 소매의 착수형태, 옆선의 곡선 등이 완만한 반면, 청연군주와 관련된 당의 4점은 소매가 매우 좁은 착수형이고 옆선은 버선코와 같이 급격한 곡선형을 보여 약 100여년이 지난 당의 조형성 변화가 확인된다.

(2) 장옷

장옷은 조선 중기 이후 여성이 요즈음의 두루마기처럼 치마 저고리 위에 덧입었던 외출복이다. 형태는 두루마기와 비슷한 길이이고, 깃 모양이 쉼 안으로 들어달린 목판깃이며 옆선에는 겨드랑이에 삼각형태의 사각점은 삼각무와 사다리꼴형의 기다란 무가 함께 달리는 특징이 있다.

Table 8. 어린이 장옷

순번	묘주/생몰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8	의령남씨(宜寧南氏) /16세기후반 추정		63	56	47	22	22	22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충청문화재연구소 外 (2014), 禮山 沐理·新里 遺蹟 5卷-(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32집
24	권함과 순천박씨 부부 묘 /1600년대 추정		83	55	38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청전문대학박물관 편 (1997), 博物館誌 第6號

의령남씨 묘 출토 장옷[No.8]³⁰은 겹감과 안감 모두 무명으로 되어 사이에 솜을 두어 만든 솜 장옷이다. 깃은 들어달린 목판 깃으로, 명주를 이용해서 만든 후 다시 겹과 안깃 머리 부분에 무명이 덧대어져 있으며 일자형 소매의 끝동과 가슴부분에는 교직이 덧대어져 있으며 깃과 가슴 부위의 교직은 누비가 되어 있다. 깃에는 4.5cm 너비의 동정이 일부 남아있으며 길이 26cm에 너비 2cm의 짧고 좁은 겹고름만 두 개가 있고 안고름은 없었다. 겨드랑이에는 가로·세로 5cm크기의 사각점은 삼각무가 달렸으며 아래로 대형 사다리꼴무가 달려 있다. 겹감은 고운 홉질, 안감은 성근홉질로 옷을 만들 고 가장자리 부분에는 5.5cm 간격으로 두 땀 상침이 되어 있다.

권함과 순천박씨 부부 묘 출토 장옷[No.24]³¹은 ‘진갈색 솜 누비 직령포’로 소개된 유물이다. 겹감과 안감을 명주로 만들고, 사이에 솜을 두어 4~5cm 간격으로 누볐다. 겹기와 안깃 모두 들어 달린 목판 깃이고 겹고름은 탈락되어 안 고름만이 남아있다. 소매 끝동에 거들지가 달려있다.

이상의 장옷 2점은 시대 편차가 있어 장옷의 조형성 변화를 확인되는 자료이다. [No.8] 장옷은 신장 100~105cm 어린이가 착장했을 때 종아리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크기이다. [No.24] 장옷은 신장 125cm 내외의 어린이가 입었을 때 종아리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크기이다. 복원품을 입었을 때 옷폭이 풍성한 장옷이 입진왜란을 기점으로 몸에 맞는 옷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3) 여자 어린이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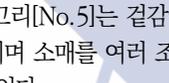
저고리의 경우 겹깃의 양식으로 시대 판별이나 성별 구분 등이 가능하다.

29 문화재청 편(2006), op.cit., p.169.

30 충청문화재연구소 外(2014), op.cit. 참조 / 김중숙(2014), op.cit. pp.5-20.

31 김영숙(1997). 朝鮮 中期 權咸 夫婦墓 出土 棺槨과 服飾, 博物館誌 第6號, 충청전문대학박물관 편, p.124.

Table 9. 여자 어린이 저고리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길이	화장	뒤폭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5	양천허씨(楊川許氏) /1550년대추정		41	55	37	18	16	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888), 韓國服飾 第6號
6	고성이씨 이응태(李應台) /1556-1586		38	34	46	19	-	16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대학교 박물관편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
13	별내면 무연고 남자 분묘 /16세기 후반기 추정		51	56.5	42.5	26.5	21	21	국립민속 박물관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2011), (재)한백문화재연구원 편
28	사천목씨 /1657~1699		30	56.5	37.3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 편(2010), 파주 십지원 묘 및 신도비 유적- 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28책
29	사천목씨 /1657~1699		35	59.8	37				경기도 박물관	
34	청연군주 /1754-1821		15.5	33	26.5	11.5	-	9		
35	청연군주 /1754-1821		17.5	35	26.5	12	-	9.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83), 韓國服飾 第一號
36	청연군주 /1754-1821		23	63	30	14.3	-	11		
38	청연군주 /1754-1821		21	51	20	13.8	-	12	고려대 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1990), 服飾類名品圖錄, p.81
40	국가민속문화재 제53호		23.5	60	29.5	15	-	11	세종대학교 박물관	문화재청 편(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

양천허씨 묘 출토 저고리[No.5]는 겹감에 다양한 무늬의 소화문단을 여러쪽 이어 만든 겹 옷이다. 겹깃은 내어달린 목판 깃 형태이며 소매를 여러 조각 옷감[15+21+5+15.5]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함께 출토된 저고리와 크기의 차이를 보인다.

이응태 묘 출토 적삼[No.6]³²은 5~6세 정도의 동자 상의로 발표된 옷이다. 함께 출토된 저고리류 보다는 작은 치수의 모시로 만든 홑 옷이다. 소렴용으로 이응태의 얼굴 부위를 덮고 있었다고 한다. 깃은 6cm 너비의 목판 깃으로 겹깃은 내어달리고 안깃은 들여달렸으며 동정은 달리지 않았다. 소매는 반팔로 보이지만 끝 부분의 처리방법으로 보아 무언가가 달려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겨드랑이는 무를 별도로 붙이지 않고 한 쪽에서 그대로 둥글려 재단되었으며, 도련선을 말아 올려 마무리하였다. 겹깃 끝 중앙에 0.7×18cm 크기의 고름이 달렸다.

별내면 무연고 남자 묘 출토 저고리[No.13]³³는 여성용으로 추정되는 목판깃형 저고리 4점과 함께 출토되었다. 겹감과 안감을 명주로 만든 겹 옷으로, 옷의 부분 마다 각변 정도가 다르며 확인된다. 깃, 결마기는 자주색이며, 겹깃과 목판이 같은 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그리고 목판과 소매의 색상이 각각 다르게 변색되어 있다. 원래는 다양한 색 조합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목판깃 모양, 일자형 소매, 허리선을 덮을 정도의 저고리 길이, 겨드랑이 아래에 무가 있어 도련이 넓게 퍼지는 풍성한 옷 품 등 16세기 여자저고리의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32 이은주(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복식 고찰,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 조사 보고서, p.218.

33 이명은(2011), op.cit. pp.123-130, pp.160-161.



겉섶 펼친 모습

앞섶 안 쪽 모습

Fig. 14. 이응태 묘 출토 적삼. From,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Fig. 15. 별내면 무연고 묘 출토 저고리. Fro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사진.

심익창(沈益昌 : 1652~1725)의 후배위 사천목씨(泗川睦氏 : 1657~1699) 묘 출토 저고리는 깃, 끝동, 결마기, 고름을 자주색 별색으로 만든 회장저고리이다. 깃은 목판 당코깃 형태이며 옆선에는 1장으로 구성된 결마기가 달려있다. [No.28] 저고리³⁴는 겉감은 매화와 별무늬의 화문단이고, 끝동과 결마기는 다른 무늬의 화문단, 안감은 명주로 만든 겹 옷으로, 깃, 끝동, 결마기, 겹고름을 몸판 색과 다른 별색으로 만들었다. [No.29] 저고리는 겉감과 안감을 명주로 만들 겹 옷으로 깃, 끝동, 결마기, 고름을 자주색 별색으로 만든 회장저고리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청연군주(淸衍郡主 : 1754-1821) 묘 출토 저고리 3점은 모두 화문단으로 만든 겹 저고리로, 깃, 끝동, 결마기 등을 별색으로 만든 회장저고리 형태이다. 목판 당코깃에 깃과 결마기는 짙은 색으로 되어있으며, 소매는 좁으면서 길며 직배래 형태이다. [No.34] 저고리는 소매를 포함한 어깨선 부위는 무문단이고 아래 부분은 화도류수복문단(花桃榴壽福紋緞)의 2중 구조로 제작되어 [No.33] 당의 겉감 같은 구조이다. 원래는 무문단의 어깨 부분에 무늬가 금박 또는 금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No.35] 저고리는 깃, 몸판, 끝동을 소매와 달리하여 근대의 동다리 저고리 모습을 보이는 옷이다. 석류, 연화, 반장(盤長), 보병(寶瓶)등의 무늬로 이루어진 화문단을 사용하였다. [No.36] 저고리는 겉감은 다람쥐와 포도문단(葡萄紋緞)이고, 끝동은 봉황무늬이며 안감은 명주이다. 깃과 결마기는 짙은 색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 당코깃 모양에 소매는 좁으면서 길며 직배래 형태로 조선 후기 저고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박물관 소장 청연군주 묘 출토 저고리[No.38]³⁵의 겉감은 도류불수단, 깃, 끝동, 결마기는 무문단,



Fig. 16. 청연군주 묘 출토 저고리의 무늬 모습.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34 경기도박물관 엮음(2017). 의문의 조선 : 무늬. 서울:민속원, p.190, p.357, p.407.
경기도박물관 편(2010). 파주 심지원 묘 및 신도비 유적-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28책, p.394.
35 고려대학교박물관(1990). op.cit. p.81, p.236.



Fig. 17. 국가민속문화재 제53호 2벌 저고리. From,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2(2006),p264.

안감은 명주로 된 겹 저고리이다. 깃, 끝동, 겹마기를 목판과 별색을 사용한 회장저고리이다. 깃은 목판 당코깃 형태이며, 진동과 소매 부리가 좁은 직배래이다. 동정과 고름은 탈락되고 시침 자국만 남아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저고리[No.40]³⁶는 국가민속문화재 제53호 토황색 명주저고리이다. 이 유물은 겹저고리 두점이 끼워진 형태의 2벌 저고리이나 현재는 따로 분리되어 보관된 유물이다. 겹저고리는 무늬가 없는 공단[無紋緞]으로 되어 깃, 끝동, 겹마기가 짙은 갈색으로 된 삼회장저고리 형태이고 속저고리는 명주로 만들고 깃만 짙은 갈색인 반회장(깃부분만 갈색) 형태이다. 당의와 같이 청연군주 묘 출토 저고리와 비슷한 조형성을 보며 관련성이 있는 유물이다.

이상 총 10점의 저고리는 1500년~1700년대에 분포되어 여자 저고리의 변천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연군주 묘 출토 저고리 중 [No.36]와 [No.40]은 소매길이가 60 ~63cm로 긴 편이나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어른의 저고리 보다는 옷품이 29.5~30cm로 작은 편이어서 어린이 옷으로 분류되었다.

(4) 치마와 바지

치마는 여성이 저고리와 함께 입는 가장 대표적인 옷이다. 바지의 경우 남자는 저고리와 함께 겹옷으로 입지만 여성은 치마 안에 속옷으로 입어 남녀 사이에 착장 개념이 다른 옷이다.

Table 10. 여자 어린이 바지와 치마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총길이	허리둘레× 말기너비	치마폭	부리	기타	소장처	출처
10	완산이씨 여분묘 (문화류씨 家) /1500년대 후반 추정		57	62×3.2	143			고려대학교 박물관	미발표
11	완산이씨 여분묘 (문화류씨 家) /1500년대 후반 추정		74.5	41×9.8		49	밑위 29, 밑아래 33	고려대학교 박물관	미발표

문화류씨 家 완산이씨 여 분묘(16세기후반 추정)에서 출토된 치마와 바지는 형태는 어른의 옷과 동일하며 크기의 차이만 보인다. 치마는 모시로 만든 홑 옷으로 오른쪽 여밈의 치마이다. 바지는 삼베로 마든 단속곳형 홑 옷이며 가랑이 사이에 사다리꼴 무가 달린 합당고 형태이다. 허리말기 옆을 12cm 터주었으며 도련을 0.2cm 크기로 말아 감침질로 마무리하였다.

3. 기타

이외에 배넛저고리 2점과 소모자 1점이 있다. 성별이 구분이 모호하여 별도 분류하였다.

36 문화재청 편(2006), op.cit. pp.264-267.

Table 11. 배냇저고리와 소모자

순번	묘주/생물년	유물	길이	화장	품	진동	소매통	수구	소장처	출처
14	안정나씨 부인 용인이씨 /1500년대 추정		32.5	31	24	10	10.5	11	대전시립 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편 (2016), 그리움을 깊고 연정을 짓다.
21	해평윤씨 소년미라 /1600년대 전반		30.5	18	48	28	12	11.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22	해평윤씨 소년미라 /1600년대 전반		높이 12	지름 20	둘레 39				상동	상동

안정나씨의 부인 용인이씨(龍仁李氏) 무덤에서 출토된 삼베 홑 배냇저고리[No.14]³⁷는 1500년대 로 추정 되는 자료이다. 갓난아이의 약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목둘레에 깃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소매가 착수 형태 이다. 옆선 끝에 10.5m 너비 4.5m로 옷감을 쪽이음하여 주어 도련이 품보다 넓게 구성되어 있다. 옆선의 도련 끝은 3.5cm 정도 옆선이 트여 있다. 뒷길을 꼬집어 박았으며 섯과 무, 배래는 통솔로 하여 홑질하여 주었고 수구와 도련은 접어 홑질하였다. 깃선 끝에 긴고름[45cm], 앞섯쪽 길에 짧은 고름[20cm]을 달아 긴고름을 가슴에서 돌려 매듭하도록 하였다.

해평윤씨 소년미라의 배냇저고리[No.21]³⁸는 소년 미라의 관에 보공으로 넣어준 배냇저고리이다. 대소변 을 못 가리는 아이를 위해 뒤를 짧게 하여 돌보기 편하도록 하였고 손뚱에 얼굴이 긁히는 것을 보호하기 소매를 길게 하였다. 해평 윤씨 묘역 출토 배냇저고리는 뒤가 짧고 앞이 길어[전장후단(前長後短)] 배와 기저 귀를 덮어줄 수 있으며, 소매가 길어 손을 가릴 수 있는 형태이다. 명주 두 겹으로 되었으며, 안감에는 등솔기 가 없고 겹감에는 고대에서 6cm 길이 만큼만 바느질이 되어 있다. 깃은 고대 부분에만 11×2.2cm 크기로 좁고 짧게 달려 있으며 좌우 고대점에서 0.7cm 앞길쪽으로 넘어와 마무리하였다. 옆선에 1.5cm 정도의 트임 이 있다. 64.5×1.7cm, 33.5×1.7cm, 크기의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을 달아 몸통을 돌려 맬 수 있도록 길다. 옷을 완전한 후 도련의 가장자리를 0.5cm 간격으로 홑질 상침하여 주었다.

소모자[No.22]는 남성들이 신분의 구별없이 사용하였던 모자의 하나로³⁹, 감투(敢頭)라는 명칭으로도 쓰 였으며 형태가 여섯 조각[六瓣]⁴⁰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이 유물은 명주로 만든 겹 옷으로, 상부를 삼각형 여섯 조각[六瓣]을 합쳐서 잇고 아래는 일자형 무(武)를 둘러주어 만든 소모자이다. 안은 4조각으로 구성되었 다. 겹감의 단 너비를 1.5cm 정도 길게 하여 안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안쪽에는 단이 없다. 모자 끝 정수리에는 단추매듭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2×1cm 크기의 끈이 모자 안쪽으로 붙어 달려 있다. 봉제 방법은 시점을 0.5cm 정도 두고 고운 홑질로 바느질하였으며, 겹감 6조각을 이은 솔기는 오른쪽으로, 4조각 안감을 이은 솔기는 겹감과 반대쪽으로, 단을 이은 솔기는 단 쪽으로 시점을 넘겼다. 복원품을 착장하였을 때 영아기의 어린이에게 알맞은 크기이다.

37 대전시립박물관 편(2016), 그리움을 깊고 연정을 짓다. p.77.
부산대학교·대전시립박물관 편(2016),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134, p.260.
38 박성실(2002), op.cit. pp.261-308, p.265.
39 宣祖實錄, 선조 45권, 26년(1593) 윤11월 22일(임인).
'소모자(小帽子)'의 명칭과 함께 천인들도 쓰도록 명하고 있다.
40 李緯, 四禮便覽, 卷之一 冠 十.
소모(小帽)는 '감투(敢頭)'를 말한다고 하는데 紗, 羅, 緞 등의 옷감을 이용하며, 여섯 조각[六瓣]을 이어서 만든다고 하였다.

IV.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의 특징

1. 어른 복식과 조형성은 같고 크기는 작다.

앞선 내용을 통해 어린이 복식은 어른과 비교하여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조형성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영아기나 유아기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시각적으로 어린이 복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500년대는 의생활에 있어 옷 품을 크게 입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린이 복식을 판별하기는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함께 출토된 옷들과의 비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40점의 어린이 출토 복식 중에는 송효상 묘 출토 액주름, 마세준 묘 출토 남아 저고리, 양천허씨 묘 출토 여아 저고리, 별내면 무연고 남자 묘의 여자 어린이 저고리, 완산이씨 묘 출토 치마와 바지, 정휴복 묘 출토 액주름, 홍우협 묘 출토 중치막, 평양조씨 묘 출토 중치막, 탐릉군 묘 출토 중치막은 모두 동일 무덤에서 동일한 종류의 옷이 출토되었다. 각 복식의 깃, 소매, 옆선의 형태 등의 조형성이 어른의 옷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어른의 옷과 어린이의 옷을 겹쳐 보았을 때 뚜렷한 크기 차이를 보여 어린이 복식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Table 12. 동일 분묘 출토 동종 복식과 어린이 복식의 치수 비교

묘주	송효상 /1430~1490		마세준 /1491~1553		양천허씨 /1550년대 추정		별내면 무연고 남자 /16세기후반 추정		완산이씨 여자 /16세기후반 추정	
복식	어린이 액주름	액주름(2)	어린이 저고리	저고리 (2)	어린이 저고리	단저고리(1)	어린이 저고리	저고리(3)	어린이 치마	치마(1)
길이	87	104~108	53	65~78	41	56	51	50.5~54	57	80
화장	78.5	100~111	57	100~102	55	75	56.5	61~69	허리62	90
품	64	74~82	32	58~60	37	54	42.5	63.5~70.5	치마폭143	210
묘주	완산이씨 여자 /16세기후반 추정		정휴복 /1529~1604		홍우협 /1655~1691		평양조씨 /1600년대 중반 추정		탐릉군 /1663~1731	
복식	어린이 바지	바지(1)	어린이 액주름	액주름(1)	어린이 중치막	중치막(7)	어린이 저고리	중치막 (1)	어린이 중치막	중치막(9)
길이	74.5	103	92	114	70	118~125	86.5	130	102	117~128
화장	허리41	44	73	91.5	67	106~120	67	98	91.5	100~116
품	부리49	75	54	70	39	56~67	31	48	46.5	52~62



Fig. 18. 정휴복 묘 출토 액주름 비교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19. 완산이씨 묘 출토 액주름 비교
Fro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Fig. 20. 탐릉군 묘 출토 중치막 비교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21. 완산이씨 묘 출토 치마 비교
Fro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Fig. 22. 양천이씨 묘 출토 저고리 비교
Fro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Fig. 23. 완산이씨 묘 출토 바지 비교
Fro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2. 무늬없는 옷감의 사용

40점의 어린이 복식 출토 사례에서 겹감을 기준하였을 때, 화문단 등의 고급 옷감을 사용한 것은 양천허씨 저고리 1점, 사천목씨 저고리 1점, 청송심씨 당의 1점, 청연군주 관련 당의 4점과 저고리 5점이며, 나머지 28점은 명주, 면포, 모시, 삼베 등 무늬 없는 옷감으로 분포되어 있다. 청연군주와 같이 왕실 관련 옷이나 당의 등 의례복을 제외한다면 어린이 옷의 소재는 무늬없는 옷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자료가 더 추가되어야 올바른 분석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의 자료만으로 볼 때 아이의 옷을 지을 때 무늬 없는 단순한 옷감이 많이 사용된 것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일상적인 옷에 동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옷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24. 겹감 소재 분포도.



Fig. 25. 시대별 소재 분포도.

3. 유아기 남자아이 복식의 색 조합

조선 시대 어린이 복식에는 근대의 오방장 두루마기와 같이 색 조합을 하여 만든 옷들이 있으며 이러한 옷들은 대부분 유아기 이전 시기의 작은 어린이의 옷이었다. 해평윤씨 소년 미라의 중치막 3점이 대표적이며, 사당동 출토 어린이 액주름도 색을 조합하여 만든 옷이다. 깃, 몸판, 소매, 싹, 무 등의 부분 색상이 각각 다르게 변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에는 여러가지 색 조합으로 만들었음을 짐작할수 있다. 정조의 제 1왕자로 5세 나이로 요절한 문효세자(1782~1786)의 염의 중에는 쾌자와 함께 마련된 협수(夾袖)⁴¹ 중에 연두색 몸판에 다홍색 소매가 달린 옷도 있다. 이 들 옷은 근대에 유행한 오방장두루마기의 색 조합과 유사하다. 여자의 옷은 청연군주의 묘 출토 어린이 저고리와 같이 깃, 끝동, 결마기, 싹 등에 별색을 준 회장저고리 등으로 다양한 색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유년기에 해당하는 남자 아이의 옷에도 다양한 색을 조합하였음이 확인되며, 유아기 옷에 다양한 색의 조합을 사용하는 전통이 조선 중기에서 근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41 文孝世子 『瀕宮魂宮都監儀軌』(1786).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表 軟豆色花緞袖口大紅雲紋緞, 內 眞紅廣織



해평윤씨 소년묘 출토 중치막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오방장두루마기

Fig. 26. 색 조합을 하여 만든 어린이 복식 비교

4.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 맞춘 기능성 옷

어린이 옷에는 나이에 맞는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유아기의 경우 밑이 트여 있어 용변을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어깨끈을 달아 활동량이 많은 아이를 배려하였다. 또한 허리말기를 넓게 달아 배가 드러날 염려도 없도록 하여 아이의 건강을 배려하였다. 옷고름은 길게 하여 가슴을 둘러 매도록 하였는데, 활동량이 많은 아이의 옷섶이 가지런하게 되도록 한 것이며 나아가 가슴을 조여줌으로서 엄마 품과 같은 안정을 찾도록 하는 배려였을 것이다. 배냇저고리의 경우 부드러운 목선을 보호하고자 깃을 없애고 옷고름을 길게 한 것도 이러한 배려였을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어린이 출토 복식 유물 총 40점에 대해 면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 1) 현재까지 전해지는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의 시대 분포는 묘주의 생존 시기에 맞추어 1400년대 1점, 1500년대 13점, 1600년대 15점, 1700년대 2점, 1800년대 9점이다.
- 2) 복식 종류는 남자 어린이의 경우, 도포 2점, 액주름 4점, 중치막 6점, 저고리 4점, 바지 2점이 있으며, 여자 어린이의 경우, 당의 5점, 장옷 2점, 저고리 9점, 적삼 1점, 치마 1점, 바지 1점이며, 이외에 배냇저고리 2점과 소모자 1점이 있다.
- 3) 어린이 옷 출토 사례의 특징은 해평윤씨 소년의 묘에서 출토된 6점을 제외하면, 모두 수레로 넣어준 것들이다.
- 4) 해평윤씨의 중치막, 별내면 출토 액주름과 같이 유년기 남자 아이의 옷에서 근대의 오방장 두루마기와 같이 색 조합을 하여 만든 옷이 확인되었다.
- 5) 어린이 옷에는 나이에 맞는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아기의 경우 밑이 트여 있어 용변을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어깨끈을 달아 활동량이 많은 아이를 배려하였고, 허리말기를 넓게 달아 아이의 건강도 배려하였다. 배냇저고리와 같이 깃을 없애고 옷고름을 길게하여 아이의 목선을 배려하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아이의 옷섶이 가지런하게 되도록 배려하였다.

이상으로 밝혀진 출토복식에 나타난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의 특징은 연구 대상의 수량이 많지 않아 조선시대 어린이 복식을 대변하거나 조선시대 어린이의 의생활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겨진다. 추후 조선 시대 어린이 복식의 출토 사례가 축적되고, 연구가 이어짐으로서 조선시대 어린이 의생활이 확인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18세기)
 大典會通(1865).
 文孝世子 殯宮魂宮都監儀軌(1786)
 四禮便覽(18세기)
 宣祖實錄(1593)
 宋書續拾遺(1927)
 禮記
- 경기도박물관 편(2010). 파주 심지원 묘 및 신도비 유적-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28책.
 경기도박물관 엮음(2017). 의문의 조선 : 무늬. 서울:민속원.
 경기도 박물관 편(2010). 파주 심지원 묘 및 신도비 유적-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28책.
 고려대학교박물관(1990). 服飾類名品圖錄.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편(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광주민속박물관 편(2012.2). 문화류씨 장흥마씨 회곽묘 출토 유물.
 금중숙(2014). 충남 예산군 출토 어린이 도포(道袍)와 장의(長衣)의 복원연구, 韓服文化 17(1).
 김명자, 김명숙, 장인우, 이수봉(1999). 朝鮮時代服飾研究. 서울:學研文化社.
 김영숙(1997). 朝鮮 中期 權威 夫婦墓 出土 棺槨과 服飾, 博物館誌 第6號. 충청전문대학박물관 편.
 김종진 편저(2007). 광산부부인노씨장례일기. 서울:대비공원보존위원회 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1989). 한국복식 제7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편(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편(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출토복식.
 대전시립박물관 편(2016). 그림을 읽고 연정을 짓다.
 박성실(2002). 京畿道 楊州 海平尹氏 문중 신산 출토 남아 미라 복식유물에 관한 고찰,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서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부산대학교·대전시립박물관 편(2016).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박승원·이운경·유혜선(2008). 淸衍郡主墓 出土服飾 중 織金·附金衣의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과학 제9집.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편(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
 송미경(2016). 선성군 母子 묘 출토복식 고찰, 조선 왕실 선성군 母子의 특별한 외출. 경기도:경기도박물관.
 이명은(2011).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 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이명은(2013). 청주한씨 준민 일가 묘 출토 유물 고찰, 韓國服飾 31호. 경기도: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2000),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이은주(2013). 17세기 전기 정희현 배위 묘 출토유물 고찰, 하동할매들 안동나들이. 경북: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
 이은주(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복식 고찰,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 조사 보고서.
 장인우(2011). 18세기 당의의 형태적 특징과 사회적 논의, 역사민속학 제37호.
 충북대학교박물관 편(2006). 한성부 판윤 김원택 묘역 출토 복식.
 충청문화재연구소,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32집 禮山 沐理·新里 遺蹟 5卷.

A Study of Child Costume Relics of Joseon Dynasty - Focusing on Costumes Excavated -

Lee, MyungEun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tate of children's costumes of Joseon Dynasty that have been excavated so far, and based on this,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costumes of Joseon Dynasty and their value in terms of costume history.

The child costume relics of Joseon Dynasty that have been handed down are 31 in total. Classifying them by time, 13 were of 1500s, 11 were of 1600s, 1 of 1700s, and 5 of 1800s. As for costumes by kind, there are 2 *Dopos*, 3 *Aekjureums*, 6 *Jungchimaks*, a *Sochangeui*, a *Kwaeja*, 4 *Jeogoris*, and 2 pair of pants, which were boy costumes. Girl costumes were 3 *Dang-euis*, a *Jang-ot*, 5 *Jeogori*, a *Jeoksam*, a skirt, and a pair of pants. There are also two *Baenaet Jeogoris* and a small hat.

We can learn from the child costume relics of Joseon Dynasty that they were same in terms of the appearance, though different in size. Also, some clothes were of combined colors, most of which were for infants. The brilliant colors were used based on superstitions with the intention to protect the infants from evils. The costumes were made in consideration of func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The costumes for infants had open-crotch for easy urination and has suspenders on the pants for children with vigorous activities. The strings (*Otgoreum*) of *Jeogori* was long enough to wrap the chest around for active children, which also gave comfort by tightening the bosom to make them feel like being in mom's arms. The collar of *Baenaet Jeogori* was removed to have soft neck line and made the strings long for the same reason.

Keywords : Excavated costume, Mummy of Child Yoon(Haepyeong clan) *Dopo*(Gentlemen's coat) *Jang-ot*(Women's coat), *Jungchimak*(Men's coat with side slits), *Obangjang Durumag*(Boys' coat with Five Cardinal Colors)

근대 한국 아동복식의 변천 : 1884~1945

김정아*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 논문요약

19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식은 서양이나 일본의 복식문화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 발전해왔다. 남아와 여아의 복식의 변화에 있어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전통복식 착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서양복의 착용이 늘어난 점이나 전통복식의 부분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등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항 이후 유입된 서양 아동복은 성별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전했고 현대 아동복식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전통사회에 서구로부터 유입된 이질적인 문화가 융화되는 개항 이후를 중심으로 보았다. 문화와 역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과도기에 대한 연구는 항상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다양한 변화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식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짧은 시기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사회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아동복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아동복식의 변화뿐 만이 아닌 한국을 둘러싼 일본 및 동아시아 아동복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서양문화권 아동복의 흐름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아동복, 복식문화, 근대, 복식

I. Introduction

19세기 말 개항 이후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시대 전환기이다. 이 시기에 대두한 새로운 사상과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성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개항 이전 전통사회의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기만 작은 성인’으로 인식된 경향이 있어, 아동을 따로 배려하거나 존중한다는 개념이 희박했다. 18세기 후반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주장은 교육을 비롯한 아동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아동을 성인과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기를 인간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게 되었고,¹ 이러한 생각은 복식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거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시대에 따라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 시각은 다양하게 변해 왔지만, 한 집안의 대를 잇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점은

* Corresponding author : Kim, Jeong Ah, E-mail : thenandnow@hnu.net

| 투고일 | 2018.04.20 | 심사개시일 | 2018.04.25 | 심사완료일 | 2018.05.04 | 게재확정일 | 2018.05.10

1 Philippe Aries(2003). 아동의 탄생. 서울:새물결, p.68.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한 공통점이다. 아동의 중요성과 아동을 대하는 사회적 시각은 복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며 아동복에는 성인복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나 숨겨진 의미가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아동복식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유입된 서양 문화와의 접촉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아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생겨났다. 이 시기의 뚜렷한 시대적 변화는 아동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 말기까지 아동들이 착용해왔던 전통 복식은 점차 착용이 줄어들면서 서양복으로 대체 되어가고, 이 시기에 도입된 서양복은 현대 아동복식의 출발점이 되었다.

II. Background

현재까지 전통사회의 아동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육아와 아동의 학습서, 아동교육과 같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²들이 많다. 전통사회의 아동복식을 연구한 경우에는 풍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출생의례와 연관된 복식을 연구한 것³이나 성인복 연구의 한 부분으로 본 것이 많다. 전세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조선 후기의 아동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⁴는 유물의 상당수가 왕실이나 사대부 복식으로, 일반 서민 복식은 거의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개항 이후의 아동복식에 대한 연구⁵는 성인복식의 근대화 과정을 기초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아동복식의 변화 양상을 아동을 주제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개항기 이후 아동복식의 변화 과정을 아동을 주제로 사회·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하였다. 조선후기의 전통복식이 개항기 이후 유입된 서구 복식의 요소와 결합하여 수용되는 과정 역시 성인복식의 부속이 아닌 독립적인 아동복식으로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 복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전세유물, 풍속화나 기록화를 비롯한 회화자료와 신문기사 및 근대 이후의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내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을 일차자료로, 이 시기에 관한 연구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진자료는 『이화 100년사』, 『校洞百年史』, 『재동 100년사』,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등의 학교 관련 자료와 『빛·믿음·흐림: 한국교회사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화보집』, 『한국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등의 기독교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촬영연대가 분명하여 분석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다. 그밖에 『日本女子洋装の源流と現代への展開』, 『日本の子どもたち』, 『日本の子ども服物語』 등의 일본자료를 참고하였다. 복식은 크게 전통복식과 서양복으로 나누고 각각의 복식이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정리하였다. 서양복의 내용에는 단체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교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함께 언급하였다.

- 2 백혜리(1997). 조선시대 성리학·실학·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1986). 韓國傳統育兒方式. 韓國生活科學研究所 4. 漢陽大學校韓國生活科學研究所, pp.311-314.
유점숙(1994).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중문.
문미옥, 류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한국아동학회, pp.215-234.
신양재(1994). 朝鮮時代 風俗志에 나타난 兒童養育 考察.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한국가정관리회, pp.219-228.
- 3 고부재(1981). 濟州道 通過儀禮服의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진(1999). 첫돌 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례적 의미.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윤영,이혜영(2002). 아동용 전통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2). 한국의류학회, pp.1727-1738.
민하영, 유안진(2004). 한국의 출생의례와 아기행사 풍속의 문화간, 세대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4). 대한가정학회, pp.55-68.
민하영, 유안진(2003).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출생의례 및 아기행사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대한가정학회, pp.45-56.
추은혜(2000). 출생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부재(2007). 우리나라 乳兒儀禮와 服飾의 民俗 연구. 비교민속학 34. 비교민속학회, pp.245-274.
- 4 박성실(2000).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韓國服飾 제18호.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pp.43-98.
김기선(1985). 조선시대 동자복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운정(1999). 개화기 여자어린이 복식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상효(2000). 전통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서운정(1999). 개화기 여자어린이 복식 연구 : 사진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민(2003). 아동관을 통해 본 아동복 변화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범위는 일부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서민의 아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복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시대의 구분은 개항 이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1876년의 개항 이후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1884년 갑신정변, 1910년 한일병합, 1919년 3·1 독립운동, 중일전쟁 발발 이전인 1936년과 이후 시작된 장기간의 전쟁을 거쳐 공식적으로 일본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1945년으로 정했다. 한국 근대의 기점을 보는 시각은 18세기 후반 영·정조 시대를 시작으로 보는 것⁶을 비롯하여, 1860년대 동학발생⁷, 1876년 개항⁸, 1894년 갑오개혁⁹ 등 역사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복식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첫 시점을 1884년의 갑신정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이 주체적인 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변화를 처음으로 추구한 계기로 1884년의 갑신정변을 설정하고 있는 강만길의 이론¹⁰을 참고한 것이다.

아동의 연령 범위, 즉 아동기(兒童期)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아동을 대하는 태도 및 관행, 또한 그것을 둘러싼 사회제도 및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¹¹ 시대에 따라 아동기를 구별하는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아동은 15세 미만의 연령대로 한정하되 학령기에 이르는 9~12세 까지의 아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령의 기준은 전통사회의 관례를 치르기 전 연령인 동시에 근대사회에서는 소학교에 다니는 연령에 해당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이므로 시대를 막론하고 아동의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인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¹².

Ⅲ.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Boys' Fashion Change

1. 1884-1909년

(1) 전통복식

이 시기의 남아들은 허리선을 덮는 길이의 저고리와 바지통이 넉넉한 전통바지를 많이 입었다. 남아의 저고리와 바지는 상하를 동색으로 하거나 다른 색으로 입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밝은 색의 저고리와 바지를 많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신문에 실린 미아 광고를 보면 붉은저고리나 분홍저고리, 다홍저고리 등 붉은색 계열의 저고리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기사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남아들은 10세 이하의 아동이 대부분으로 비교적 어린 남아들의 붉은색 저고리를 많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의 붉은 저고리 착용은 조선시대 회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홍색 저고리와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붉은색 이외에는 보라색의 동다리 저고리도 입었고 무명이나 당목 등의 면소재로 만든 겹바지를 많이 입었으며, 어린 남아의 경우에는 두렁이나 풍차바지를 입었다.

「독립신문」 1896년 5월 14일

계흥 궁녀서 순검 리갑근이가 이틀 열흘날 사나히 으히 일흠 순갑이를 일히느니 붉은 당목 적오리에 당목 바지 입고
...후략...

6 유원동(1970).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 한국사시대구분론. 한국경제사학회. 서울: 을유문화사.

7 이원근(1970). 근대화의 기점문제와 1860년대의 한국. 위의 책.

8 조기준(1970).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성격. 위의 책.

9 천관우(1970). 위의 책. pp.344-346.

10 강만길(1986). 한국 근·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동아 8. 서울: 동아일보사.

11 김혜경(1997).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12 김정애(2011). 개항기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독립신문」 1897년 10월 26일

샤동 김참판 집에 있는 리쥬협 의 스세된 아들 갑룡이가 다홍 면주 적오리에 풍츠 바지 입고 ...후략...

저고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성인의 것과 동일하지만 남아는 한 쪽 고름을 길게 하여 가슴 부분을 돌려 묶어준 돌피 저고리를 많이 착용하였다. 저고리 중에는 고름을 없애고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개량 저고리도 있었다. 고름의 자리에 단추 하나를 달거나, 앞여밈 전체를 3개 이상의 단추로 여미는 저고리도 있어 전통 저고리의 형태에서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Fig. 1>의 남아는 저고리에 고름이 달려있고, <Fig. 2>의 남아들은 고름 대신 단추를 하나씩 단 저고리를 입고 있다.

또한 저고리의 겹살 부분에 색상을 배색해서 넣거나 <Fig. 3>처럼 소매의 색상을 달리한 동다리 저고리도 입었다. 여름에는 마소재의 홰저고리를, 겨울에는 솜저고리와 솜바지를 입었다. 저고리의 동정은 흰색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나 간혹 검정색의 동정을 단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의 복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Fig. 3>의 아동의 저고리와 <Fig. 4>의 지석영(池錫永)이 입은 저고리에 검정색의 동정이 달려 있다.

개항 이후 서양복의 유입과 함께 입게 된 조끼는 옷 자체에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는 편리함으로 착용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남아 조끼의 기본적인 형태는 앞을 3-4개 정도의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고, 주머니가 2-3개 달려 있다. 색상은 연한 색과 진한 색이 고루 사용되었다. <Fig. 6>은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남아들의 모습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이 입었던 두루마기는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계열이 많았는데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두루마기는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조선 말기 「독립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면 남아들이 당홍이나 분홍색 등 붉은색 계열의 두루마기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독립신문」 1896년 8월 25일

빅오기 하미전 뒤 리춘도 집에서 지칠석이란 사내 〇회를 일허는터 열세살먹고 당홍 현 모시 두루마기에 결은 현신 신고 현 두루주머니 안황나로 믈느러 차고 양스 오쇠 허리씩 문포 적삼 ...후략...



Fig. 1. Dolttijeogori - 1900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86



Fig. 2. jeogori - 1899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67



Fig. 3. jeogori - 1906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21



Fig. 4. jeogori - 1902

From, Kyengsinsa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7.



Fig. 5. jeogori - 1880's

From, Choe Injin(1999), p.109.



Fig. 6. Jokki - 1899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69.



Fig. 7. durumagi - 1900's,
From, Shin Gisoo(ed.)(2009), p.78.



Fig. 8. durumagi - 1900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76.

경우에 따라서는 두루마기의 무나 소매의 색상을 달리해서 입기도 하였다. 한쪽 고름을 길게 해서 가슴을 둘러맸던 돌피 두루마기도 많이 착용하였다. <Fig. 7>의 남아의 두루마기는 소매의 색상이 다르다.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아서 개량한 두루마기는 1900년대 초부터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으로 착용하기도 했고 1940년대까지도 꾸준히 착용되었다. <Fig. 8>의 소년은 단추로 여밈 처리가 된 개량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2) 교복과 서양복

양복(洋服)이라는 말은 1876년 최익현의 상소에 처음 등장하는데¹³ 19세기 중엽부터로 1895년 외국 복제(服制)가 공인되면서 양복(洋服)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¹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양복을 처음으로 착용했던 사람들은 별기군과 1876년 수신사나 조사시찰단으로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었다.¹⁵ 이후 서구문물을 먼저 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양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나 일반인의 양복 착용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로 보고 있다.¹⁶

최초로 양복을 입은 남아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서양문물을 접한 상류계층의 성인 남성이 양복을 빨리 착용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동일한 계층의 남아들이 먼저 양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Fig. 9>는 1884년의 사진으로 박영효의 옆에 있는 남아의 서양복은 허리선이 절개되어 앞 중심에 단추가 있는 노퍽 재킷(Norfolk jacket)의 형태이다. 노퍽 재킷은 1880년대 이래로 영국에서 즐겨 착용되었는데¹⁷ 허리에 벨트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Fig. 10>의 남아는 벨트가 있는 재킷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옷은 모두 성인 남성의 슈트(Suit)와 비슷한 형태이다. 아동이 착용했던 양복은 서양에서는 이미 1800년대에 유행하였는데 남아들이 교복으로 이러한 슈트를 많이 착용하였다. <Fig. 11>은 1863년 서양 남아의 모습이다.

이 시기에는 학교에 다닌다고 하여도 획일적으로 교복을 맞추어 입는 경우가 드물어 학생모로 학생신분을 표시하였다. 1800년대 말부터 학생모를 착용한 남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00년대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착용하였다. 학생모는 남아의 단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학생모를 쓰고 있는 남아들은 대부분 짧게 단발을 했다.

남학교 중에 최초로 교복을 착용한 것은 1885년에 설립된 배재학당으로 1897년에 당복(堂服)을 제정하여 입게 되었고 이것을 학생복의 시작¹⁸으로 보고 있다. 이 당복은 검은 양복으로 옷소매 끝 부분과 앞자락 단과 바지의 좌우 겹솔기에 청홍(靑紅)의 복선(複線)을 달고 교모(校帽)에도 태극을 상징하는 청·홍선을 두 줄로 넣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제복은 단체행동 시에만 착용되었고 평소에는 도포에 행전차림을 하였다²⁰고 하니

13 고종실록 13년(1876) 1월 23일

今倭之來者, 服洋服, 用洋袍, 乘洋舶, 此倭洋一體之明證也.

14 김진식(1990). 한국양복 100년사. 서울:미리내. p.46.

15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626.

16 남경미(2008).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 : 개항 이후 광복까지.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4.

17 라사라교육개발원(1991).服飾辭典. 서울:도서출판 라사라. p.123.

18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1989). 培材百年史. 서울:배재학당. p.68.

19 이규태(1969). 개화백경. 서울:신태양사. p.234.

20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1989). 앞의 책. p.68.



Fig. 9. Norfolk Jacket - 1884
From, Choe Injin(1999), p.86.



Fig. 10. Jacket - 1884
From, Dongailbo(1999), p.89.



Fig. 11. 서양복, 1863
From, <http://www.google.co.jp/imgres>



Fig. 12. durumagi - 1900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76.



Fig. 13. Graduation photo - 1909
From, Lee Jaejung(1990), p.72.

서양복의 교복이 보편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ig. 12>의 남아들은 검은 개량 두루마기에 베레모를 착용하였고, <Fig. 13>의 남아들은 다양한 색상의 두루마기를 입고 학생모를 착용하였다.

2. 1910-1918년

(1) 전통복식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남아들은 돌피 저고리는 여전히 많이 입었고 나이가 어린 남아의 경우에는 소매 부분에 배색을 한 동다리저고리나 색동저고리도 입었다. <Fig. 14>의 남아들은 동다리 저고리와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다.

두루마기는 주로 학교에 다니는 남아들이 많이 착용했는데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전통사회부터 남아들은 저고리와 바지를 색상이 있는 옷으로 착용해 왔으므로 이 시기에 새롭게 색의 착용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두루마기는 남아들이 통학복으로 착용하면서 사회의 흐름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1800년대 말에는 흰색의 두루마기를 주로 입었으나,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색상이 있는 두루마기의 착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보이는



Fig. 14. Doltijeogori - 1918
From, Chonju Seomoon church(1999), p.38.



Fig. 15. durumagi - 1913
From,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1997), p.55.



Fig. 16. durumagi - 1915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82.

두루마기의 색상은 주로 검은색, 회색, 갈색 등의 어두운 색상으로 흰색보다 실용적인 면에 더 적합하다고 하여 착용이 권장되었다. <Fig. 15>, <Fig. 16>의 남아 두루마기는 고름 대신에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데 단추는 한 개 혹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2) 교복과 서양복

1800년대 말에 서양복을 착용한 남아의 모습이 보이기는 했으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1910년대 일상생활에서도 서양복을 착용한 남아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복식과 함께 부분적으로 서양복의 일부를 착용한 모습은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케이프를 어깨에 두르거나 장갑을 착용하기도 하였고, 편물로 짠 목도리나 스웨터, 카디건을 입기 시작하였다. 서양복의 형태는 앞 중심에 단추가 달린 학생복 스타일의 재킷을 반바지와 함께 많이 입었는데 허리에 벨트를 하기도 하였다.

<Fig. 17>, <Fig. 18>의 아동은 두루마기 위에 턱받이 형태의 케이프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케이프는 전통복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형태로 서양복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유아들이 턱받이로 착용하는 ‘아부짱(あぶちゃん)’도 이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일본 아동복에서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부짱’은 일본의 유아들이 하는 턱받이로 ‘요다레가케(よだれ掛け)’라고도 한다. 본래 ‘아부짱’은 오미야마이리(お宮参り)²¹나 오쿠이조메(お食い初め)²²와 같은 일본 아동의 통과의례 때 하레기(晴れ着)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다.²³ <Fig. 19>는 일본의 아동으로 어깨에 ‘아부짱’을 두르고 있다. <Fig. 20>의 사진 속 아동은 폴링 칼라(falling collar)가 달린 옷을 입고 있다. 이와 같이 어깨를 덮는 넓은 칼라는 서양에서 19세기까지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Fig. 17>, <Fig. 18>, <Fig. 19>와 형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느낌으로 보인다. <Fig. 21>은 『朝鮮裁縫全書』에 실려 있는 ‘턱받기’ 만드는 법으로 <Fig. 22>의 일본 아부짱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Fig. 17. Cape - 1910, From. Gansong Museum(1991), p.65.



Fig. 18. Cape - 1900's From. Choy Seklo(ed.)(1994), p.74.



Fig. 19. Abuchang - 1905 From. Hinyou Tada(1992), p.26.



Fig. 20. falling collar - 1885 <http://www.wichitaphotos.org/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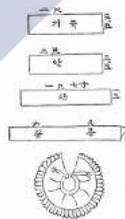


Fig. 21. Teokbatgi, From. Kim Sookdang(1925) 『 p.106.



Fig. 22. Abuchang - meiji period From. Hinyou Tada(1992), p.128.

21 倉石 あつ子·宮田 登·小松 和彦(2000). 人生儀礼事典. 東京:小学館, p.49. 출생 후 처음으로 마을의 수호신[氏神]에게 참배하는 것을 ‘하츠미야마이리(初宮参り)’ 혹은 ‘미야마이리(宮参り)’라고 한다. 남아는 생후 31일, 여아는 생후 33일을 전후로 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22 二木 謙一(1999). 中世武家の作法. 東京:吉川弘文館, p.205. 생후 백일 때가 되면 신생아에게 처음으로 첫 이외의 음식을 먹이는 행사를 하는데 이를 ‘쿠이조메(食い初め)’라고 한다. 일본 요리의 정식 상차림인 혼센(本膳)을 차려 팍밥[赤飯] 한 숟가락과 아채를 젓가락으로 조금씩 아이의 입에 가져가 먹이는 시늉을 한다.

23 弓岡 勝美(2007). 着物と日本の色. 東京:ピエブックス, p.168.



Fig. 23. From, *Hwangseongsinmun* - 1910. 9. 14.



Fig. 24. student hat - 1917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92.



Fig. 25. Graduation photo - 1913
From,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1997), p.55.



Fig. 26. Graduation photo - 1918
From, Kyodong Elementary School(ed.)(1994), p.25.

이 시기 남아들은 짧은 머리에 검은색 학생모를 착용했는데 하복(夏服)으로 흰색의 학생모도 착용하였다. 학생모를 쓰는 일이 많아지게 되자 신문 지면에는 학생모를 선전하는 광고들이 많이 실리게 되었다. <Fig. 23>은 1910년 「황성신문」에 실린 학생모자 광고이며, <Fig. 24>는 흰색과 검은색의 학생모를 착용한 남아들이다.

1910년대에 들어서도 남아들의 교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루마기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루마기의 색상은 점차 진한 색상이 많아졌다. 지역 혹은 학교에 따라 진한 색상의 두루마기가 나타나는 분포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남아들이 진한 색상의 두루마기를 좀더 빨리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918년이 되어도 학생들의 절반 이상의 남아들이 흰색의 두루마기를 착용한 학교도 있다. <Fig. 25>, <Fig. 26>은 서울에 위치한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남아들의 사진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흰색의 두루마기보다 진한 색상의 두루마기의 비율이 높다.

색의 착용을 언급함에 있어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흰색의 두루마기의 착용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고 진한색의 두루마기는 겨울에 착용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사진으로는 계절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 계절적인 요인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계절에 따른 복색의 선택과 더불어 사회적 색의 착용 권장이 옷의 색상을 바꾸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마기를 교복으로 착용하는 것은 이후로도 한동안 지속되었으며 서양복으로 교복이 바뀌기 이전에 두루마기의 색상은 대부분 진한 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3. 1919-1936년

(1) 전통복식

이 시기에도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여전히 단색의 저고리와 바지를 가장 많이 입었다. 깃의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돌피를 배색으로 하는 것도 남아의 저고리의 특징이며 드물기는 하지만 끝등에 배색을 한 저고리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소매의 색상을 다르게 한 동다리 저고리의 착용이나 조끼를 착용한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Fig. 27>의 왼쪽 남아가 입고 있는 저고리에는 깃 색상만 다르게 배색이



Fig. 27. *Jeogori, Baji* - 1925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252.



Fig. 28. *Dolti Jeogori* - 1930'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2004), p.81.



Fig. 29. *Dongdari* - 1936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45.



Fig. 30. *Jokki* - 1932
From, Lee, J. H(1998), p.12.



Fig. 31. *Jokki* - 1936
From, Shinsadong Church(2002)



Fig. 32. *Durumagi* - 1936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23.



Fig. 33. *Durumagi* - 1920
From, Saha Elementary School (ed.)(2008), p.98.



Fig. 34. *Durumagi* - 1920
From, Saha Elementary School (ed.)(2008), p.98.

되어 있고 <Fig. 28>의 아동들의 저고리는 끝동에도 배색이 되어 있다. <Fig. 29>의 아동은 동다리 저고리를 입고 있다.

조끼는 1800년대 말 이래 꾸준하게 입었던 것으로 일반 남아들이 입었던 것은 주로 단색의 조끼가 많았다. <Fig. 30>의 남아들은 모두 조끼를 입고 있다. <Fig. 31>의 남아들이 입은 조끼처럼 앞 중심부분을 절개하여 배색한 것도 있다.

이 시기의 남아들은 밝은 색상의 두루마기보다 검정색을 중심으로 하는 진한 색상의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다. 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까지는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물감을 보급함으로써 색의 착용을 장려하였다면 1930년부터는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먹물을 뿌리거나 관공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법을 실시하였다. 「동아일보」 1935년 3월 8일 기사를 살펴보면, 성인은 68%가 색의를 착용한 것에 비해 아동은 99%가 색의를 착용하고 있어 색의의 보급에 있어서는 성인보다 아동이 우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35년 3월 8일
色衣 입은 사람 六十八%가량

지난해三月一일 현재 부내 주요한 곳에서의 경성부 조사에 의하면 조사한 사람 대인 四천九百九人, 소아 一천七백五十九人, 모두 六천六百六十八人으로 그중 색의를 입은 사람은 대인이 三천 七백 三十二人이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대인이 一천 五백 七十七人, 소아가 二七二人이었다. 이를 백분비로 보면 색의를 입은 사람중 대인은 六十八퍼센트이요 소아는 九十九퍼센트이요 흰옷을 입은 사람중 대인은 三十二 퍼센트, 소아는 一퍼센트이었다.

〈Fig. 32〉의 남아들은 대부분이 진한색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Fig. 33〉의 남아의 두루마기는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깃의 색상을 다르게 했다. 〈Fig. 34〉는 두루마기의 여밈을 단추로 한 것이다.

(2) 교복과 서양복

전통복식과 함께 학생모를 착용하거나 편물 목도리, 멜빵 등의 서양 소품의 착용이 늘어났다. 〈Fig. 35〉에서는 저고리에 반바지와 멜빵을 착용한 남아가 학생모와 서양식 가방을 맨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36〉, 〈Fig. 37〉의 남아들은 각각 두루마기 위에 편물 목도리를 하고 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동양복 강습회 일정과 집에서 만드는 아동양복에 관한 기사가 신문과 잡지에 실리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는 아동양복 착용의 권유가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양복을 착용한 남아들도 좀 더 많이 눈에 띈다.

남아들이 가장 흔하게 착용했던 양복은 검정색의 재킷과 바지로 학생복 스타일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남학생들이 교복으로 가장 많이 착용했는데 유치원에서 소학교에 이르는 남아들이 대부분 착용했다. 1930년대에는 연한색의 학생복을 입기도 했는데 이 역시 남학생들의 교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였다.

이 시기에 남아들이 착용했던 양복은 주로 서양의 남아들이 착용했던 재킷과 바지로 정장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Fig. 38〉, 〈Fig. 39〉의 남아들은 각각 재킷과 바지, 모자를 착용하였다. 〈Fig. 40〉, 〈Fig. 41〉은 서양의 남아들로 앞의 사진과 유한한 느낌의 옷을 입고 있다.



Fig. 35. Boy whit bag - 1924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246.



Fig. 36. Knit scarf - 1932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395.



Fig. 37. Knit scarf - 1936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45.



Fig. 38. Boy in Western dress - 1920's
From, Ewha kindergarten(2001), p.24



Fig. 39. Boy in Western dress - 1932
From, Park Chewon



Fig. 40. Boy in Western dress - 1878
From, www.album1900.com /uk/0005_ukschooluniform/



Fig. 41. Boy in Western dress - 1900
From, www.english,illinois.edu/uk/0005_ukschooluniform/



Fig. 42. Sweater - 1932
From, Park Chewon



Fig. 43. Sweater - 1932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45.



Fig. 44. Sweater
From, Marion Sichel (1983), 1927, p.59.

이 시기에는 손으로 짠 편물 목도리나 스웨터 등을 착용한 남아들도 많아졌다. 1920년대부터 편물을 뜨는 법이나 관리 등에 관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어 이 시기에 편물을 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ig. 42〉, 〈Fig. 43〉에서 당시의 남아들이 착용한 편물 카디건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솔칼라에 앞 중심에 단추가 달린 형태를 입고 있어 이러한 스타일이 유행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Fig. 44〉는 미국 패션지에 실린 남아의 카디건으로 앞선 사진의 남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이 시기의 남아들이 입기 시작한 옷 중의 하나는 세일러복이다. 세일러형 아동복은 1846년에 화가 프란츠 사버 빈터할터(Franz Xaver Winterhalter, 1805-1873)²⁴가 그린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의 에드워드 왕자 초상화에 처음 등장한다.²⁵ 우리나라에 세일러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경으로 남아와 여아가 거의 동시에 세일러복을 착용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아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세일러복을 교복으로 착용하기도 했으나 남자는 세일러복을 교복으로 착용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아들이 세일러복을 입었다면 남아들은 비교적 어린 연령대에서 세일러복을 주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Fig. 45〉는 프란츠 사버 빈터할터가 그린 에드워드왕자의 초상이다. 〈Fig. 46〉의 남자는 세일러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Fig. 47〉과 유사하다.

그 밖에 남아들이 착용한 서양복의 형태로는 셔츠와 모직 코트 등이 있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서양복을 착용하는 남아의 빈도가 높아지고 서양복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Fig. 48〉의 남자는 셔츠와 반바지, 타이를 하고 있으며 〈Fig. 49〉의 남자는 모직 코트를 입고 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형태의 모자를 쓰는 아동들도 늘어났다. 〈Fig. 50〉와 같이 귀를 가리는 모자를 쓰기도 했다. 이는 전시 상황 하에 공군 조종사들이 썼던 모자[aviator pilot hat]와 유사한 느낌으로 둥근 형태에 귀를 가리도록 되어 있다. 〈Fig. 51〉은 일본 남아들의 모습으로 공군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Fig. 45. sailor suit - 1846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ailor_suit



Fig. 46. sailor suit - 1932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274.



Fig. 47. sailor suit - 1877
From, <http://www.gettyimages.com/detail/82111328/Science-Faction>



Fig. 48. Western dress - 1920's
From, Shinsadong Church(2002), p.260.



Fig. 49. Western dress - 1936
From, Shinsadong Church(2002)



Fig. 50. Hat - 1932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16.



Fig. 51. Hat - 1943
From, Hinyou Tada(1992), p.39.

²⁴ Franz Xaver Winterhalter

독일의 화가로 19세기 중반의 왕실 초상화로 알려져 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20X1749257>. 2010년 10월 검색

²⁵ 鳥居本 辛代(1999). 大正浪漫期の子供ファッション-『土井子供くらし館』所蔵品から. 繊維製品消費科学40(12). 日本繊維製品消費科学会. pp.12-15.

1920년대에 접어들어 교복으로 양복을 착용하는 학교들이 늘어가면서 1930년대에는 전교생이 양복을 교복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교복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규율에 의하여 교복의 색상 및 형태가 자세히 정해졌으며 외출할 때도 교복을 입어야 했다.²⁶

1920년대부터 많이 보이는 양복 교복의 형태는 재킷과 긴바지 또는 반바지와 학생모로 구성되어 있다. 재킷의 앞 중심에는 5개의 단추가 달려있고 칼라의 모양은 턴오버 칼라(Turn over collar)나 스탠드 칼라(Stand collar)가 많았다. 색상은 주로 검은색이 많았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검은색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1922년 기사로 군수가 전북 지역의 학생복 색상을 검은색으로 지정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2년 6월 28일

學生制服黑色實行

全北扶安郡守白定基氏는 赴任以來 行政上好成績을 擧한바 近日管下 公私立學校學生衣服을 黑色制로 一致實行할 決心下에 各校長의게 面諭하야 七月一日부터 徹底實施코저하는 中이라더라(岫浦)

서양 학생복의 경우 남학생과 소학교의 남아들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착용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남아들의 교복에서는 흰색의 셔츠 칼라를 검정 재킷의 밖으로 꺼내 입기도 하였다. 교복 자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착용의 방법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에 모든 학교가 이러한 착용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1894년에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살펴보면 두루마기에서 양복으로 교복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927년까지 대부분의 학생이 <Fig. 52>와 같이 두루마기를 교복으로 착용하고 있으나 1930년부터는 <Fig. 53>과 같이 양복을 교복으로 착용하고 있다. 1936년 사진에는 <Fig. 54>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재킷 밖으로 흰 칼라를 꺼내 입었다. 그러나 모든 학교들이 양복을 교복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어서 동시대의 다른 학교들 중에는 여전히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개항 이후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스포츠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1920년대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이 주최한 전국 야구대회 및 축구 대회의 행사로 티셔츠와 바지 같은 현대적인 스포츠웨어를 착용하게



Fig. 52. School uniform - 1927
From, Kyodong Elementary School(ed.)(1994), p.36.



Fig. 53. School uniform - 1930
From, Kyodong Elementary School(ed.)(1994), p.37.



Fig. 54. School uniform - 1936
From, Kyodong Elementary School(ed.)(1994), p.38.



Fig. 55. Baseball uniform - 1930
From, Kyodong Elementary School(ed.)(1994), p.52.



Fig. 56. Boy Scout uniform - 1927
From,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1997), p.100.

26 국사편찬위원회(2005). 앞의 책, pp.353-354.

되었다.²⁷ 1922년에 한국 최초로 보이iska웃이 창립되면서 이 단체에 속한 남아들은 보이iska웃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Fig. 55>에서 야구복을 착용한 남아들을 볼 수 있으며, <Fig. 56>에서는 보이iska웃 복장을 착용한 남아들을 볼 수 있다.

4. 1937-1945년

(1) 전통복식

나이가 어린 남아들은 여전히 돌피 저고리를 착용하였고 저고리 위에 조끼도 많이 입었다. 저고리와 바지의 색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체로 진한 색상을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인다. <Fig. 57>의 남아들은 대부분 진한 색상의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는데 저고리에 돌피가 달려있다. <Fig. 58>의 남아들은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저고리와 바지의 착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일반 남아들이 서양복을 많이 착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복식의 착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전 시대에 비해 전통복식의 착용이 줄어들고 두루마기의 착용도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진한 색상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Fig. 59>의 남아들은 대부분 검정 두루마기를 착용했다.



Fig. 57. *jeogori* - 1938
From, PCK Sawol Church(1999), p.2.



Fig. 58. *Jokki* - 1940
From, Lee, J. H(1998), p.10.



Fig. 59. *durumagi* - 1937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36.

(2) 교복과 서양복

193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양복업계는 급성장하여 서울에 있는 양복점 수가 400여 개에 이르렀으며²⁸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신문에는 아동의 양복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렸다. 성인 남성의 양복에 관한 기사는 양복의 유행 및 양복의 정식(正式) 착용에 관한 것이 많았다²⁹면 아동 양복의 경우에는 양복에 관한 상식이나 양복 만들기 강습에 관한 기사가 빈번하게 실렸는데 주로 집에서 만들어 입히기를 권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동아 전쟁’의 영향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군복풍의 양복이 성인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국방색의 스탠드칼라의 재킷에 주머니가 달린 ‘국민복’이 등장하여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착용하였다. 이러한 남성 양복의 흐름은 남아들의 양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서 남아의 서양복은 다양해졌고 남아의 양복 착용비율도 늘어났다. 남아들이 가장 많이 착용했던 양복은 재킷과 바지로 교복으로 착용했던 것 이외에도 싱글 재킷이나 더블 재킷이 있었다. 겨울에 남아들은 길이가 긴 모직 코트를 입었으며 스웨터나 카디건 등의 편물도 착용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세일러복을 착용하는 아동들이 많이 늘어났다. 세일러복의 기본 형태는 흰 바탕의 세일러 칼라에 감색의 두 줄 선 장식을 하거나 반대로 감색 바탕의 세일러 칼라에 흰색으로 두 줄의 선 장식을 한 것이 많은데 남아들은 상의와 동색이나 배색의 반바지 혹은 긴바지와 함께 입었다.

²⁷ 김진식(1990). 앞의 책, p.104.

²⁸ 김진식(1990). 앞의 책, p.113.

²⁹ 남경미(2008). 앞의 책, p.87.



Fig. 60. Western Dress - 1938
From,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1997),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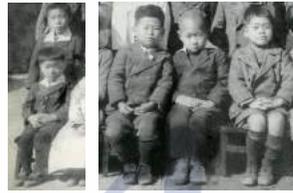


Fig. 61. Western Dress - 11942,
From, Ewha kindergarten(2001), p.17.



Fig. 62. Western Dress - 1940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214.



Fig. 63. Western Dress - 1943
From, Ewha kindergarten(2001), p.203.

〈Fig. 60〉의 남아들은 코트를 입고 있는데 교복 위에 입은 것으로 보인다. 〈Fig. 61〉의 남아들은 싱글 재킷과 더블 재킷을 입고 있는데 싱글 재킷 밖으로 셔츠의 wing 칼라를 밖으로 꺼내 입었다. 〈Fig. 62〉, 〈Fig. 63〉은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남아들의 모습이다.

나이가 어린 남아들은 앞치마를 착용하기도 했는데 주로 어깨에 걸쳐서 등 뒤에서 묶어주는 형태이다. 아동이 앞치마를 한 모습은 일본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본의 아동들은 1800년대 말부터 전통복식 위에 앞치마를 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일본 아동들도 전통적으로는 앞치마를 하지 않았는데 서양 복식에서 영향을 받아 앞치마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과 일본의 아동들이 착용했던 앞치마가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앞치마를 착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Fig. 64〉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 한국 남아의 모습이다. 〈Fig. 65〉, 〈Fig. 66〉은 일본 남아들이 전통복식 위에 앞치마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이 착용했던 앞치마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1920년대 이후에 양복으로 바뀐 아동의 교복은 193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형태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일본의 전쟁 돌입으로 인해 물자절약이 권장되면서 교복의 소재나 부분적인 재료 등이 바뀌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의 1938년 8월 5일 기사를 보면 교복의 단추를 사기 단추로 바꾸는 등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금속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동아일보」 1938년 8월 5일

校服 단추·帽票 砂器로 變한다

대학생들이 자랑하던 명예의 금단추나 모교의 명예스런 상증인 모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니 대신 등장한 것이 사기



Fig. 64. apron - 1941
From, Ewha kindergarten(2001), p.201.



Fig. 65. apron - 1902
From, Hinyou Tada(1992), p.25.



Fig. 66. apron - 1938
From, <http://www.google.co.jp/imgres?imgurl>

단추에, 사기모장, 운동회메달도 나무로 사기로 하게 될 것이라 질그릇 제품이 단연코 머리를 듣게 되었다.

1938년까지 검정색의 학생복을 입는 학교가 많았으나 성인 남성복에서 국민복이 제정되자 남아들의 교복도 국민복의 형태에 가깝게 변화했다. 성인 남성이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남아들의 교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방색의 교복으로 점차 변화했다. 그러나 물자절약을 우선시 하였고 때문에 모든 학생의 교복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동아일보」 1939년 2월 26일

學生에도 國防服 廿七日 專門大學校長會議서 協議

지난 二월 三일 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等商業學校)에서 개최된 각전문학교 생도주사회의(生徒主事會議)에서는 생도의 제복에 대하여 지질(地質)빛갈, 모자, 구두 등에관한 제의가 있었다. 이것은 시국하 물자대책에 영향되는 배가 만흐므로 총독부에서는 오는 二十七日 오후 二시에 총독부제 三회의실에서 경성부내소재 각 전문학교장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속히 의견을 통일시키기로 되었는데 학생생도에게도 국방색 스프복을 착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1939년 2월 26일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스프복’은 인조섬유인 ‘스테이플 화이버(staple fiber)’로 만든 옷을 말한다. ‘스프’라는 명칭은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일본에서는 스테이플 화이버를 줄여서 ‘스푸(スフ)’라고도 불렀다. 일본에서는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의복재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면화와 양모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들의 대용품으로 나온 것이 스테이플 화이버였다.³⁰ 스프는 모든 의류제품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학생들의 교복과 학생모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일본의 사정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당시 우리나라 의복에도 ‘스프’가 많이 사용되었다.

〈Fig. 67〉의 1938년 교복에서는 남아 전원이 검정색 교복을 입고 있으나 이후 〈Fig. 68〉처럼 국방색 교복의 착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7. School uniform - 1938
From, Jaedong Elementary School(ed.)(1994)



Fig. 68. School uniform - 1945
From, Jaedong Elementary School(ed.)(1994)

IV.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Girls' Fashion Change

1. 1884-1909년

(1) 전통복식

이 시기의 여아의 저고리는 대체적으로 가슴 부근에 이르는 짧은 길이가 많은데 가슴선을 덮는 길이의 저고리나 간혹 허리선에 이르는 길이의 긴 저고리도 착용되었다. 1900년대의 저고리 중에는 가슴선을 겨우 가릴 정도의 매우 짧은 저고리도 있어서 치마 허리부분이 많이 노출되었다. 깃과 고름의 색상을 달리 한

30 増田美子(2010). 日本衣服史. 東京:吉川弘文館. pp.348-350.



Fig. 69. *jeogori* - 1898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3.



Fig. 70. *Dolttijeogori* - 1909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25.



Fig. 71. *Dolttijeogori* - 1909
From, Jin Myung Yeo Middle and High School(1981) p.10.



Fig. 72. *Saekdongjeogori* - 1902-1903
From, Rossetti, Carlo (2009), p.267. p.127.



Fig. 73. *jeogori whit button* - 1909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27.

것이나 쉼 부분의 색상을 달리한 저고리도 있었다. 나이가 어린 여아의 저고리에는 길과 같은 색 혹은 배색의 돌띠 고름이 달려 있어 가슴 부분을 한 바퀴 둘러서 묶어 주었다. <Fig. 69>는 짧은 길이의 저고리를 입은 여아의 모습이며 <Fig. 70>은 돌띠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아의 모습이다. <Fig. 71>에 보이는 여아의 저고리는 쉼 색상을 다르게 한 것이다.

소매나 쉼을 색동으로 장식한 색동저고리도 많이 보이는 형태이며, 간혹 저고리에 고름이 없이 단추 등으로 여밈을 처리한 것도 있다. 이러한 개량 형태는 주로 학교나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여아들의 저고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Fig. 72>는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아의 모습이며 <Fig. 73>의 여아들은 1909년의 제주 신성여학교의 학생들로 고름이 없이 단추로 여민 저고리와 셔츠형으로 개량한 저고리를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으므로 치마허리가 보이는데, 치마허리는 일반적으로 흰색의 옷감을 사용하여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시기 여아의 치마 중에는 치마의 색상과 치마허리의 색상을 동일하게 한 경우가 보였다. 이와 같은 형태는 조선시대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개항 이후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Fig. 74>의 사진에서 여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치마를 살펴보면 치마허리와 치마의 색상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74. *jeogori, chima* - 1900
From, Kim Wonmo, Jung Seonggil(1986), p.100.



Fig. 75. *jeogori, Baji* - 18C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2002) p.97.



Fig. 76. *Pungchabaji* - 1902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03.



Fig. 77. *Chima* - 1897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2.

저고리 위에 풍차바지나 치마를 착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와 같은 착용법은 조선시대의 풍속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Fig. 75>은 담와 흥계희의 평생도로 어린 아동이 저고리 위에 풍차바지를 입고 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여아가 짧은 저고리를 입을 경우에 많이 보이는데 조끼허리가 보급되기 이전에 짧은 저고리를 입고 활동할 경우 치마가 저고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착용법은 이 시기 이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같은 시기의 남아에게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Fig. 76>, <Fig. 77>의 여아는 각각 저고리 위에 풍차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다.

1896년 이후의 「독립신문」의 미아찾기 광고를 살펴보면 여아의 저고리 색상은 다홍이나 흰색, 분홍 등이 언급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붉은색 계열이다. 치마도 붉은색으로 입어 저고리와 치마 모두 붉은색인 경우도 있다. 저고리와 치마를 붉은색으로 입었던 것은 이화학당의 초창기 시절 어린 소녀들이었다.³¹ 처음에는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 입은 모습이 기이하게 보였다³²고 했는데, 이 무렵에는 아동들이 상하를 동일 색상으로 입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독립신문」, 1896년 10월 24일

남셔 즈니 석중동 박주경의 딸이 다섯 살이 되얏는디 붉은 적오리 붉은 초마 겨른 당혀 자주 면주 당기 드린 으히를 일허스니 누구 던지 보거든 빈오기 포목 전으로 차자 보내되 만일 숨긴쟈가 잇스면 경무청에 잡힐 듯 허더라

「독립신문」, 1896년 11월 14일

북부 누각골 김지환의 다섯살 된 계집으히가 홍양목 적오리 치마 자주 면주 당기 홍목 당혀 신고 나가서 집을 일코 안 드려 오니 누구던지 보거든 계 집으로 보내되 만일 숨기면 경무청에 잡힐 듯 허더라

(2) 교복과 서양복

서양복이 서구 문물을 빠르게 접했던 계층에서 주로 착용되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시기의 부유한 가정의 아동들도 양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인 여성이 아닌 여아가 양복을 착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자료가 없어 이를 증명하기는 힘들다.

이 시기의 고아원 아동들이 착용했던 옷 중에 스모크(smock)와 비슷한 형태의 덧옷이 많이 보인다. 스모크는 중세 유럽인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요크가 있으며 길이는 무릎에서 종아리 길이에 이르고 면이나 린넨(linen)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슈미즈(chemise)로도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이후에는 예술가들이 즐겨 착용했고 20세기 이후 어린 아동과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복식이 되었다. 스모크는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일부 아동들이 착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Fig. 78>은 1896년 르느와르의 Fig.에서 보이는 스모크를 입은 아동의 모습으로 <Fig. 79>의 1890년도 고아원의 아동들이 입고 있는 옷과 거의 유사하다. 서양에서는 스모크가 여아들이 입는 장식성이 많이 가미된 원피스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시기의 우리나라 아동들은 스모크를 단독으로 착용하기보다 다른 옷의 맨 위에 입어 주로 겹옷의



Fig. 78. smock, 1896, Renoir
From, <http://www.ibiblio.org/wm/paint/auth/renoir/renoir>



Fig. 79. smock - 1890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6.

31 이화 90년사 편찬위원회(1975). 이화 90년사. 서울:이화여자고등학교, p.64.

32 민숙현·박해경(1981). 앞의 책. 서울:지인사, p.112.



Fig. 80. *durumagi* - 1894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29.



Fig. 81. School uniform - 1907
From, Choy Seklo(ed.)(1994), p.61.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여아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단체는 주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학당 등으로 이 단체들에서는 대부분 통일된 한복을 입혀 현재의 교복과 같은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남아들이 통학복으로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던 것과는 달리 여아들은 통일된 색상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고아원이나 보육원과 같은 곳에서는 간혹 단체복으로 두루마기를 통일하여 입히기도 하였다. <Fig. 80>은 1894년의 고아원의 모습으로 모든 아동들은 진한 색상의 두루마기를 똑같이 입고 있다. 1907년에는 숙명여학교에서 최초의 양복교복을 채택하였으나 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3년 후에 한복으로 돌아갔다.³³ <Fig. 81>은 숙명여학교에서 입었던 최초의 서양복 교복으로, 원피스형태로 자주빛이었다고 하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다.

2. 1910-1918년

(1) 전통복식

1910년대에는 가슴을 웃도는 극도로 짧은 저고리가 있는가 하면 허리선에 이르는 긴 길이의 저고리도 동시에 나타났다. 치마는 발목에 이르는 긴 길이로 전통적인 일직선형 허리가 달려 있는 자락치마가 많았으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어깨허리가 고안되면서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기도 했고 통치마의 형태도 나타났다.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는 착용방법은 19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어깨허리의 보급으로 저고리 위에 치마를 착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치마와 치마허리의 색상을 동일하게 한 치마가 많이 보이며, 1910년대에는 매우 굵은 주름이 잡힌 치마가 등장하였다. 주름의 형태도 조선시대 치마에서 보이는 외주름 뿐 아니라 맞주름의 형태로도 나타나 서양복의 스커트 형태를 모방한 느낌을 준다.

19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치마 밑단의 일정 부분을 접어 층을 낸 형태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1920년대에 더 많이 나타난다. 1900년대 미국 여성의 패션을 살펴보면 치마의 아랫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접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패션은 이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여성 선교사를 비롯한



Fig. 82. *Chima* - 1915,
From, Kyunggi Alumnae
Association(2009) p.18.



Fig. 83. *Chima* - 1903
From, Kim Wonmo,
Jung Seonggil(1986) p.226.



Fig. 84. *Chima* - 1918
From, <http://www.cmstory.org/1900/default.asp?heading=4&page=21>

33 유수경(1989). 한국여성양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4.

서양 여성들이 착용한 옷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이러한 유행을 우리나라 한복 치마에도 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Fig. 82〉의 여아들은 모두 흰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데 맞추름이 굵게 잡혀 있는 치마와 단을 접은 치마를 볼 수 있다. 〈Fig. 83〉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H N Allen)의 부인의 치마와 〈Fig. 84〉의 여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원피스도 밑단이 접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교복과 서양복

일부 학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의 아동들을 제외한 일반 아동들은 한복을 주로 착용하였다. 여학교의 교복도 대부분 색상을 지정한 한복이 많았다. 이화학당 및 호수돈여숙,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여학교를 중심으로 흰색의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거나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여 입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옷을 만들어 입혔기 때문에 그 형태가 획일하지 않았다. 〈Fig. 85〉의 사진 속 대부분의 여아들이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혹은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여아들은 교표를 저고리에 달아서 학교를 표시하기도 했다.



Fig. 85. Graduation photo - 1914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176.

3. 1920-1936년

(1) 전통복식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허리선을 옷돌거나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비교적 긴 길이의 저고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저고리의 길이나 소매통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1910년대부터 짧아지기 시작한 치마는 여학생들의 교복인 통치마를 중심으로 종아리에서 무릎에 이르는 길이를 유지하였다. 굵은 주름을 잡은 치마가 많이 보였지만 주름의 폭이 좁은 치마도 동시에 착용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 치마 단을 접은 모양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한 단을 접는 것에서 두 단, 세 단에 이르기까지 층을 내어 입었다. 치마 단에 층을 내어 입는 형태가 성인 여성의 치마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학생 이하 여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에 있는 여아들의 치마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치마단의 층을 접어 입는 것은 장식성 외에 여아의 성장에 맞추어 치마 길이를 조절하여 입히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³⁴으로 보인다. 〈Fig. 86〉, 〈Fig. 87〉은 여아들의 치마 단에 층을 낸 모습으로 치마의 길이는 대부분 종아리 정도에 이르며 한 단에서 여러 단까지 층을 낸 것을 볼 수 있다.

1920년대 초반부터는 치마의 단에 흰 선을 장식하는 유행이 있었다. 이 당시 여학교 학생들의 교복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한복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구별이 되지 않아 치마 단의 장식으로 각 학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고 한다.³⁵ 흰 선을 한 줄 또는 두 줄을 가지런하게 장식하기도



Fig. 86. Chima - 1932
From, Park Chewon



Fig. 87. Chima - 1930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35.

34 김정아(2002). 앞의 책, pp.71-72.

35 위의 책, p.279.



Fig. 88. *Chima* - 1930,
From, Chunggyogyhoeon Elementary School(1996)



Fig. 89. *Chima* - 1934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57.



Fig. 90. *Chima* - 1936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421.



Fig. 91. *Chima* - 1900's
From, <http://freepages.genealogy.rootsweb.ancestry.com/~larsonmorgan>



Fig. 92. *Chima* - 1930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 p.193.



Fig. 93. *Chima* - 1933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375.



Fig. 94. Belt with *Chima* - 1924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246.



Fig. 95. Belt with *Chima* - 1930's
From, Ewha kindergarten(2001), p.47.



Fig. 96. belt buckle, 20c
From, Chang Pudeok Memorial Gallery(1999) p.133.

했고, 두 줄의 흰 선을 교차시켜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장식하거나 간혹 흰 선으로 모양을 내어 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도 했다. <Fig. 88, 89, 90>의 여아들의 치마 단에는 흰선의 장식이 되어 있다. 치마단에 선 장식을 넣는 유행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이르기 까지 서양복에서도 많이 보였던 장식이었다. <Fig. 91>은 1900년대 초의 원피스로 치마단에는 모두 선장식이 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아들의 서양복 착용이 늘어나게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옷감의 사용도 증가하게 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체크나 스트라이프 등 전통시대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옷감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Fig. 92>, <Fig. 93>에 보이는 여아의 치마에는 체크와 스트라이프 등의 옷감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여아가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벨트를 하는 유행이 있었다. 1940년대 평양 지방의 여성 복식의 연구에서는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묶었는데 '각대' 또는 '각띠'라고 부른다고 하였다.³⁶ 사진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 이미 벨트 착용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지역이나 연령의 한정이 없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Fig. 94>, <Fig. 95>는 여아들이 치마 위에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Fig. 96>은 20세기 초의 띠고리로 벨트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2) 교복과 서양복

1920년대는 서양복이 일반 아동들에게도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한복에 서양복을 함께 착용하

36 임선혜(2005). 1940년대 평양지방의 혼례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Fig. 97. Coat - 1927
From, Ewha kindergarten(2001), p.198.



Fig. 98. one-piece dress - 1927
From,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ed.)(2004), p.284.



Fig. 99. one-piece dress - 1900's
From, <http://www.google.co.jp/imgres?imgurl=http://www.album>



Fig. 100. Ribbon - 1934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ed.)(1991),p.46.



Fig. 101. Ribbon - 1900's
From, <http://collectdolls.about.com/library/clip/blcipimg65.htm>



Fig. 102. Ribbon - 1910's
From, Hinyou Tada(1992), p.27.



Fig. 103. sailor suit - 1880
From, Anna MacPhail(1999), p.110.



Fig. 104. sailor suit - 1922
From, Hinyou Tada(1992), p.55.



Fig. 105. sailor suit - 1923
From, Chungjugyohyeon Elementary School (1996),

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복 위에 두루마기 대신 코트를 입거나 저고리와 플리츠 스커트를 함께 입기도 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서양에서 들어 온 모자를 착용하거나 원피스나 블라우스, 스커트 등의 서양복을 착용한 여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주로 선교단체에 소속된 보육원 같은 곳에서 단체복 개념으로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Fig. 97> 여아는 한복 위에 코트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98>의 여아들은 모두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이와 같은 스타일은 <Fig. 99>에서 볼 수 있듯이 1900년대부터 서양의 여아들에게 유행했던 스타일이었다.

여아 중에는 단발을 하고 머리에 핀을 하거나 커다란 리본으로 장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리본장식은 서양에서는 1900년에서 1910년대에 유행하였고, 일본에서는 메이지시대에 여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였다.

<Fig. 100>의 1934년의 여아의 모습으로 <Fig. 101>의 서양 여아들이나 <Fig.102>의 일본 여아의 여아는 머리모양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1920년대의 여학생들은 대부분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 치마를 교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에 따라서 저고리나 치마의 색상을 달리하여 착용하기도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양복 교복에 앞서 1923년 블루머 스타일의 체조복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교복도 점차 양복화 되었다.³⁷

이 시기에 세일러복(sailor suit)을 입기 시작했다. 세일러복은 영국과 미국의 어린 남아들이 입었던 옷으로

37 남윤숙(1992). 한·일 여성복의 양복화에 관한 비교연구, 服飾 제19호, 한국복식학회, pp.41-51.

세일러복은 시기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씩 변하면서 1900년대 까지 인기있는 아동복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세일러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20년대 이후로 1930년대에는 일부의 여학교에서는 세일러복을 교복으로 착용³⁸하기도 했다. <Fig. 103>은 1880년대 서양의 여아이며 <Fig. 104>는 일본의 여아들이다. <Fig. 105>의 오른쪽 여아가 세일러복으로 입고 있으며 <Fig. 106>은 1931년 숙명여학교의 세일러복 교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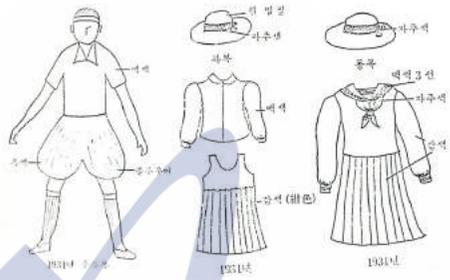


Fig. 106. School uniform - 1931
Fro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68) p.102.

1920년대부터는 원피스 형식의 앞치마를 착용하는 유행이 있었고 실로 짠 스웨터와 같은 옷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서양 문화권에서 앞치마가 장식성이 강조되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로 아동복식에서 장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³⁹. 앞치마 착용은 1940년대 까지 꾸준히 나타났다. 다른 서양복과 마찬가지로 앞치마의 유행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Fig. 107>는 앞치마를 착용한 1888년대의 여아들이며 <Fig. 108>은 일본여아의 모습이다. <Fig. 109>는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한국 여아의 모습이다.

<Fig. 110>과 같이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 앞치마를 만드는 법이 실릴 만큼 아동의 앞치마는



Fig. 107. apron - 1888
From, www.nickdelves.co.uk/gibson.htm



Fig. 108. apron - 1910's
From, Hinyou Tada(1992), p.32.



Fig. 109. apron - 1932
From, Park Chewon



Fig. 110. apron
From, Kim Sookdang(1925), p.107, p.112.



Fig. 111. apron - 1917-1921
From, Hinyou Tada(1992),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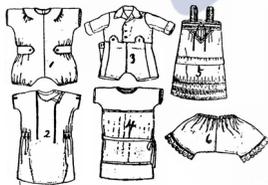


Fig. 112. From, Dongailbo, 1926, 10, 4.



Fig. 113. From, Dongailbo, 1932, 7, 29.

38 1931년에 숙명(淑明)의 동복은 감색 세일러복에 같은 색의 스커트였다. 유수경(1989), 앞의 책, p.181.

39 남윤숙(1995), 아동용 에프론 소고, 자연과학논문집 1, 부산여자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 pp.81-94.

유행했었는데 <Fig. 111>은 1917년에서 1921년 사이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아동의 앞치마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1922년에 방정환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면서 아동의 건강이나 생활, 위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아동이 입는 복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신문에 등장하는 아동복에 관련된 기사에는 아동의 의복에 관한 정보와 관리, 재봉강좌, 유행 스타일 및 아동복의 제작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Fig. 112>, <Fig. 113>은 신문기사에 실린 아동복에 관한 삽화이다.

4. 1937-1945년

(1) 전통복식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옷감을 사용하여 만든 저고리를 볼 수 있다. 광택이 있는 무늬의 옷감이나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옷감으로 저고리나 두루마기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Fig. 114>, <Fig. 115>, <Fig. 116>의 여아들의 한복은 모두 화려한 옷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여아들의 한복에서 금박장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왕실에서만 사용되었던 금박이 일반인에게도 많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아들이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는 유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끼의 형태는 남아들이 입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Fig. 117, 118>의 여아 저고리의 깃과 고름, 치마단에 금박장식이 되어 있다. <Fig. 119>의 여아는 화려한 자수가 있는 조끼를 저고리 위에 착용하였는데 <Fig.



Fig. 114. *jeogori* - 1938
From, Kyodong Elementary School(1996)



Fig. 115. *jeogori* - 1941
From, Ewha kindergarten(2001), p.201.



Fig. 116. *Durumagi*, 1949,
From, Kyunggi Alumnae Association(2005), p.79.



Fig. 117. *gold leaf* - 1940
From,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Fig. 118. *gold leaf*, 1942
From, Ewha kindergarten(2001), p.17.



Fig. 119. *Jokki* - 1927
From, Ewha kindergarten(2001), p.198.



Fig. 120 *Jokki* - 19c Chang
From, Pudeok Memorial Gallery(1999), p.169.



Fig. 121. *pleats skirt* - 1939
From, Namdaemun Church(ed.)(2008)



Fig. 122. *pleats skirt* - 1939
From,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 of Tutzing priory(ed.)(1996), p.549.

120)의 조끼와 비슷한 분위기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여아의 치마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타일은 치마의 주름을 끈게 잡아 다리미로 눌러서 플리츠스커트의 형태처럼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여학생복에서도 많이 유행하였는데⁴⁰ 많은 여아들도 이와 같은 치마를 착용하였다. <Fig. 121>, <Fig. 122>의 여아들의 치마는 모두 주름을 잡은 플리츠스커트 형태이다.

(2) 교복과 서양복

1940년대가 되면서 꽤 많은 여아들이 서양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여아가 가장 많이 입은 서양복 중의 하나는 원피스로 당시 사진자료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즐겨 입었던 다양한 디자인의 원피스를 볼 수 있다. 겨울에는 두루마기 대신 코트를 입기도 하였다. <Fig. 122>, <Fig. 123>의 여아들은 다양한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고 <Fig. 124>의 여아는 망토를 입고 있다.



Fig. 123. one-piece dress - 1939
From, Namdaemun Church(ed.)(2008)



Fig. 124. one-piece dress - 1941
From, Ewha kindergarten(2001), p.201.



Fig. 125. manteau - 1938
From, Choy Seklo(ed.)(1994), p.129.

한복을 교복으로 착용하는 학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양복을 착용하는 학교도 많이 늘어났다. 치마단을 흰 선으로 장식하는 것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집에서는 한복을 입어도 학교에서는 양복 교복의 착용을 권장하는 기사도 실리는 등 교복의 양복화를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었다.

每日申報 1939년 1월 1일

兒童服 집에서 조선옷 교복은 양복으로 양복은 사입하는 것이 싸다!

<Fig. 126>은 「매일신보」에 게재된 1942년의 여학생 교복으로 실용적이고, 주름치마에 비해 옷감이 적게 드는 통치마이므로 착용을 권장하였다. 이와 같은 교복이 나이가 어린 여아들에게도 똑같이 착용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40년대에 양복의 교복이 한복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착용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Fig. 126. From, Maeilsinbo, 1942, 3, 31.

V. Conclusion

본 글은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한국 아동의 옷차림사에 관한 것으로, 아동복식의 변천과정을 시대 변화에 따른 복식의 유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세기는 전통문화와 새롭게 유입되는 서양 문명이 혼재하는 시기로 근대적인 아동관이 새롭게 자리잡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19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식은 서양이나 일본의 복식문화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 발전해왔

40 유희경(1975). 앞의 책, p.642.

다. 남아와 여아의 옷차림새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서구와 일본 문화의 유입으로 전통복식 착용이 감소됨과 함께 서양복의 착용이 늘어난 점이나, 기본적인 옷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복식의 요소에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의 복식이 변화하는 속도가 여아의 복식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개항 이후 유입된 서양복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복식의 틀을 깨고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아동복 형태는 이후 성별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하면서 현대 아동복식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글은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전통사회에 서구로부터 유입된 이질적인 문화가 융화되는 개항 이후를 중심으로 보았다. 문화와 역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과도기에 대한 연구는 항상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다양한 변화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식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느 짧은 시기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사회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아동복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고 귀여운 아동복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시대의 변화요인을 읽어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문화와 이와 호흡하는 서양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References

- Bunka Gakuen costume museum(2006). 三井家のきもの [Kimono from the Mitsui Family]. Tokyo:Bunka publishing bureau.
- Chang Pudeok Memorial Gallery(1999). (The) inaugural exhibition catalogue of the Chang Pudeok Memorial Gallery. Seoul:Ewhapress..
-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1997). By freedom and light : History of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1885-1997). Seoul:Chungdong The Trilingual Press.
-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2000). Korean traditional costume for children. Seoul:Dankookpress
- Deoksu Elementary School(1983). 德壽71年史[100 Years :The History of Deoksu Elementary School]. Seoul:Jungb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Seoul.
- 독립신문[*Dongnipsinmun*](1896-1899)
- Ewha kindergarten(2001).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The Photographic history of Ewha kindergarten]. Seoul:Ewhapress.
- Ewha Women'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72). 韓國女性史 2[History of Korean women 2]. Seoul:Ewhapress.
- Ewha Women's Univers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94). 이화 100년사[100 Years : The History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Ewhapress.
- Georgina O'Hara(1986).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New York:Abrams.
- 고종실록[*Gojongsillok*] (1927-1935).
- Goro Hiraishiyou(1888).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28, 244-250.
- Heysung, Shin(2000). A Study of The *Dar*(緞) Fabrics Since The Beginning of Westernized Er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iroko Murata(2004). Studying Western-style-of-dress children's cloth in Taisho era - Magazine "Shufunotomo"-, Osaka Ohtani CollegeDepartmental Bulletin Paper, 48. 31-42.
- Hwang Eui sook(1995). (A)study of the style variation for Korean women's traditional costu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Jinno Yuki(1984). Childhood Products Becoming Fashionabl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Seven-Five-Three Festival as a Consumption Event in the Early Modern Age. Bulletin of Japanese Society for the Science of Design, 54(1). 69-76.
- Kazuko Hashimoto(2005). 着物の歴史[History of Kimono]. Tokyo:Kawade Shobo Shinsha.
- Kim, J. S.·Korea Federation of Costume Contractors(1990). 한국양복 100년사[100 Years : The History of History of Western dress in Korea]. Seoul:Mirinae.
- Kim, Jeong Ah(2002). A Study of Children's Dress : 1920's - 195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eong Ah(2011). (A) study on children's costumes in Korea after the open-door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G.(1987). 한국 민속의 뿌리[The roots of Korean folklore]. Seoul:Chosun libo Press.
-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2004). 빛·믿음·흔적[Light, faith, and trace]. Seoul: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atholic Church History.

- Kyeyseng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2006). 啓聖百年史 : 1906-2006[100 Years : The History of Kyeyseng]. Seoul:Kyeyseng school.
- Kyodong Elementary Schoo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94). 校洞百年史 : 1894-1994[100 Years : The History of Kyodong Elementary School]. Seoul:Community of Kyodong Elementary School.
- Kyunggi High school(1990). 京畿90年史 : 1900-1990[90 Years : The History of Kyunggil]. Seoul:Community of Kyunggi High school.
- Lee Songhee(1984). (The) transformation of costume during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Korea and th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H(1998). 星峴書堂史, [History of Senghyen Village School]. Seoul:The Trilingual Press.
- Lee, Kyung Mee(1999).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ostume Systems since Port Opening Treaties in nineteenth Centu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Kyung Mee(2008). Western-styled court costume paradigm of the Korean Empi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cPhail Anna(1999). The well-dressed child : children's costumes 1820-1940, Atglen PA:Schiffer Pub.
- Marion Sichel(1983). History of children's costume. London:Batsford.
- Moffett, Samuel H·Sibley, Norman R·Underwood, Peter A (1982). First Encounters : Korea 1880~1910, Seoul:Dragon's Eye Graphics.
- Nam Kyoung-mi(2008). A study on Korean men's daily wear :1876-19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Nam Yoon Sook(1995). A study on the fashion of children's aprons, Busan Women's College Journal of natural science, 1. 81-94.
- Pai Chai Hakdang(1989). 培材百年史 : 1885-1985[100 Years : The History of Pai Chai Hakdang]. Seoul:Pai Chai Hakdang.
- PCK Sawol Church(1999). 사월교회 100년사 : 1898-1998[100 Years : The History of Sawol Church]. Daegu:PCK Sawol Church.
- Philippe Aries(2003).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egime [Centuries of Childhood :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J. Moon, Trans.). Seoul:Saemulgyeol(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Ruth Turner Wilcox (1969).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Batsford.
- Saegusa Koike·Hiromi Noguchi·Yoshiko Yoshimura·Mie Shibata(2000), 概説 日本服飾史[History of Japan costume]. Tokyo:Kouseikan.
- Saha Elementary Schoo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2008).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 1908-2008[100 Years : The History of Saha Elementary School]. Pusan:Jeonmang.
- Seoul Jaedong Elementary School·Community of Seoul Jaedong Elementary School(1996). 재동 100년사[100 Years : The History of Jaedong Elementary School]. Seoul:Seoul Jaedong Elementary School.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2004). Scenes from early modern Korea : through the looking glass. Seoul:Nunbit.
- Setuko Okamura(2003). 日本の子ども服物語[Story of Japanese children], Tokyo:Channele.
-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91). 한국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100 Years : The History of 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Seoul:Sisters of St Paul de Chartres.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1968), 淑大三十年史[30 Years : The History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Sookmyungpress.
- 조선왕조실록[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 Van Gennep, Arnold(1994). Les rites de passage[The Rites of Passage](Jeon, G. S, Trans.). Seoul:Eulyoo

Publishing.

Yim, Seon-He (2005). A Study on the Wedding and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Yoo Soo Kyung(1989). (A)study on the changes in Korean women's Western-style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Yoshiko Mathuda (2010). 日本衣服史[History of Japan costume], Tokyo:Yoshikawakomonkan.

Yu, H. K.(1975). 한국복식사연구[History of Korean costume]. Seoul:Ewhapress.



A Study on the Change of children's costumes after the opening of trade ports

Kim, Jeong Ah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nam University, Korea

■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children's costumes in Korea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former half of the 20th century. It was in the 19th century that the modern conception of childhood began to settle down and the perceptions of children started to develop.

In Korea, children's clothes continued to change and develop by exchanging much influence with the costume culture of the West or Japan since the 19th Century. Changes to boys' and girls' clothing shared a very similar path including the reduction of traditional clothing and increase of western clothing worn by children after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and the alterations of partial elements in the basic garment shape. Western children's costumes introduced after Korea opened its ports to foreign countries developed into a variety of designs according to gender and laid the foundation of modern children's costumes.

The study focused on the modern period when the heterogeneous culture introduced from the West was incorporated into the traditional society of many years. Follow-up studies also should cover the overall flow in children's costumes in China, Japan and East Asia around Korea and that of western cultures in addition to the changes to children's costumes in Korea.

Keywords : children's costumes, costume culture, modern period

간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간행횟수) 『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말일에 총 2회 간행한다. (2017.4.30. 개정)

제3조(논문투고)

-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인은 본박물관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2017.4.30. 개정)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7.4.30. 신설)
-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30}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4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2) 평가기준

- ① 논문의 독창성
- ② 학문적 기여도
- ③ 논문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 ④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6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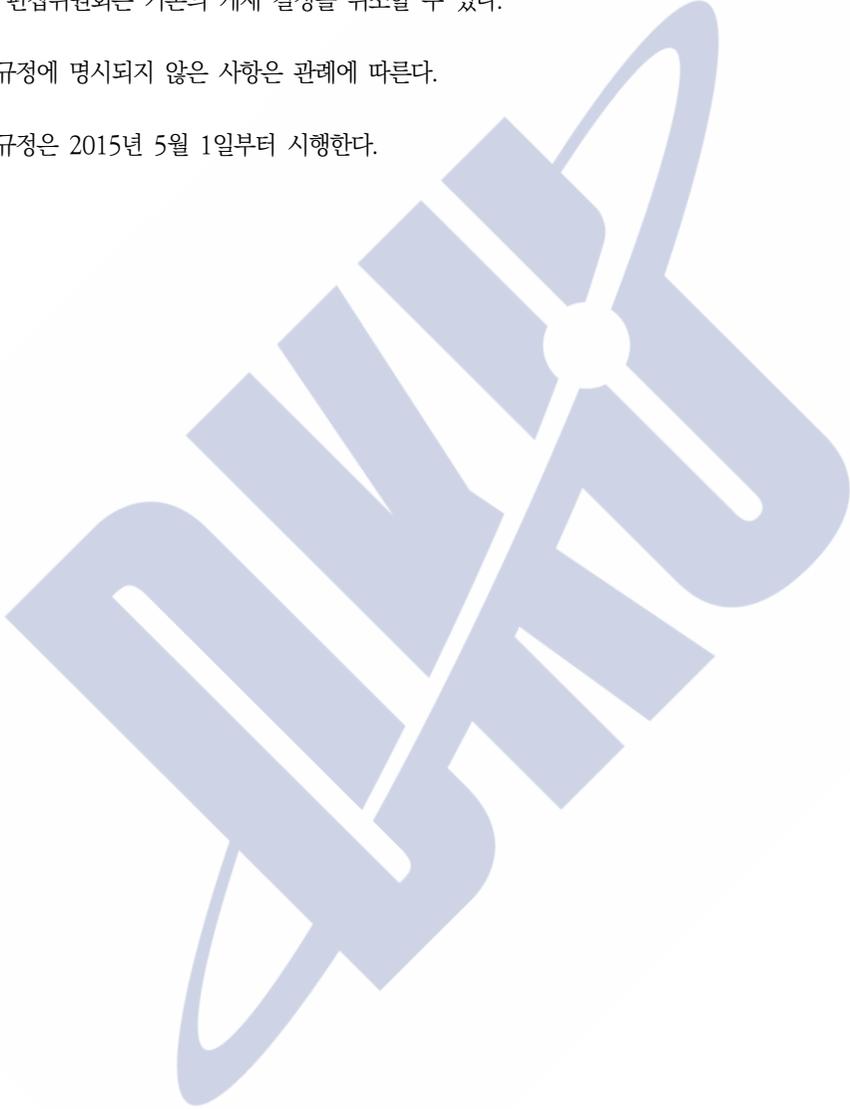
- ① A·A·A/A·A·B : 게재
- ② A·A·C/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
- ③ A·A·D/A·B·D/A·C·C/A·C·D/A·D·D /
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
- ④ B·D·D/C·D·D/D·D·D : 게재불가

제7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2. 투고 요령

-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접수 : ckafka@dankook.ac.kr).
- ②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 ③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④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요령은 『한국복식』 원고 작성 지침을 참조한다.

3. 원고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 ①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국문 및 영문 저자명(교신저자 표시)과 소속을 기재하고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과 소속만 기재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국문 초록과 200 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 5개 이상의 국·영문 핵심어, 참고문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복식』 해당호 3부와 별쇄 10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 ②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편집위원회
전화 : (031) 8005-2393 전자우편 : ckafka@dankook.ac.kr

참고문헌 작성 규정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각주' 인용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1. 본문에서의 인용 방법

- 1) 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한다.
- 2) 두 가지 이상의 참고문헌을 참고할 경우 저자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처리한다.
- 3) 같은 해에 여러 편 발표한 동일 필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연도 뒤에 1, 2, 3... 또는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 4) 동양 지역 간행본의 경우, 간행연도는 서기로 환산하고 특정연대는 괄호로 처리한다.
- 5) 전개(前掲) 논문은 「앞글」, 전개서(前掲書)는 『앞책』 또는 Ibid. 이라 쓰며,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그림의 출처 인용
인용되는 그림과 표 등의 시각적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출처는 본문 속에서 표시된 그림 (Fig.)제목 밑에 「From.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 또는 「출처.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는 참고문헌 정리양식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다.

2. 참고문헌 정리양식

(1) 학회지

- ① 저자가 두 명 이하인 경우
[예] Pavo, A., & Chun, J.(1994). Perceptual comparis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36.
- ②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Horowitz, L. M., Post, D. L., French, R. S., Wallis, R. D., & Siegelman, E. Y.(2003). The Prototype in Abnormal Psychology. Memory & Cognition, 42(1), 62-75.

(2) 신문, 잡지 기사

- ① 저자가 있는 경우
[예] Gardner, H.(2006, 12. 11.).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pp. 70-76.
- ② 저자가 없는 경우
[예]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2007, April). APA Monitor, p. 15.

(3) 서적

- ① 저자가 개인인 경우 : 저자(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 출판사.
[예] Frings, G. S.(2008). Fashion from concept consumer(9th ed.). Seoul: Sigmappress.

- ② 저자가 기관인 경우 : 기관명(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eoul: Suhaksa.
- ③ 저자가 없는 경우 : 책 제목(연도). 출판도시: 출판사.
 [예] College bound seniors(1979). Princeton, NJ: College Board.
- ④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이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저자명과 발행연도를 먼저 기재하고, 역자명은 책 제목 다음 괄호()안에 적는다.
 [예] Cowell, A. R.(1986). The fashion theory (J. Yoon, Trans.). Seoul:Sig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4) 편저에 포함된 인용문인 경우
 [예] Letheridge, S., & Cannon, C. R.(Eds.)(2004). Bilingua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Praeger.
- (5) 영어가 아닌 책 : 저자(연도). 책 제목[영어번역]. 출판도시 : 출판사.
 [예] Praget, J., & Inhelder, B.(2006). La genèse de l'idée de hansard chez l'enfant [The Origin of the idea of danger in the chil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Hong, N. Y., Shin, H. S., & Choi, J. H.(2008). 아시아 전통복식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aju: Kyomunsa
- (6) 학술대회 발표논문
 - ① 발표논문집이 발간되는 경우 : 저자(연도). 논문제목. 책 제목, 권, 페이지.
 [예] Thumin, F. J., Craddick, R. A., & Birclay, A. G.(2010). Meaning and compatibility of a proposed corporate name and symbol.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835-836.
 - ② 발표논문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 : 저자(발표연월). 논문제목. 행사명, 도시.
 [예] Brener, J.(2005, October). Energy, information, and the control of heart rat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Madison, WI.
- (7) 학위논문
 - ① 박사학위논문
 [예] Choi, G. M.(2004).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t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② 석사학위논문
 [예] Peterson, J. F.(2009).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8) 재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재인용 문헌을 기재한다.
- (9)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예] Hiltz, P. J.(1999, February 16). In forecasting their emotions, most people flunk out.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00, from <http://www.nytimes.com>.

(10) 법조항

① 판례인용

[예]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② 법령명은 띄어쓰기를 하며 「」안에 표시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2 U.S.C. § 9401.

(11) 특허

특허를 받은 발명가의 이름, 특허 정보를 검색한 공식출처를 기재한다.

[예] Smith, I. M.(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2) 비디오/ 필름

[예] Mass, J. B.(Producer), & Gluck, D. H.(Director).(1979). Deeper into hypnosis [fil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

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7 장 이의 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석주선기념박물관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관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관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제 목	국 문				
	영 문				
Keywords (5개 이내)	국 문				
	영 문				
제1저자 (주저자)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1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 031)8005-2389, Fax : 031)8021-7157, E-mail : ckalka@dankook.ac.kr

투고관련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 - mai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39號

찍은 날 2018年 05月 25日 印刷

펴낸 날 2018年 05月 31日 發行

發 行 단국대학교 石舟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印 刷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 02-723-7741~2

FAX : 02-723-7743

